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

An Analytic Study on  
Revitalization Factors of Music Festival

-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Jeju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

제 출 자 : 김 태 관

지도교수 : 남 상 문

2011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행정경영전공

박사학위논문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

An Analytic Study on  
Revitalization Factors of Music Festival

-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Jeju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

제 출 자 : 김 태 관

지도교수 : 남 상 문

2011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행정경영전공

#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 An Analytic Study on Revitalization Factors of Music Festival

-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Jeju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행정경영전공

김 태 관

김태관의 박사학위 논문을  
합격으로 판정함

심사일 : 2011년 1월 1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국문요약)

##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문화예술행정경영 전공

김 태 관

지도교수 남 상 문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축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현재 1,200여 종류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축제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역이미지의 제고, 시민문화향수기회 확대, 지역주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이라는 축제의 근본적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에도 매해 60여 종류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제주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와 자연환경에 음악분야가 접목된 음악축제는 제주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이벤트로 사회·교육·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는 국제규모의 음악축제로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며 많은 방문객으로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음악축제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음악축제와 국내를 대표하는 음악축제에 대한 활성화요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운영현황, 조직 및 재원, 프로그램, 활성화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축제 활성화요인에 대한 문헌분석을 토대로, 음악축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실

증분석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축제장으로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서 음악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제주국제관악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악의 특성인 기동성을 활용한 거리시가행진 및 야외관광지연주 등 다양한 야외공연 프로그램과 자연환경과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제주국제합창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제주민속문화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인 제주민요와 신화에 관한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재 참가를 유도하는 요인과 타인 추천을 위한 요인으로는 관광객과 지역민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축제장소로의 접근 편의성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와 방문객의 확대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을 중심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및 프로그램요인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제작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과 관광객과 지역민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악제 중심의 야외관광지공연을 강화하고 합창제 중심의 실내공연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야간상설공연운영과 여름철공연을 벗어난 시즌화방안 등 유동적인 운영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홍보 및 네트워크요인에서는, 축제의 사전프로그램으로 제주도내 음악관련 단체와 일반인 대상의 축제 홍보교육 아카데미의 운영, 전국 대도시와 세계의 음악축제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공연 및 투어공연, 해외유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유학생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한다.

셋째, 인프라 및 접근성요인에서는, 축제 장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순환버스 시스템을 적용하고 택시 운영 체계가 발달된 제주의 특성상 콜택시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자원 및 조직요인에서는, 대기업과 후원조직시스템 부재인 제주의 현실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 또는 국제적인 후원회 조직 및 악기점과 음악관련 외국기업의 후원금 확보 등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제주에 적합한 조직모델인 행정가, 외부전문가, 도내 예술가의 적절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구성이 시급하다.

다섯째, 사회 기여측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민 참여로 지역화합 및 정체성을 제고하고 외부 관광객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효과 및 지역의 문화예술 이미지를 상승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와 추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음악축제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정체성 제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상승시켜 사회기여도를 높여야한다.

둘째, 국내·외 대도시에서의 음악축제 홍보 투어공연, 해외 유학생음악회 등 다양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축제홍보를 강화해야한다.

셋째, 관악제의 특성을 살린 야외관광지음악회, 합창제의 특성을 살린 전시공간 또는 호텔실내공간에서의 음악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공연 시스템 운영 등 제주의 특성과 접목된 맞춤형공연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넷째, 유료공연을 통한 입장료 수입확대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자원확보, 유료 후원회 시스템 도입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다섯째,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한 국외의 유관 기업에 대한 스폰서 유치 및 제주의 특성을 살린 관광업계와의 패키지 협약을 통한 다양한 협찬 프로그램 등 도내에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자원확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한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6
3. 연구의 체계 .....	7
제2장 이론적 고찰 .....	10
제1절 축제의 의의 .....	10
1. 축제의 개념과 유형 .....	10
2. 축제의 효과 .....	15
3. 축제의 현황 .....	18
제2절 축제의 활성화요인 .....	26
1. 기획 및 프로그램 .....	30
2. 홍보 및 네트워크 .....	32
3. 인프라 및 접근성 .....	35
4. 자원 및 조직 .....	38
5. 사회 기여도 .....	40
제3장 국내·외 음악축제 현황 및 운영실태 .....	44
제1절 한국과 일본의 음악축제 현황 .....	44
1. 한국의 음악축제 .....	44
2. 일본의 음악축제 .....	52

제2절 국내 음악축제 운영실태 .....	61
1. 통영국제음악제 .....	61
2. 대구국제오페라축제 .....	64
3. 대관령국제음악제 .....	68
제3절 외국 음악축제 운영실태 .....	72
1. 베로나오페라축제 .....	72
2. 잘츠부르크음악축제 .....	76
3. 에든버러군악대축제 .....	81
4.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 .....	84
5. 후지산가와구치코음악제 .....	88
제4장 제주의 축제현황 및 음악축제 운영실태 .....	94
제1절 제주의 축제현황 .....	94
1. 개최 현황 .....	94
2. 예산 현황 .....	96
제2절 제주국제관악제 .....	106
1. 배경 및 개요 .....	106
2. 발전과정 .....	108
3. 운영조직과 예산 .....	112
4. 운영성과 .....	116
제3절 제주국제합창제 .....	122
1. 배경 및 개요 .....	122
2. 발전과정 .....	125
3. 운영조직과 예산 .....	127
4. 운영성과 .....	131

제5장 조사설계와 실증분석 결과 .....	135
제1절 연구의 설계 .....	135
1. 연구의 과제 .....	135
2. 연구의 모형 .....	136
제2절 조사의 설계 .....	137
1. 조사의 개요 .....	137
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	139
3.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	140
제3절 실증분석 결과 .....	143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	143
2. 음악축제 종류별 교차분 .....	144
3.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평가분석 .....	149
4.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다중회귀분석 .....	156
제6장 연구 요약 및 결론 .....	168
제1절 연구의 요약 .....	168
제2절 결론 및 제언 .....	172
참고문헌 .....	175
설문지 .....	182
ABSTRACT .....	188

## 표 목 차

<표 2-1> 연구자별 축제 분류기준과 유형 .....	14
<표 2-2> 축제의 효과 .....	16
<표 2-3> 주요축제 예산 및 경제효과 .....	18
<표 2-4> 축제 개최 시작 연도별 현황 .....	19
<표 2-5> 전국 지역별 축제의 수(2005년) .....	20
<표 2-6> 전국 지역별 축제의 수(2006년~2010년) .....	22
<표 2-7> 소재에 따른 축제유형과 축제 수 .....	23
<표 2-8> 지역별 축제 수와 예산(2004년 Vs. 2006년) .....	26
<표 2-9> 축제의 문제점 및 성공 요인 .....	27
<표 2-10> 축제의 활성화 요인 .....	29
<표 2-11>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	32
<표 2-12>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	35
<표 2-13>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	37
<표 2-14> 재원 및 조직 요인 .....	40
<표 2-15> 사회 기여 요인 .....	43
<표 3-1> 음악축제 내용별 분류 .....	45
<표 3-2> 지역별 음악축제 현황(2009년) .....	46
<표 3-3> 지역별 축제와 음악축제의 수(2009년) .....	48
<표 3-4> 유형별 음악축제 현황(2009년) .....	49
<표 3-5> 음악축제별 예산 현황(2009년) .....	50
<표 3-6> 일본음악축제의 형태별로 본 단체 수 .....	56
<표 3-7> 기획 입안 및 방법별로 본 단체수와 비율 .....	57
<표 3-8> 음악축제 운영 주체별 과제 .....	59
<표 3-9> 운영 주체별 예산대비 출연료 비율 .....	60
<표 3-10> 통영국제음악제 개요 .....	61

<표 3-11> 통영국제음악제 예산 내역 .....	62
<표 3-12>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요 .....	64
<표 3-13>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예산 및 참가현황 .....	66
<표 3-14>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요 .....	69
<표 3-15> 국내 주요 음악축제 예산 규모 .....	70
<표 3-16> 베로나오페라축제 개요 .....	72
<표 3-17> 베로나오페라축제 활성화요인 요약 .....	75
<표 3-18> 잘츠부르크음악제 개요 .....	76
<표 3-19> 잘츠부르크음악제 예산 구분 .....	77
<표 3-20> 잘츠부르크음악제 활성화요인 요약 .....	80
<표 3-21> 에든버러군악대축제 개요 .....	81
<표 3-22> 에든버러군악대축제 활성화 요인 .....	84
<표 3-23>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 개요 .....	85
<표 3-24>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 조직 및 인원 .....	85
<표 3-25>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 활성화요인 .....	88
<표 4-1> 제주지역 유형별 축제 분류표(2006년) .....	94
<표 4-2> 제주지역 유형별 축제 분류표(2008년) .....	95
<표 4-3> 제주지역 축제 및 예산 현황(2008년) .....	97
<표 4-4> 제주지역 관광환경축제 현황 및 예산 .....	99
<표 4-5> 제주지역 지역특산물축제 현황 및 예산 .....	101
<표 4-6> 제주지역 전통민속축제 현황 및 예산 .....	102
<표 4-7> 제주의 예술문화축제 현황과 예산 .....	104
<표 4-8> 제주의 기타복합축제 현황과 예산 .....	105
<표 4-9> 제주의 초창기 관악역사 시기별 요약 .....	107
<표 4-10> 제주국제관악제 개요 .....	108
<표 4-11> 제주국제관악제 연도별 주요 내용 .....	111
<표 4-12> 제주국제관악제 연도별 예산 현황 .....	114

<표 4-13> 제주국제관악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116
<표 4-14> 제주국제합창제 개요 .....	124
<표 4-15> 제주국제합창제 연도별 주요 내용 .....	126
<표 4-16> 제주국제합창제 연도별 예산 현황 .....	129
<표 4-17> 제주국제합창제 참가인원 현황 .....	132
<표 5-1> 설문 표본 단체 .....	137
<표 5-2> 질문지 의뢰 및 회수 현황 .....	138
<표 5-3> 설문 구성 내용 .....	139
<표 5-4>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타당성 분석표 .....	141
<표 5-5>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신뢰도 분석표 .....	142
<표 5-6>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분석표 .....	143
<표 5-7> 음악축제 종류별 인지도 분석표 .....	144
<표 5-8> 음악축제 종류별 참여경험 분석표 .....	145
<표 5-9> 음악축제 종류별 참가동기 분석표 .....	146
<표 5-10> 음악축제 종류별 불참여유 분석표 .....	147
<표 5-11> 음악축제 종류별 홍보소재 인식차이 분석표 .....	148
<표 5-12>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평가 분석표 .....	150
<표 5-13> 제주국제관악제 활성화요인 평가분석표 .....	152
<표 5-14> 제주국제합창제 활성화요인 평가분석표 .....	154
<표 5-15> 제주국제관악제 재 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표 .....	156
<표 5-16> 제주국제합창제 재 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표 .....	158
<표 5-17> 제주국제관악제 타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표 .....	159
<표 5-18> 제주국제합창제 타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표 .....	161
<표 5-19> 음악축제 활성화 상위요인 중요도 분석표 .....	162
<표 5-20> 음악축제 활성화 하위요인 중요도 분석표 .....	164
<표 5-21>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별 중요도 우선순위 분석표 .....	166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방법도 .....	7
<그림 1-2> 연구 체계도 .....	9
<그림 2-1> 지역별 축제의 수(2005년) .....	20
<그림 2-2> 지역별 축제의 수(2006년~2010년) .....	22
<그림 2-3> 지역별 축제 평균예산(2004년 Vs. 2006년) .....	25
<그림 3-1> 지역별 축제와 음악축제의 수 .....	48
<그림 3-2> 음악축제 종류별 개최 수 .....	49
<그림 3-3> 음악 축제별 예산 현황도 .....	51
<그림 3-4> 일본음악축제의 개최목적별 단체수 비율 .....	54
<그림 3-5> 일본음악축제의 운영주체별 단체수 비율 .....	55
<그림 3-6> 일본음악축제 예산별 단체 수 .....	56
<그림 3-7> 일본음악축제의 운영 과제 .....	58
<그림 4-1> 제주지역 축제 유형별 분포도(2008년) .....	96
<그림 4-2> 제주지역 축제의 예산 현황도(2006년) .....	98
<그림 4-3> 제주의 관광환경축제 예산도 .....	100
<그림 4-4> 제주의 지역특산물축제 예산도 .....	101
<그림 4-5> 제주의 전통민속축제 예산도 .....	103
<그림 4-6> 제주의 예술문화축제 예산도 .....	104
<그림 4-7> 제주의 기타복합축제 예산도 .....	105
<그림 4-8> 제주국제관악제 연도별 예산도 .....	115
<그림 4-9> 제주국제관악제 예산 구성 분포도 .....	115
<그림 4-10> 제주국제합창제 연도별 예산도 .....	130
<그림 4-11> 제주국제합창제 연도별 예산 분포도 .....	130
<그림 4-12> 제주국제합창제 출연자 현황(경연대회) .....	132
<그림 4-13> 제주국제합창제 출연자 현황(초청단체) .....	132
<그림 5-1> 연구의 모형 .....	136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제주의 지역경제는 고유한 자연 환경과 독특한 민속 문화를 기반으로 청정 1차 산업과 관광 중심의 3차 산업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 결과 제주의 관광산업은 감귤산업과 함께 제주지역 경제에 있어서 2대 주력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의 지역경제는 국가의 IMF 위기 이후 외자유치의 부진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항공료 및 교통비 상승에 따른 관광객의 소극적 소비 현상, 국내·외 관광지간 경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제주의 지역경제위기론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제주도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극복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91년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다. 이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sup>1)</sup>가 출범되었다. 또한, 제주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인 생물권보존지역(2002년), 세계자연유산(2007년), 지질공원(2010년)을 달성하였고 2011년 현재 관광·환경 분야의 세계적 이슈인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변화는 정치, 환경,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

1)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가 추진하고자하는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이며 제주를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도시로 육성·개발하기 위한 법률이다.



유발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관광자원과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문화관광축제분야는 지역의 정체성 제고는 물론 지역민의 화합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통한 수익 창출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 또는 문화상품으로 육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축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6년 412건에서 2001년 519건, 2003년 83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1,200여건이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축제의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한 축제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지역 이미지 제고, 시민의 문화향수기회확대, 지역 주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이라는 지역축제의 근본적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럽중심으로 발달된 음악축제는 다양한 축제 중에서 활성화된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음악축제는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소재로 기획된 축제로서 오스트리아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년 약 2,1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영국 에든버러는 축제 전략으로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중 군악대축제는 20여 일간 진행되면서 유료관객만 21만여 명에 달하여 이 축제로 인한 파급효과는 연간 약 1,320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sup>2)</sup>

제주의 경우에도 60여 종류의 축제가 개최되고 많은 비용이 소비되고 있으나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부실하게 운영되는 축제가 대부분으로 축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sup>3)</sup> 이런 현실은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축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제주의 축제가 우수축제 이상에 선정되지 못하였고,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57개의 문화관광축제<sup>4)</sup>중에 제주지역 축제로는 7,000만원씩 지원되는 17개 유망

2) 김춘식·남치호, 『세계 축제경영』, 김영사, 2002, p.101.

3) 문화관광부 총괄보고서,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2006, p.49

4) 2008년 대표축제는 보령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축제 2개가 선정돼 8억원씩 지원되고 최

축제 중 제주정월대보름축제와 서귀포칠십리축제, 3,000만원씩 지원되는 21개 예비축제 중 서귀포최남단방어축제가 선정되는데 그쳤다. 반면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는 공연예술산업 국고지원사업평가에서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는 등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축제에 대한 관심과 제주지역 축제의 평가와 관련된 과정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를 조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위원회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지정축제를 선정하여 대표축제를 개발함과 동시에 비효율적인 축제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축제 예산 및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등 제주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어 축제의 전문성 강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제주도의 정책적인 지원 등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에는 지자체가 주최하고 중앙정부에서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있는 국제규모의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가 개최되고있다. 2007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국고지원사업 공연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제주국제합창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시를 바탕으로 제주의 노래를 만들고 음반 제작을 통하여 제주를 알리는 작업을 한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제주국제관악제는 세계 마칭쇼밴드챔피언십 등의 독특한 프로

---

우수축제(춘천국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금산인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우수축제(연천구석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강경갯갈축제, 천안홍타령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남도음식문화관잔치, 하동야생차문화축제)도 선정되어 각 3억원, 1억 5,000만원씩 지원되었다.

5)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장(기능)

그럼 유치와 수준 높은 국내·외 연주단의 공연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외부관광객 특히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주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개발, 자원확보에 관한 다양한 전략수립,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역의 관련 평가기관의 객관적인 외부평가와 자체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요구받고 있다.<sup>6)</sup> 따라서, 이러한 외부평가를 통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방안과 본 연구의 목적인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활성화요인을 분석하여 축제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음악축제와 국내를 대표하는 음악축제에 대한 활성화요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운영현황, 조직 및 자원, 프로그램, 활성화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본 논문의 연구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연구를 통해 국내·외 활성화된 음악축제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요인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활성화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실증분석을 통해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대한 인지여부, 참가경험, 참가동기와 불참이유를 조사하였다.

셋째, 실증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음악축제 활성화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넷째, 실증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음악축제를 국내·외로 홍보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인식차이를 각 축제별로 조사하였다.

다섯째, 실증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대한 재 참가의사와 타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6)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산업 국고 지원사업 평가 결과보고서」, 2007, pp.115-119.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내용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를 주요 지역으로 한정하였고 세부 내용은 제주지역의 국제규모의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이다. 운영사례로는 국내·외에서 성공한 음악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음악축제, 이탈리아 베로나오페라축제, 영국 에든버러군악대축제,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재즈페스티벌, 일본 후지산사와구치코 음악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국제규모이면서 국비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고 3년 이상 매해 개최하고 있는 음악축제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통영국제음악제, 대관령국제음악제로 한정하였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문화관광축제의 일반현황을 연구하였고, 국내음악축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운영현황과 평가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제주국제관악제는 최초개최연도인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국제합창제는 최초개최연도인 2001년부터 2009년까지로 한정하였다. 특히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대한 운영평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를 조사하였다.

셋째, 내용적 범위는 세계음악축제와 국내음악축제의 경우 축제개요, 발전과정, 운영성으로 구분하였고 제주지역 음악축제는 축제의 배경 및 개요, 발전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조직 및 예산, 운영성으로 구분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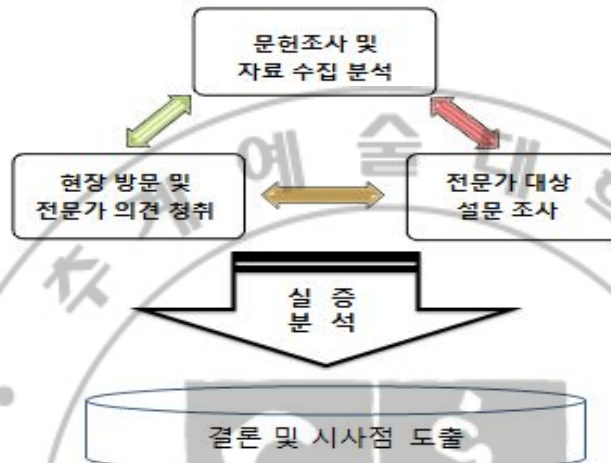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이론연구, 현장방문 및 전문가 의견청취, 설문조사, 실증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 및 자료 수집 분석으로 문헌은 단행본, 연구보고서 및 국내외 문헌, 학위 논문 등을 참고하여 문화관광축제와 음악축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관광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 보고서와 자료, 관광·축제·지역 개발과 관련된 박사논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의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축제육성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 조직위원회, 행정기관의 문화예술 및 관광정책부서, 언론기관 등의 자료를 협조 받아 지역축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축제의 활성화 요인을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총 25개의 활성화요인을 추출하였다.

둘째, 현장방문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제주의 경우 본 연구의 주요대상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축제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축제의 진행 상황과 축제 집행조직의 운영, 진행 프로그램, 출연자와 방문객의 기호와 반응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운영 실무자와 축제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축제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음악축제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5개 영역으로 6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제주국제합창제와 제주국제관악제의 활성화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음악축제의 인지여부와 참여경험, 재 참가의사 및 타인추천의사, 홍보소재에 대한 인식, 참가 동기와 불참가 원인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 17.0을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을 통해 모집단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변수집단 간 분석은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 t-test, 카이제곱(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방법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방법도

### 3. 연구의 체계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한 체계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제시한 서론부분과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축제 및 음악축제의 일반 현황을 연구한 이론적 고찰부분, 국내·외 성공한 음악축제의 현황과 평가사례부분, 음악축제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분석부분,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과부분,



연구의 결과를 통한 결론과 제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을 서술하였고 연구체계를 제시하였다.

둘째, 이론적 고찰에서는 축제의 개념과 유형 및 축제의 효과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음악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주의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sup>7)</sup>

셋째, 세계적으로 성공한 음악축제와 국내의 활성화된 국제규모의 음악축제의 일반현황과 축제의 활성화요인 및 운영평가사례를 요약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과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개최배경 및 축제개요, 발전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조직 및 자원현황, 사회 기여도와 각 축제의 성과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넷째, 제주의 음악축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내용은 축제의 활성화 요인과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음악축제의 인지여부와 참여경험, 재참가의사 및 타인추천의사, 홍보소재에 대한 인식조사, 참가 동기와 불참가 원인 조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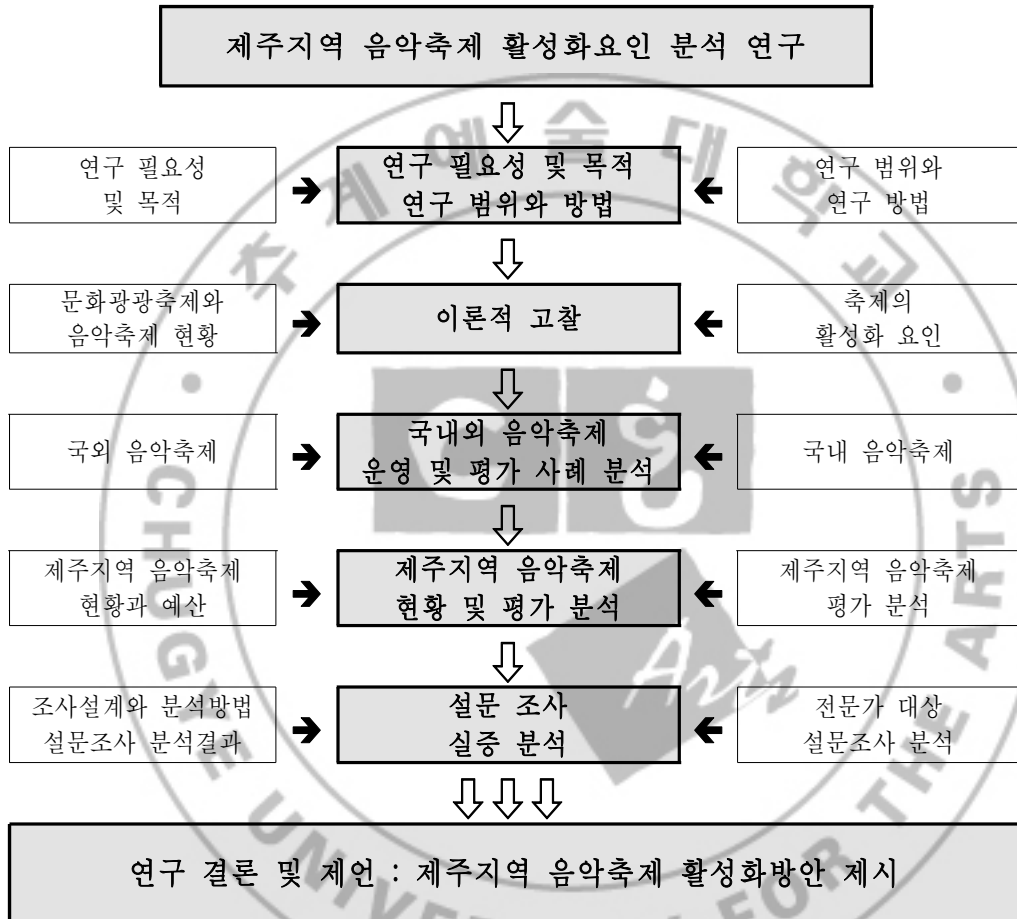
다섯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실증분석 내용인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음악축제 종류별 교차분석(인지도, 방문경험, 참가동기, 불참이유, 홍보 소재 인식),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별 다중회귀분석(재 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 타인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

7) 상위 5가지 요인인 기획 및 프로그램요인, 홍보 및 네트워크요인, 인프라 및 접근성요인, 자원 및 조직요인, 사회 기여요인으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별 5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섯째,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전체적인 요약과 결론 및 제언내용을 서술하였다. 최종 결론에서는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활성화 요인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체계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 체계도



## 제2장 이론적 고찰

### 제1절 축제의 의의

#### 1. 축제의 개념과 유형

축제의 어원은 라틴어의 Festum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중적인 기쁨(Joy), 환락(Merriment), 떠들기(Revelry)를 의미한다. 어원상으로 축제는 일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떠들고 즐긴다는 놀이적인 성격이 강하다. 축제에 해당하는 Festival과 유사한 Feast는 우리말의 ‘잔치’에 가까운 뜻이고 또 Festing은 ‘단식’의 뜻이나 잔치 행사의 준비과정으로서 정화(Purification)의 성격을 갖는다.

축제는 사전적 의미로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이다. 과거의 축제는 전통적인 의식의 후속으로 희로애락을 표출한 형태였으나 오늘날의 축제는 종교의식보다 지역의 전통, 환경, 유희를 중심으로 하는 볼거리문화로 인식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축제의 기원은 고대 부족국가 시대의 제천의식에서 시작된다. 부여의 정월축제인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마한의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인 5월과 10월의 제천의례는 모두 한국적 축제의 원형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제천 의례를 통해 신성한 종교의 장으로서 천신에게 제사지내고 음주가무로 놀이판을 벌이며 신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소망을 빌었다. 이러한 제천의례는 우리나라 축제 문헌상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축제이다.<sup>8)</sup>

8) 김동혁·강열우·박제성·김철우, 『관광과 축제 이벤트론』, 신지서원, 2000, p.120.

축제는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으며, 특히 이흥재는 문화를 종합 과학적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이에 문화란 후천적으로 학습되어, 집단이 공유하며 종적·횡적으로 교류됨으로써, 환경 각 부문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광범위한 활동이라고 하였다.<sup>9)</sup>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포괄하는 지역축제의 개념은 좁은의미로 또는 전통적 의미에서 ‘지역의 역사적인 상관성 속에서 생성되고 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넓은의미는 전통, 축제, 문화제, 예술제, 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민속예술공연 등 문화행사 전반이 포함된다.<sup>10)</sup>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가 종합되고 상징화된 행사로서 한 지역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고, 예술은 지역의례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sup>11)</sup> 또한 김성혁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두고, 대중적이며 주제가 있는 행사 또는 볼거리·놀거리·배울거리 등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들이 실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반의 행사’를 지역축제로 정의하고 있다.<sup>12)</sup>

축제의 기능적인 면을, 송정일<sup>13)</sup>은 전통축제의 기능을 사회적 기능, 전통문화의 보존 기능, 생산적 기능, 종교적 기능으로 구분하였고, 한국문화정책개발원<sup>14)</sup>은 축제의 기능을 통합과 신명, 조화로 보고 있다. 임재해<sup>15)</sup>는 우

9) 이흥재, 『문화예술정책론』, 박영사, 2005, p.10

10) 김명자, 『지역축제의 방향을 위한 시론』, 비교민속학연구 Vol. 12, 1995, pp.185-186

11) 박철·손해식, 「지역 문화축제에 대한 의례 분석적 접근과 관광 상품의 전략」, 관광레저연구 Vol. 22(2), 1998, p.43.

12) 김성혁·고호석·김순하, 「지역축제 관광객의 시장세분화 선택속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학 연구 Vol. 24(1), 2000, pp.259-280.

13) 송정일, 『이벤트 플래닝』, 백산출판사, 2001, p.11.

14) 조홍윤,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p.38

리나라의 전통축제들을 종교적기능, 사회적기능, 정치적기능, 축제적기능, 예술적기능, 경제적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축제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감정적, 지적인 것의 총체적인 복합물로서 예술과 문학을 포함한 생활방식, 인간의 기본권리, 가치체계, 전통 및 신앙을 포함하여 민족이나 특정지역의 주민이 공감하는 유·무형의 현상 일체를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애향심이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연대감 고취를 목표로 하고, 지역의 관광 및 산업발전 등 대외적 이미지 고양과 외부 사회와의 다차원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sup>16)</sup>

축제는 역사, 개최 목적과 장소, 행사내용 및 구성, 주제, 지향성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축제 연구자들에 의해 축제의 유형은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전통축제 또는 향토축제와 현대축제 등은 역사적 측면에서 구분하였고 지역축제와 초 지역적인 특별축제 등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였다. 또한 주민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은 개최목적에 따라 분류되었고,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 등은 행사 내용이나 행사 구성 형식에 따라 구분하였다.

축제의 지향성과 개최목적 및 목표 대상에 따라 내부지향형(내향형) 전통축제와 현대축제, 외부지향형(외향형) 전통축제와 현대축제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분류형식에 따라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문화관광의 대상으로서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에 해당된다.

장정룡<sup>17)</sup>은 종합형 향토문화축제, 역사·제의형 축제, 민속놀이경연 중심

15) 임재해, 『민속 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p.21.

1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p.47.

축제, 예술제 등으로 구분하였고, 서연호<sup>18)</sup>는 역사적 시점에서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공간적 측면에서 지역축제와 초지역적인 특별축제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손대현은 존재양식에 따라 대형이벤트, 축제, 소형이벤트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규원은 축제를 크게 예술축제, 전통지역축제, 지역특산물 축제, 관광자원축제로 구분하였고 김병철<sup>19)</sup>은 축제의 지향성을 기준으로 지역축제를 유형화하였다. 하나의 축은 주로 축제의 개최 목적이나 축제의 목표 대상에 따라 공동체 지향성·외부지향성으로 설정하였으며,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주로 축제의 소재나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 전통지향성·현대지향성으로 구분하였다. 정두진은 개최목적에 따라 주민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구분하였고 행사내용 및 구성형식에 따라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로 지향성 및 개최 목적에 따라 내부지향성축제와 외부지향성축제로 구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제의 개최 목적에 따라 주민통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 형식에 따라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로 분류하였다.

이경모는 개최 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축제와 민간단체축제로 구분하였고, 프로그램별로 전통문화축제, 공연예술축제, 종합축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06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축제의 유형을 보면, 축제에 사용되는 소재에 따른 분류로 예술문화축제, 전통민속축제, 관광문화축제, 관광특산축제로 구분하였다.<sup>20)</sup>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17) 장정룡, 「강원도 축제문화의 이해와 반성」, 강원민속학, 제12집, 1996.

18) 서연호, 「축제의 미래를 위한 반성과 대안」,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방일문화재단, 1994, pp.47-64.

19) 김병철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1998

2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p.45

<표 2-1> 연구자별 축제 분류기준과 유형

연구자	분류기준	축제 유형
정두진 (2001)	개최 목적	주민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행사내용 및구성형식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
	지향성, 개최 목적	내부지향형(내향형) : 전통축제와 현대축제 외부지향형(외향형) : 전통축제와 현대축제
문화관광부 (1996)	개최 목적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프로그램 구성 형식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
김병철 (1998)	개최목적 목표 대상	공동체 지향성-외부 지향성 축제
	소재나 프로그램	전통지향성-현대지향성 축제
이경모 (2001)	개최 기관별	지방자치단체축제, 민간단체축제
	프로그램별	전통문화축제, 공연예술축제, 종합축제
	개최 목적별	주민화합축제, 문화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자원 유형별	자연, 조형구조물, 생활용품,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음식, 전통문화
	실시 형태별	축제, 지역축제, 카니발, 축연, 퍼레이드, 가장행렬
문화관광부 (2006)	축제의 소재	예술문화축제, 전통민속축제, 관광문화축제, 관광특산 축제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한 축제 유형의 분류 기준과 현황을 바탕으로 소재 및 내용별 분류기준을 사용하여 전통민속축제, 관광환경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예술문화축제, 기타 복합축제로 구분하였다.

전통민속축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 내용 위주의 소재로 진행되고 관광환경축제는 지역의 관광, 환경, 생태 위주의 소재로 진행되며, 지역특산물축제는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과 작물 위주의 소재로 진행되는 축제이다. 또한 예술문화축제는 전시 및 공연예술 위주로 진행되고, 기타 복합축제는 스포츠 및 경연대회 등 소재와 내용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축제이다. 본 연구에서의 음악축제는 예술문화축제의 범주에 속하는 축제로서 대중음악축제는 제외하였다.

## 2. 축제의 효과

문화관광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 중에 Getz(1989)는 관광객 지출효과와 소득효과 및 고용효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관광객 지출은 문화관광축제에서의 지출과 숙박, 교통, 쇼핑 및 인근 지역 관광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문화관광축제는 개최를 위한 투자 및 운영과정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하며 나아가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효과 및 연관 산업 파급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sup>21)</sup> 또한 지역축제로 인해 관광객이 유입되고, 이들 관광객이 그 지역에서 돈을 지출하면서 지역의 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하고 축제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각종 지출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효과 등이 발생하게 된다.

축제로부터 얻어지는 효과는 사회기반시설, 세수입, 관련 산업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 효과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유발하는 효과,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 지역의 교류로 인한 화합의 효과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행사를 위한 시설건축, 관람객의 입장료 수익, 쇼핑 및 숙박에 대한 수입, 고용창출과 행사관련 사업비의 지출 등의 효과가 있고 지역에 대한 애향의식을 고취하고 소속감과 결속력, 자긍심을 높여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면서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의 전통과 민속,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직적, 경제적, 관광 마케팅적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재고해야한다. 축제는 경제적 효과, 사회 문화적 효과, 정치적 효과, 교육적 효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21) 김철원·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pp.11-12.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보다 사회통합과 지역의 정체성 제고의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반면에 지역축제 개최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다거나 사생활 침범으로 인해 개인 생활이 제한되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축제의 긍정·부정적인 효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축제의 효과

구 분	내 용
긍정적 효과	정치적 효과 - 국제사회에서 지위 및 이미지 상승 - 정치적, 행정적 발전 및 민간외교의 진흥
	경제적 효과 - 관광객 소비효과(숙박, 교통, 쇼핑, 지역 관광에 대한 지출) -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효과 및 고용 효과 - 연관 산업 파급효과
	사회적 효과 - 지역 주민에게 자긍심 고취 - 지역의 지명도 제고 및 정체성 및 지역 공동체 의식 형성 -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 촉진의 매체 역할
	문화적 효과 -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수준의 향상 -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지역 문화자원 보호 강화 -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 제공
	교육적 효과 - 자체의 특성만으로도 관람객의 문화예술 감상 및 자연에 대한 지식수준 증가의 기회 제공 - 미래의 잠재적인 문화관광객 육성하는 효과
부정적 효과	- 정치적 목적 이용 및 소비 지향적 태도 형성 - 관광적 가치 강조로 문화유산 고유의 자원성 퇴색 - 문화의 상품화, 순수 교육적 목적 상실 - 과도한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유적지 파괴 - 문화변용(문화의 변질) - 범죄율 증가 및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 출처 : British Columbia Task Force on Public Order, *Policy Report,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1(2), 1993, pp.79-86.

지역축제가 실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축제 방문객 수의 변화를 통해 예상 할 수 있다. 2004년 제6회 함평나비축제의 생산증가효과는 125억 원에 이른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인 약 5.8억원의 약 21.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나비축제 총 지출액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sup>22)</sup>

2005 문화관광축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개최된 전국 45개 축제에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59,16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축제로 인한 경제효과는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5년 30만명이던 방문객이 2005년 45개 축제에 3,200만명으로 증가하여 10년 새 방문객 수가 100배 이상 늘었으며 지자체별 통계 합산 결과, 1995년~2005년 지역축제가 유발한 경제효과는 148억원에서 1조 17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김상호는 함평나비축제와 광주비엔날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축제에 참가한 외래 관람객이 1인당 3만~4만원 정도를 지역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생산 유발효과를 기준으로 2000년 광주비엔날레의 생산효과가 약 13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액수는 광주시가 지출한 금액인 114억 3,900만원의 약 1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전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금산인삼축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2008년 연속 2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총 7회 최우수축제로 평가되면서,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7년 98만명의 관광객으로 지역경제에 723억원의 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sup>23)</sup> 또한 김제지평선축제는 12억원의 예산으로 81억원을, 진주남강유등

22) 김상호,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 요인 연구”, 『2007년 함평 나비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함평군 투입 산출 모형의 적용』, 2009, pp. 162-164.

23) 문화체육관광부는 1995년부터 전국의 지역축제 1,200여 개 가운데 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1개 축제당 최우수축제는 2.5억 원, 우수축제는 1억원, 유망축제는 5,000만원씩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지원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 축제 전문가의 의견과 평가,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망을 통한 해외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도 받는다. 2009년 최우수축제는 춘천국제마임축제, 금산인삼축제, 천안홍타령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대표축제 보령머드축제, 안동탈춤축제이고 2010년 최우수축제는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금산인삼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함평나비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이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 대표축제를 지정하였고, 보령머드축제, 안동탈춤축제가 선정되었다. 대표축제 2개에 각 8억원, 최우수축제 8개에 각 3억원, 우수축제 10개에 각 1.5억원, 유망축제 24개에 각 0.7억원의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지원받는다.



축제는 18억원의 예산으로 277억원을,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은 17억원의 예산으로 236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주요축제 예산 및 경제효과

단위 : 억원

구분	금산 인삼축제	보령 머드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진주남강 유등축제	안동국제 탈춤페스티벌
예 산	11	25	12	18	17
쇼핑비	405	31	16	46	
음식 부분	150	119	28	97	
도로 여객운수	88	100	23	59	
숙 박	23	175	5	16	
문화오락서비스	57	104	9	59	
경제 파급효과	723	529	81	277	236

※ 출처 : 각 축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재정리, 2007년 기준.

### 3. 축제의 현황

#### 1) 일반 현황

축제와 이벤트는 무형의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개선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축제와 이벤트는 새로운 관광지를 만드는 것만큼 투자 재원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면서 고유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지역적으로 특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관광목적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방문객의 관광욕구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995년부터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지원 및 육성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천도자기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금산인삼축제,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보령머드축제 등 수많은 지역축제가 정부의 축제평가에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생겨난 축제가 전체축제의 약 64%에 달하여 2005년 축제의 수는 1,176개로 집계되었다. 축제 개최시작 연도별 현황은 <표 2-4>와 같다.<sup>24)</sup>

<표 2-4> 축제 개최시작 연도별 현황

단위 : 수, %

년 도	축제 수	백분율(%)
1945년 이전	5	0.4
1946 - 1950	1	0.1
1951 - 1955	2	0.2
1956 - 1960	8	0.7
1961 - 1965	19	1.6
1966 - 1970	19	1.6
1971 - 1975	30	2.6
1976 - 1980	21	1.8
1981 - 1985	61	5.2
1986 - 1990	75	6.4
1991 - 1995	150	12.8
1996 - 2000	358	30.4
2001 - 2005	394	33.5
2006	11	0.9
미 상	7	0.6
무응답	15	1.3
합 계	1,176	100

2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 지역축제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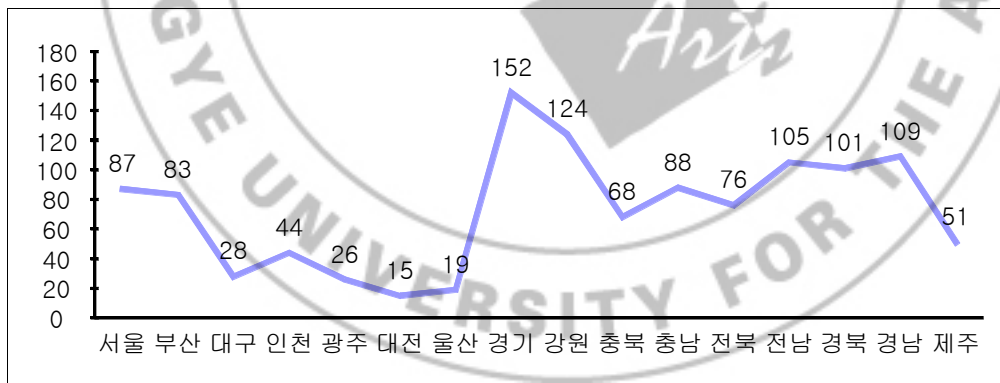
지역별 축제 개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52개 축제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124개이고 대전이 15개로 가장 작다. 세부내용은 <표 2-5>와 같다.

<표 2-5> 전국 지역별 축제의 수(2005년)

단위 : 수, %

지 역	축제 수	백분율
서울특별시	87	7.4
부산광역시	83	7.1
대구광역시	28	2.4
인천광역시	44	3.7
광주광역시	26	2.2
<b>대전광역시</b>	<b>15</b>	<b>1.3</b>
울산광역시	19	1.6
<b>경기도</b>	<b>152</b>	<b>12.9</b>
강원도	124	10.5
충청북도	68	5.8
충청남도	88	7.5
전라북도	76	6.5
전라남도	105	8.9
경상북도	101	8.6
경상남도	109	9.3
<b>제주도</b>	<b>51</b>	<b>4.3</b>
합 계	1,176	1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 1996~2005」, 2007. p.56.



<그림 2-1> 지역별 축제의 수(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별 축제의 수는 2006년 726개에서 2007년 716개, 2008년 926개, 2009년 898개, 2010년 813개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서울 지역의 축제수는 2006년 15개, 2010년 69개로 많은 축제들이 추가되고 다시 정리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은 2006년 60개, 2010년 44개이다. 대구는 2006년 26개, 2010년 24개이다. 인천은 2006년 20개, 2010년 23개이다. 광주는 2006년 10개, 2010년 13개이다. 대전은 2006년 8개, 2010년 16개이다. 울산은 2006년 20개, 2010년 21개이다.

경기도 지역은 2006년 63개, 2010년 93개이다. 강원도는 2006년 117개, 2010년 93개이다. 충청북도는 2006년 59개, 2010년 51개이다. 충청남도는 2006년 67개, 2010년 76개이다. 전라북도는 2006년 33개, 2010년 62개이다. 전라남도는 2006년 46개, 2010년 34개이다. 경상북도는 2006년 65개, 2010년 51개이다. 경상남도는 2006년 56개, 2010년 112개이다. 제주도는 2006년 61개, 2010년 31개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2006년 15개, 2007년 18개에서 2008년에 120개로 증가한 것과 제주의 축제수가 2006년 61개에서 26개로 줄어든 것을 보면, 지자체에서 축제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역별 축제를 선별 후 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축제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축제가 실제 집행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시 문화관광축제의 기준으로 제주지역 축제를 선별 후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별 축제의 수는 <표 2-6>과 <그림 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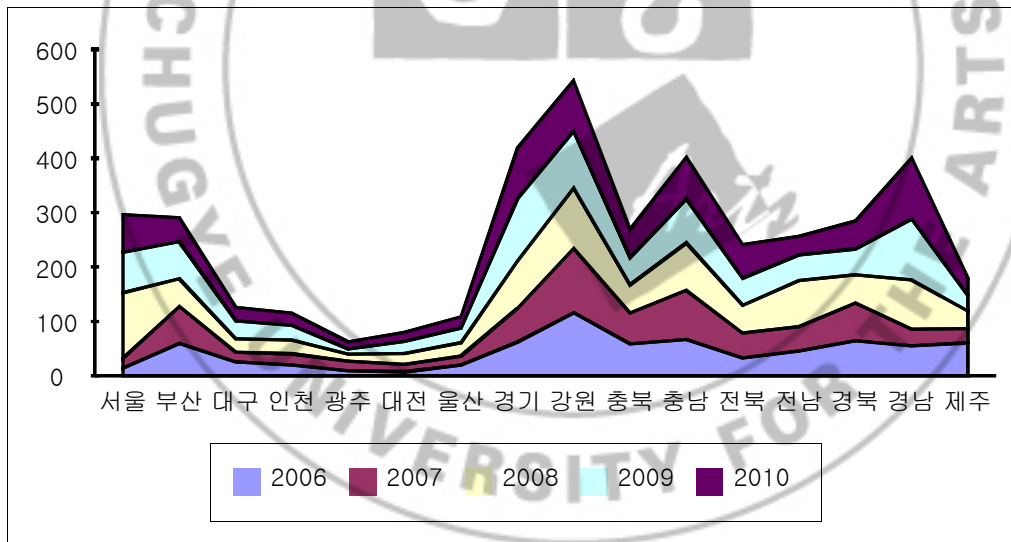
25) 각 시·도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데이터(지역별 축제 현황)를 정리한 내용임.

<표 2-6> 전국 지역별 축제의 수(2006년-2010년)

단위 : 년도, 개수

지역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특별시	15	18	120	75	69
부산광역시	60	68	51	68	44
대구광역시	26	18	25	33	24
인천광역시	20	21	25	27	23
광주광역시	10	17	13	10	13
대전광역시	8	14	20	22	16
울산광역시	20	17	24	27	21
경기도	63	61	87	115	93
강원도	117	118	110	105	93
충청북도	59	57	52	50	51
충청남도	67	91	87	81	76
전라북도	33	46	51	50	62
전라남도	46	45	85	47	34
경상북도	65	69	52	48	51
경상남도	56	30	91	112	112
제주도	61	26	33	28	31
합계	726	716	926	898	813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역별 축제 총괄표, 재정리



<그림 2-2> 지역별 축제의 수(2006년~2010년)

축제의 소재와 유형에 따라 축제의 수를 분류해보면, 예술문화축제가 21.9%, 전통민속축제 17.2%, 관광특산축제 17.4%, 관광문화축제 10.5%, 종합축제 8.8%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관광문화축제와 관광특산축제를 관광축제로 통합하면 전체 27.9%로 전체 축제 중에서 관광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은 <표 2-7>과 같다.

<표 2-7> 소재에 따른 축제유형과 축제 수

단위 : 수 / %

소재에 따른 축제 유형	축제 수(개)	백분율(%)
<b>예술문화축제</b>	<b>258</b>	<b>21.9</b>
<b>관광문화축제</b>	<b>124</b>	<b>10.5</b>
지역특산물·특성축제	90	7.7
자연환경축제	31	2.6
<b>전통민속축제</b>	<b>202</b>	<b>17.2</b>
주민통합축제	17	1.4
역사 및 인물축제	20	1.7
조형물 축제	9	0.8
음식문화축제	4	0.3
<b>관광특산축제</b>	<b>205</b>	<b>17.4</b>
농산물 관측·전시축제	4	0.3
댄스·스포츠·이벤트	7	0.6
문화산업축제	11	0.9
체험 홈스테이축제	4	0.3
중 합	0.3	8.8
화합·추모·통일염원	3	0.3
기 타	82	7.0
무응답	2	0.2
합 계	1,176	10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 1996~2005」, 2007, p.57.

## 2) 예산 현황

예산현황을 보면 2004년에는 축제 당 평균 약 2억 5,000만원이고, 2006년에는 약 2억 6,000만원이다. 지역별로 평균 예산이 비교적 많은 곳은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이고 제주도, 충남, 울산 등이 평균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축제의 평균예산은 제주의 10배 이상으로 지역 간 축제 평균예산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용은 <표 2-8>과 <그림 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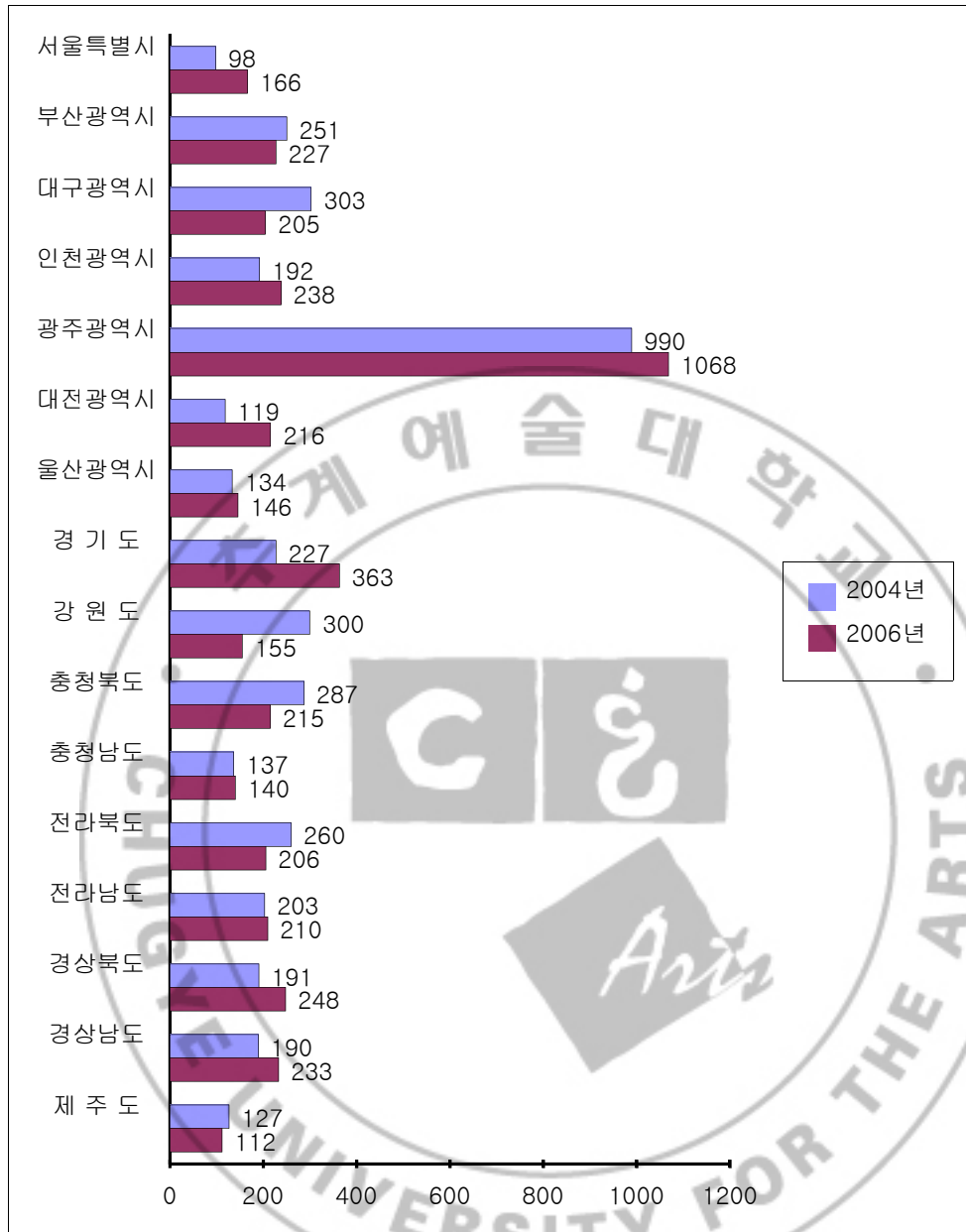
<표 2-8> 지역별 축제 수와 예산(2004년 Vs. 2006년)

단위 : 개/ 백만원

지 역	2004년			2006년		
	축제수	예산	평균	축제수	예산	평균
서울특별시	32	3,124	98	59	9,817	166
부산광역시	44	11,024	251	57	12,920	227
대구광역시	13	3,937	303	18	3,687	205
인천광역시	11	2,110	192	30	7,125	238
<b>광주광역시</b>	<b>15</b>	<b>14,852</b>	<b>990</b>	<b>14</b>	<b>14,956</b>	<b>1,068</b>
대전광역시	8	950	119	11	2,372	216
울산광역시	9	1,206	134	18	2,619	146
경 기 도	60	13,647	227	118	42,835	363
강 원 도	74	22,166	300	111	17,161	155
충청북도	39	11,179	287	62	13,348	215
충청남도	41	5,602	137	72	10,077	140
전라북도	32	8,321	260	37	7,636	206
전라남도	41	8,342	203	71	14,935	210
경상북도	52	9,956	191	64	15,847	248
경상남도	68	12,917	190	85	19,788	233
<b>제 주 도</b>	<b>15</b>	<b>1,910</b>	<b>127</b>	<b>46</b>	<b>5,159</b>	<b>112</b>
<b>합 계</b>	<b>554</b>	<b>131,243</b>	<b>250.56</b>	<b>873</b>	<b>200,282</b>	<b>259.25</b>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p.49.





<그림 2-3> 지역별 축제 평균 예산(2004년 Vs. 2006년)



## 제2절 축제의 활성화 요인

국내·외에서 활성화된 축제를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지역 주민들에 의해 기획·준비되어지고 축제의 직접적인 행위자와 향유자도 바로 그 지역주민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축제의 개최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일체감 조성, 상호간의 유대감 형성, 나아가 지방 전통문화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통제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 있다.

김철원·이석호는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의 문제점과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들의 성공 요인을 연구하여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의 문제점으로 개최 목적이 불분명하고 지역 문화를 표현하는 프로그램과 방문객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계절적·지역적 편중도가 심하고 관 주도형 축제가 많으며 축제의 전반적인 면에서 경영시스템이 미흡하고 조직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sup>26)</sup>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축제의 성공요인으로, 축제 개최 지역의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관광객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주민 자율조직이 활성화 되었다. 그리고 축제 테마와 관련된 메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 프로그램과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축제가 개최되는 공간은 비교적 광범위하며, 축제의 테마와 잘 부합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서 제시한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의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

26) 김철원·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pp.요약 11.

화관광축제의 질적 향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역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 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확한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축제 개최 지역의 전통문화 개발을 위한 노력과 축제의 전반적인 마케팅 컨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축제 평가시스템의 도입과 축제 시설과 관련한 기존의 환경적, 시설적 하드웨어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 축제의 문제점 및 성공 요인

구분	세부 내용
우리나라 축제의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최 목적이 불분명하고 독특한 지역문화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함.</li> <li>2. 축제 콘텐츠가 방문객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프로그램 부재.</li> <li>3. 계절적·지역적 편중도가 심함.</li> <li>4. 관 주도형 축제가 많음</li> <li>5. 축제에서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미흡함.</li> <li>6. 축제 조직자들의 전문성이 결여됨.</li> </ol>
세계적 축제의 성공요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제 개최 지역의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다.</li> <li>2. 관광객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반영되었다.</li> <li>3. 지역주민 자율 조직이 활성화 되었다.</li> <li>4. 축제 테마와 관련된 메인프로그램과 주변프로그램의 구분이 명확하다.</li> <li>5. 축제 공간은 비교적 광범위하며, 테마와 잘 부합한 자연경관이 배경.</li> </ol>
시사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별화 및 특성화 된 프로그램의 개발</li> <li>2. 정확한 표적시장의 선정</li> <li>3. 축제 개최지역의 전통문화 개발을 위한 노력 강화</li> <li>4. 마케팅 컨셉의 강화</li> <li>5.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축제 평가시스템 도입</li> <li>6. 기존의 하드웨어의 활용</li> </ol>

※ 출처 : 한국관광연구원,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2001, p.요약 11, 재정리.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은 활성화 된 축제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sup>27)</sup>

27)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 『제주지역 축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발전재연구원, 2000, p.53.

첫째,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업무와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서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문화정책이지만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주민대표 기능을 가진 주최 기관이 상설화되어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치중하고 독자적인 예산의 운용을 관장하고 있으며, 관의 보조는 상징적이고 민간기관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지역의 독특한 문화나 고유한 전통을 내세워 정체성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이러한 점이 지역축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넷째, 자원봉사자 활용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축제에 관련하여 동기, 행동, 지각은 축제를 기획하고 경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축제의 성공과 실패는 그 지역 기업체의 협조, 공공 서비스 제공업자, 그리고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달려 있다.<sup>28)</sup>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인 아비뇽축제, 니스카니발, 에든버러축제, 잘츠부르크음악축제, 베네치아축제, 일본하카다축제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최시기가 대부분 휴가철(여름 휴가철 축제는 아비뇽페스티벌, 에든버러축제, 잘츠부르크음악축제 등, 겨울휴가철은 니스축제, 망똥레몬축제, 베네치아 페스티벌 등)이고 기간은 보통 2, 3주간 주말이 3회 이상 포함된다.

둘째, 축제 장소가 대부분 기존의 유적(고성, 성당 등)이나 거리, 광장 등을 무대로 활용하고, 객석은 철제 받침대를 계단식으로 조립하여 활용하고 있다.

셋째, 행사주체의 역할을 보면 대부분 관공서에서는 지원만하되 간섭하지

---

28) Peter W. Willims, K. B. Dossa, and L. Uompkins, *Volunteerism and Special event management : A case study of Whistler's Mens World of Sking*, Festivals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3(2), 1995, pp.83-95.

않는 전통이 있다.

넷째, 축제의 주제를 보면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하여 매년 축제의 주제를 정하고, 상징물을 형상화한다.

다섯째, 내용과 진행방식을 보면, 비밀상성과 일탈성을 컨셉으로 지역민과 외부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연방식 도입 및 축제의 다양한 연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여섯째, 홍보와 마케팅 면을 보면, 후원금 및 기업의 협찬 유치와 민간후원회를 통한 재원확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한 입장료 방식과 연계 관광상품 판매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축제 활성화 요인을 제시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요인과 제주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요약하여 상위 5개 분야로 활성화 요인을 구성하였고 각 요인마다 5개 분야의 세부요인을 설정하여 총 25개의 활성화 요인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축제의 활성화 요인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축제 활성화 요인

상위 요인	하위 요인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전문가의 축제 기획 및 외부 평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
	연계 관광 상품의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 진행 및 각종 서비스 개선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다양한 홍보 전략 개발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
	관련 인쇄물(외국인용 책자 등) 제작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개발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전문 공연장 확충
	관련 교육 기관(학과 등) 설립
	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
	숙박, 교통, 편의시설 확충
	축제장으로서의 접근 편의성
재원 및 조직 요인	재정 자립도 향상
	재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후원회 조직 및 효율적 운영
	운영 조직의 상설화
	전문 인력 양성
사회 기여도 요인	경제적 파급 효과
	관광객 유치 효과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국제적 자유도시 홍보 효과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축제 활성화 요인은 상위 5가지인 기획 및 프로그램요인, 홍보 및 네트워크요인, 인프라 및 접근성요인, 재원 및 조직요인, 사회 기여도요인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획 및 프로그램

제주지역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들은 유사한 내용으로 시기나 장소 또는 주최와 주관만을 달리하여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별 특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축제들은 축제의 소재와 관계없는 가수나 연예인 초청공연, 청소년 또는 중장년의 노래자랑 등의 연예오락적인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편성하고 있고, 부대 행사에는 먹거리, 각

종 잡기의 놀이판, 흥밋거리 이벤트 등이 동원되고 있어 축제의 개최 목적과 관련되는 행사는 한두 가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sup>29)</sup>은 제주지역의 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기획 및 프로그램에 관련된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 지역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화 부족과 관광 상품화 기능 미비로 나타나 개별 축제의 차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전반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결여되고 축제 해설 기능 및 홍보와 마케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축제의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도입,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 소재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김철원·이석호<sup>30)</sup>는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의 문제점과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들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에 대하여, 개최 목적이 불분명하고 독특한 지역 문화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의 부족과, 방문객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부실함을 지적하였다. 축제의 관광 매력성은 외지인의 축제 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과 욕구,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차별성 있고 독특한 프로그램의 기획을 제안하였다.

정동채<sup>31)</sup>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과 지역성에 기반을 둔 축제의 개발을 바탕으로 기획되어야 하고, 전문가에 의한 축제의 기획과 과학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평가 기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의 독창성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세부적 프로그램을 차별성 있게 구성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축제를 육성 발전시켜 축제 이미지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9)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 상계서, 2000, p.187.

30) 김철원·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p.56.

31) 정동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부 정책자료집, 2001, pp.6~9.



류정아<sup>32)</sup>는 전문가에 의한 축제 기획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구상,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축제가 개최목적이 불분명하고 컨셉이 정리되지 않은 축제들과 상업성과 결합된 축제가 난립하면서 축제의 근본정신이 퇴색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들의 기획 및 프로그램요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1>과 같다.

<표 2-11>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구 분	세부 내용
양영근·김의근 정승훈·신동일	1. 축제 평가 체계 확립 2. 축제 기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축제 해설 기능의 미흡 4. 다양한 축제 소재 개발
김철원·이석호	1. 차별화 및 특성화 된 프로그램의 개발. 2.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축제 평가시스템 도입 3. 축제 개최지역의 전통문화 개발을 위한 노력 강화
정동채	1. 축제 기획 및 평가의 과학적 기법 도입 2. 외국인 안내와 신변 보호제도 도입 3.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류정아	1. 전문가에 의한 축제 기획 2. 체계적이고 장기 계획과 구상 3. 진정한 의미의 축제 기획과 평가 시스템 확립

## 2. 홍보 및 네트워크

축제에서의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은 축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홍보 전략이란 축제의 효율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표적 방문객 층을 대상으로 홍보수단을 종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축제마

32) 류정아,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p.52.



케팅에서는 홍보 전략에 홍보마케팅, 축제 정체성, 홍보대사 등을 포함하며 특히 관광 상품화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추세이다.

홍보 전략을 기획하는 순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축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창조하는 작업인 축제 포지셔닝 작업이다. 축제 포지셔닝이란 예상 방문자가 축제행사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며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설계하여 예상가능한 모든 활동이나 행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의 핵심은 예상 방문객의 목표 대상층을 설정할 때 자신이 기획하는 축제의 장점을 근거로 설정하는 것이고 이는 마케팅에서의 목표 대상층 설정과 같은 원리이다.<sup>33)</sup>

축제가 성공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홍보가 필수적이다. 제주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축제는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홍보의 형태는 도내 홍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은 제주 지역의 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홍보 및 네트워크에 관련된 요인을 보면 축제의 홍보와 마케팅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축제 참여 방안 마련과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축제 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국내외 유명 축제와 네트워크를 통한 축제 홍보 방안을 제안하였다.<sup>34)</sup>

김철원·이석호는 축제 테마의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한 각급 단위의 지역주민 자율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축제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문화관광축제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축제 성격에 따른 정확한 표적 시장의 선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작업은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축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때 표적 시

3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의 효율적 조직과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6, p.30.

34)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 상계서, p.224.

장 선정이 잘못되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이러한 관객을 설정함으로써 대상에 맞는 홍보와 관객 유치전략 등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홍보를 통한 관객유치를 제안하였다.<sup>35)</sup>

정동채는 축제의 홍보 마케팅의 단계별 전략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축제 조직인 '광역권축제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홍보마케팅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축제에 대한 방문욕구를 유발시키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며 홍보 단계별로 적절한 활동 수단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을 광역권역별로 나누어 관광벨트를 구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유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역권 축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간 축제시기 및 예산 확충과 축제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력함으로써 지역 상호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36)</sup>

류정아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외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개발과 축제의 다양한 홍보 전략개발을 제안하였다.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축제 기획 이전에 축제에 참여할 시민 중심의 소규모 단체를 조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차원의 주민 동호회 구성과 이들의 대표로 구성된 축제 자문단을 구성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한다.<sup>37)</sup>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축제에 대한 홍보 또한 지역민 또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위 연구자들의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2-12>와 같다.

35) 김철원·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pp.58~59.

36) 정동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부 정책자료집, 2001, pp.18~19.

37) 류정아, 상계서, p.129.

<표 2-12>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내 용	세부내용
양영근 · 김의근 정승훈 · 신동일	1. 홍보와 마케팅 강화 2. 지역 주민의 자발적 축제 참여 방안 마련 3. 축제 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4. 국내외 유명 축제와 네트워크 구축
김철원 · 이석호	1. 축제의 경영마인드 도입 강화 2. 마케팅 컨셉의 강화 3. 정확한 표적 시장의 선정
정동채	1. 홍보 마케팅의 단계별 전략 강화 2. 광역권 축제 협의회 구성 3.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류정아	1.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2. 방문객 만족도 향상 방안 개발 3. 홍보 전략 개발

### 3. 인프라 및 접근성

축제에서 축제장소 및 축제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축제를 보다 수준 높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한 축제 장소로의 교통, 이동 수단 및 편의,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편의 시설 등은 방문객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볼 때 축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축제는 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집행부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진행되고 있어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인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며, 부족한 인프라를 운영할 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축제가 보다 전국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축제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축제를 구성하고 진행할 전

문가 확보가 필요하고 법적,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은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인프라 및 접근성과 관련된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축제의 관광 상품화 방안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축제 행사 내용을 잘 모르는 관람객들에게 행사에 대한 안내 및 해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전통 민속축재인 탐라문화제, 탐라국입춘굿놀이, 덕수리 전통민속축제,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 등에 대한 안내 및 해설체계를 강화하는 서비스가 축제를 관광 상품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안내시스템 구축, 지역의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소재의 개발을 제시하였다.<sup>38)</sup>

김철원·이석호는 축제가 계절적으로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과 기존의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축제는 계절적, 지역적 편중도가 심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제는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계절적, 지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의 장소를 보면 축제가 진행되는 공간은 비교적 광범위하며 축제 테마와 잘 부합하는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축제를 위해 건물을 건축한다거나 새로운 것을 제작하기보다는 기존건물을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sup>39)</sup>

정동채는 축제개최 시기의 계절적 분산과 축제 장소 및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제안하였다. 축제 장소 및 공간의 예는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 축제의 장소를 예로 들었는데, 이 장소는 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한 야외무대인 콜로세움 경기장을 활용하여 야외 오페라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다시 부상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또한 에든버러 군악대 축

38)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 상계서, 2000, p.212.

39) 김철원·이석호, 상계서, pp.57~58.

제의 주경기장은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축제 기간에는 주요 공연장으로 사용되어 불필요한 건물의 신축을 방지하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sup>40)</sup>

류정아는 축제 장소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역적 문화적 공감대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sup>41)</sup> 성공한 축제의 공통적인 요인을 보면 축제의 소재나 주요 프로그램이 역사적, 지역적, 전통적인 요소와 접목되어야 하고 이것은 지역축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민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개최되는 축제는 관광객을 비롯한 축제 관람객들이 축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도를 낮추게 되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은 사라지게 된다면 인프라와 지역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였다.

위 연구자들의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2-13>과 같다.

<표 2-13>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구분	세부 내용
양영근·김의근 정승훈·신동일	1. 문화관광 자원 정보체계 구축 2. 다양한 축제의 소재 개발
김철원·이석호	1. 계절적, 지역적 균형 조정 2. 기존의 하드웨어 활용
정동채	1. 개최 시기의 계절적 분산 2. 장소 및 공간 활용 효율적 활용
류정아	1. 축제의 접근성 및 인프라 구축 2.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축제와 접목 3. 지역적 문화적 공감대 마련

40) 정동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부 정책자료집, 2001, pp.15~16.

41) 류정아,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p.223.

#### 4. 재원 및 조직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합리적 평가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 순위를 마련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마케팅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세분화된 평가기준과 지표를 마련해 축제의 준비과정부터 사후평가까지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성공한 선진 외국이 축제인 잘츠부르크 음악축제, 에든버러 페스티벌, 베로나오페라축제 등을 보면 매우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규모에 비해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프린지 페스티벌의 특성상 이들은 단지 티켓 판매, 정보제공, 웹 홍보 등의 최소한의 업무만 관장하고 나머지는 공연자에게 모두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은 축제의 자립화를 위해 축제 재원 확보 방안 개발과 축제 기금 적립, 축제 전문 인력의 양성, 행정기관 주도의 축제 운영 탈피를 제안하였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축제가 도, 시 등 행정기관의 보조금에 축제 예산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축제의 수익금은 적다. 이에 각 축제에서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익사업(입장권 판매, 휘장 사업, 영업시설사업, 광고사업, 기타 수익사업)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주가 되는 관 주도의 축제 운영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의 변화를 요구하였다.<sup>42)</sup>

김철원·이석호는 축제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재정과 재원 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케팅 컨셉의 강화와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표적 시장의 선정을 제시하였다. 조직 면에서는 관 주도형 축제를 탈피하고 축제 조직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축제는 전문가들의 전문

42)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 상계서, p.232.



성이 결여되어 있어 전반적인 차별성이 없으며 대부분의 축제가 관 주도형으로 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공무원의 순환 보직제 등으로 인해 축제 테마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일관성 있게 계획하고 있지 못하다. 축제가 단순한 지역 연례행사라면 이와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축제는 특정 테마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복합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이자 방법이 되고 있으므로 축제 조직자들의 전문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sup>43)</sup>

정동채는 축제의 다양한 자원 확보방안 프로그램 개발과 관과 민간인 합동의 효율적인 추진 조직 체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sup>44)</sup>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정부예산외에 기업으로부터 자금유치, 관련 경비의 협찬 등과 같은 스폰서십, 지역주민들로부터 기부금 모금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축제의 사업비 집행내역과 축제를 통한 수익 사업의 결과 직 간접적인 유발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계측은 자원 조달과 수익성 확보의 결정적 요소이다. 또한 축제에 관련되는 여러 이익집단과 주민, 관련 NGO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도록 하고 관민 합동의 추진조직체를 구성하고 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능에는 축제가 완료된 이후의 사후 평가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 상대적 평가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

류정아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축제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형축제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야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규모의 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활용 및 축제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관 주도형 축제로 인한 상부하달식 축제 진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축제가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인으로 구성된 축제 추진위원

43) 김철원·이석호, 상계서, p.58.

44) 정동채, 상계서, pp.16~17.



회를 구성하여 법인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는 재정지원만 할 뿐 축제 조직과 기획은 민간 전문가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축제 조직 책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편의상 관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 정도 차원에서만 머물러야하고 축제의 구체적인 조직이나 진행은 지역의 민간단체나 기구를 통해서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sup>45)</sup> 위 연구자들의 재원 및 조직 요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재원 및 조직 요인

구분	세부 내용
양영근·김의근 정승훈·신동일	1. 축제 재원 확보 방안 개발과 기금 적립 2. 축제 전문 인력의 부족 3. 행정기관 주도의 축제 운영 탈피
김철원·이석호	1. 관 주도형 축제 탈피 2. 축제 조직자들의 전문성 강화
정동채	1. 재원 확보 방안 및 수익성 확보 2.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운영
류정아	1. 관 주도형 축제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2. 비 효율적인 예산 규모의 개선 3. 조직의 비전문성

## 5. 사회 기여도

축제는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게 기여한다. 지역의 역사, 전통,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있고 이 속에서 공감대가 설정되어 지역민과 함께해야만 가능하다.<sup>46)</sup> 지역축제는 함께 살아

45) 류정아,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p.51.

가고 있는 인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을 통틀어 확인하는 통과 의례의 하나로 평가된다. 과거의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단합과 제의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지역홍보 등에 이르는 관광 상품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성공한 축제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지역의 정체성 제고와 지역민의 일체감 형성을 비롯하여 지역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축제의 경제효과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보면, 관광객 한사람을 유치하는 것은 텔레비전 5.35대분, 스포츠 신발 93켤레를 수출했을 때와 같은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관광객 3명을 유치하는 것은 자동차 1대분의 수출과 같은 경제효과가 있다고 한다.<sup>46)</sup>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함평나비축제는 직·간접 경제 수입만 845억 원에 달하고, 충남 보령시의 보령머드축제는 외국인 관광객 7만 여명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등 공신이다. 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함평나비축제는 축제의 브랜드화와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품화의 중요성 등을 보여주는 예이다. 함평군은 나비를 테마로 한 나르다 브랜드와 함평천지라는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 50여개 품목의 190여종의 상품을 개발했으며 함평의 버스정류장, 가로등, 교통안내판, 공공화장실, 공중전화박스 등의 구조물은 나비모양으로 설치돼 있다.

니스 카니발은 프랑스 남동부 해안가에 위치한 조용한 어촌을 지중해 최대의 휴양도시로 변신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해외 관광객 유치, 지역 특화산업을 통한 주민들의 소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영국 에든버러 축제 역시 성공한 축제로 인해 지

46) 김명자, 『한국의 지역축제-축제의 기원』, 문화체육관광부, 1996.

47) 시마카와 다카시,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주최, 2001 공연예술국제 컨퍼런스(지역 문화 활성화와 공연예술의 역할), 지역문화자원을 살린 관광개발의 본연의 자세, p.73.

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명 관광지로 변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가 43만 명에 불과한 에든버러 시에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축제기간 중 파생효과를 포함한 수입은 8,000억 원에 달한다.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은 제주 지역의 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중에 축제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제주도내의 관광업계에 축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제주를 대표하는 집중 축제의 육성과 지원이다. 축제 참여를 위해 방문한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고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에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은 각종 입장료의 할인과 면제,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념품 제공 및 할인 판매, 안내 홍보물 제공, 숙박 시설과 음식점 이용에 다른 할인 등이 있다.<sup>48)</sup>

김철원·이석호는 축제를 통한 지역 사회에 대한 소득, 고용, 연관 산업 효과를 기대하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형성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축제의 성공은 적절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상적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축제 성공을 위한 하드웨어의 완비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의 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축제의 테마와 관련된 기존의 하드웨어는 그 지역의 역사와 더불어 일정수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발굴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sup>49)</sup>

정동채는 축제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는 기록 보존소의 운영과 축제의 활성화로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상품으로 육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매

48)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 상계서, pp.221~222.

49) 김철원·이석호, 상계서, p.60.

번 개최되는 축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다음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축제기록보존소를 운영하여 축제가 개최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개최되지 않는 시기에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축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장소를 제공하며,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성격과 역사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sup>50)</sup>

류정아는 축제가 지역주민의 자긍심 및 연대감을 고취시키고 사회, 경제, 문화적 파급 효과를 생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축제는 지역이미지 제고, 자긍심과 애향심 제고, 여가활동 제고, 교육기회 제공, 축제 이미지의 대외적 인지도 향상,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등의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문화 홍보와 발전,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등의 문화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축제로 인해 관련분야 매니아층 형성, 외부 예술인의 참여, 예술에 대한 주민 및 관람자의 관심의 증대 등 예술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 연구자들의 사회기여요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5>와 같다.

<표 2-15> 사회 기여 요인

구분	세부 내용
양영근·김의근 정승훈·신동일	1. 관광업계 인센티브 제도 도입 2. 집중 육성 축제의 선정과 지원
김철원·이석호	1. 지역 사회에 대한 소득, 고용, 연관 산업 효과 2.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형성 3.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문화 교육
정동채	1. 축제 기록 보존소 운영 2. 축제의 활성화로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상품으로 개발
류정아	1. 지역주민의 자긍심 및 연대감 고취 2. 사회, 경제, 문화적 파급 효과 성취

50) 정동채, 상계서, pp.17~18.

## 제3장 국내·외 음악축제 현황 및 운영실태

### 제1절 한국과 일본의 음악축제 현황

#### 1. 한국의 음악축제

##### 1) 개념과 분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음악축제의 개념을 보면 대부분 대중음악축제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 음악축제는 서양음악축제, 민속국악축제, 대중음악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서양음악축제는 서양음악에 역사와 내용을 두고 예술성과 심미성에 가치를 두고 순수예술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축제이고, 민속국악축제는 우리나라의 민속음악과 국악의 내용으로 역사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축제이고, 대중음악축제는 순수음악 이외의 대중적 성향을 가진 음악분야로서 가요, 팝송, 재즈, 락음악 등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축제이다.

사전적 의미로 음악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音)을 소재로 하여 표현하는 예술로서 크게 기악과 성악, 창작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축제란 경축하여 벌이는 잔치나 행사를 이르는 단어로써 음악축제는 음을 소재로 진행되는 축제를 말한다. 서양음악축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된 클래식음악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많은 축제가 있으며 대부분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의 작품에 대한 공연과 음악장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음악축제가 대부분이다.

박미경은 『한국의 음악축제 현황』에서, 음악축제의 유형을 축제, 축전, 페스티벌, 음악제, 경연대회, 음악회, 가요제, 한마당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였

다. 또한 음악축제의 중심 장르를 국악, 대중음악, 서양예술음악(관현악, 실내악, 오페라, 지휘, 합창), 혼합(열린 음악회), 국제민속예술, 부수(공연예술), 타악, 관악, 뮤지컬 등으로 분류하였다.<sup>51)</sup>

본 연구에서는 음악축제에 대한 구분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 총괄표,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학위논문, 인터넷 검색, 신문 등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음악축제를 추출 정리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음악축제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서양음악축제, 민속국악축제, 대중음악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서양음악축제는 종합음악축제, 관악축제, 합창축제, 오페라축제, 실내악축제, 타악기축제, 재즈축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악축제의 내용별 분류는 <표 3-1>과 같다.

<표 3-1> 음악축제 내용별 분류

구분	축제 유형
서양음악축제	종합음악축제, 관악축제, 합창축제, 실내악축제, 오페라축제, 타악기축제, 재즈축제
민속국악축제	농악제, 국악제, 무형문화제 축제, 소리축제 국악대전, 민속국악문화제, 굿 축제, 기원제
대중음악축제	대중가요축제, 락 페스티벌, 가요제, 가요경연대회 인디음악축제, 기타축제,

종합축제는 기악, 성악, 창작 등 서양음악의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축제이고, 관악축제는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가 주요 소재로 앙상블, 합주, 독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축제이다. 오페라축제는 서양음악의 한 장르이자 종합예술로서 성악과 관현악, 무용, 연극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

51) 박미경, 『아시아 음악의 어제와 오늘-한국의 음악축제 현황』, 아시아음악학회, 2008, pp.444~446.



되는 축제이고, 합창축제는 성악 분야의 한 장르로서 소규모의 중창과 대규모의 합창단이 출연하여 성악의 앙상블로 진행되는 축제이다. 실내악축제는 소규모의 관현악기 앙상블과 피아노와의 협연 무대로 이루어지는 축제이고 타악기 축제는 서양음악의 악기 중 타악기를 기본 내용으로 다양한 종류의 타악기연주 위주로 진행되는 축제로서 최근에는 국악기도 타악기 축제에 포함되고 있다. 재즈축제는 현대음악에서 가장 대중적인 장르로서 재즈음악을 기본 내용으로 진행되는 축제이다.

## 2) 일반 현황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음악축제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서양음악축제, 민속국악축제, 대중음악축제의 장르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 3-2>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된 「2009 전국 시도별 문화관광축제 총괄표」와 「2009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축제 중에 2회 이상 진행된 음악축제로 제한하여 재정리 하였다. 세부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지역별 음악축제 현황(2009년)

지역 (전체축제수)	축제 명	개최 기간	주최/주관	최초 개최연도	축제예산 (백만원)
서울시 75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10/27-30 (4일간)	사)한국음악협회 축제 집행위원회	1976년 (36회)	360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5/5-18 (14일간)	서울문화재단 사)축제 집행위원회	2006 (4회)	500
부산시 68	부산국제 합창제	11/2-5 (4일간)	한국합창조직위원회 합창제 사무국	2005년 (5회)	400
대구시 33	대구국제 오페라축제	9/22-10/31 (10일간)	대구시(오페라하우스) /축제조직위원회	2003년 (6회)	1,200



인천시 27	인천세계 오페라축제	10월중 (6일간)	인천시 인천오페라극단	2007년 (2회)	300
광주시 10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9/15-18 (4일간)	광주광역시 임방울국악진흥회	2003년 (17회)	300
	광주정울성 국제음악제	10/15-17 (3일간)	광주광역시 음악제 조직위원회	2005 (5회)	300
경기도 115	대한민국 관악페스티벌	5/22-24 (4일간)	안양시	2008 (1회)	200
	의정부국제 음악극축제	5/1-16 (16일간)	의정부시 축제집행위원회	2002 (8회)	535
	자라섬국제 재즈페스티벌	10/15-18 (4일간)	가평군 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	2004 (6회)	950
강원도 105	대관령 국제음악제	7/22-8/14 (25일간)	강원도 축제추진위원회	2004 (6회)	220
충청북도 50	제천국제 음악영화제	8/13-18 (6일간)	축제조직위원회 축제집행위원회	2005 (5회)	1,000
	영동 난계국악축제	9/4-8 (5일간)	영동군 난계기념사업회	1965 (42회)	720
전라북도 50	진주 세계소리축제	9/24-27 (4일간)	전라북도 축제조직위원회	2001 (8회)	1,150
	내장산 국제음악제	5/28-6/2 (6일간)	내장산 국제 음악제 사무국	2005 (5회)	173
경상남도 112	세계군악의장 페스티벌	3/27-4/5 (10일)	진해시 축제추진위원회	1963 (47회)	1,600
	통영 국제음악제	3/27-4/2 6/29-7/4 11/14-22	통영시 축제조직위원회	1999 (11회)	1,304
	사천 세계타악축제	취소 <sup>52)</sup> (신종플로)	사천시 축제추진위원회	2006 (4회)	500
	이상근 국제음악제	11/26-29 (4일간)	진주시/이상근 기념사업회	2008 (2회)	280
제주도 28	제주 국제합창제	7/15-20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조직위원회	2001 (9회)	400
	제주 국제관악제	8/12-20 (9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조직위원회	1995 (14회)	65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전국 시도별 문화관광축제 총괄표」, 재정리

서울은 75개의 축제중에 2개의 음악축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부산 68개중 1개, 대구 33개의 축제중 1개, 인천 27개의 축제중 1개, 광주 10개의 축제중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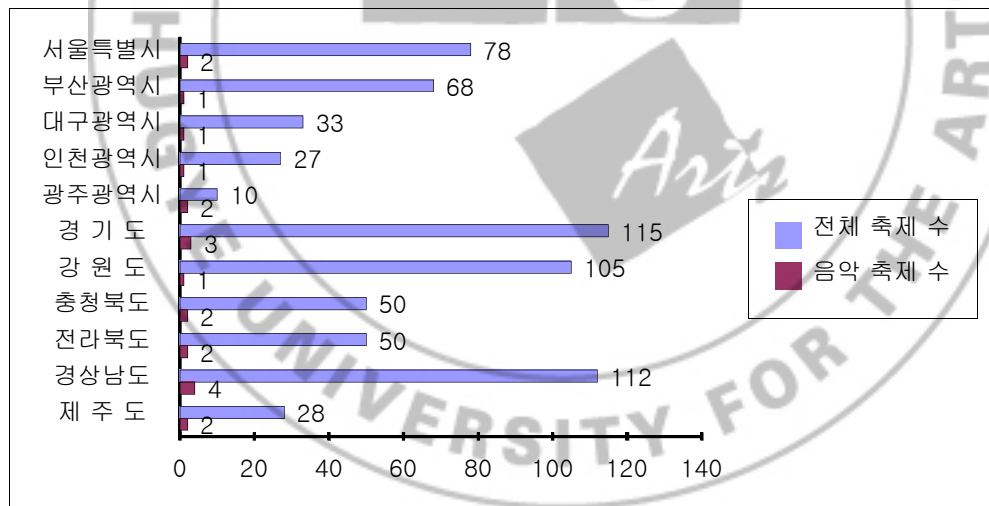
52) 매해 7월말 약 4일간 전국타악경연대회, 세계타악기 전시 및 체험, 세계타악워크샵, 프리지무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나 2009년 축제는 신종플로로 인해 취소됨.

개, 경기도 115개중 3개, 강원도 105개중 1개, 충청북도 50개중 2개, 전라북도는 50개중 2개, 경상남도 112개중 4개, 제주도 28개중 2개의 음악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가 전체 축제의 수가 가장 많으며 음악축제의 수도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과 <그림 3-1>과 같다.

<표 3-3> 지역별 축제와 음악축제의 수(2009년)

단위 : 개

지역	전체 축제 수	음악축제 수
서울특별시	78	2
부산광역시	68	1
대구광역시	33	1
인천광역시	27	1
광주광역시	10	2
<b>경기도</b>	<b>115</b>	<b>3</b>
강원도	105	1
충청북도	50	2
전라북도	50	2
<b>경상남도</b>	<b>112</b>	<b>4</b>
<b>제주도</b>	<b>28</b>	<b>2</b>
합계	67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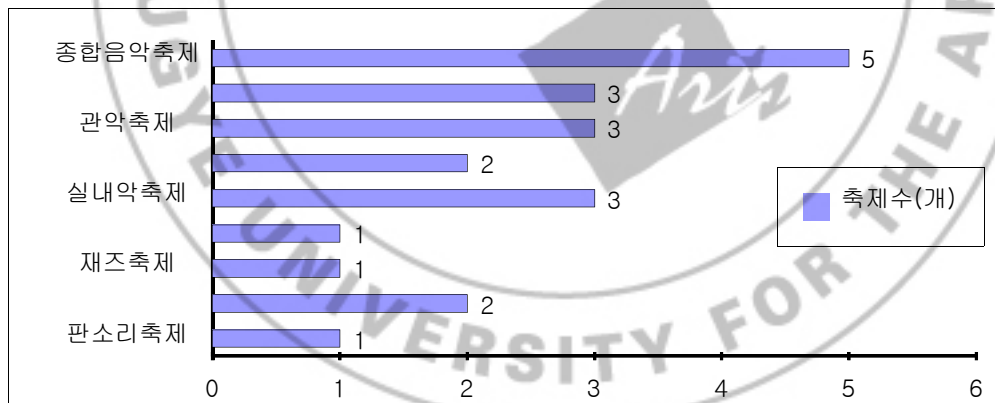


<그림 3-1> 지역별 축제와 음악축제의 수(2009년)

음악축제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종합음악축제가 5개, 오페라축제가 3개, 관악축제가 3개, 합창축제가 2개, 실내악축제가 3개, 타악기축제, 재즈축제, 창작음악축제가 각각 1개이고 민속국악축제로 국악제가 2개, 소리축제가 1개이다. 세부 내용은 <표 3-4>와 <그림 3-2>와 같다.

<표 3-4> 유형별 음악축제 현황(2009년)

구분	축제 유형	수	축제 명
서양 음악 축제	종합음악축제	5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제천국제영화음악제, 내장산국제음악제, 이상근국제음악제, 정율성국제음악제
	오페라축제	3	대구오페라축제, 인천세계오페라축제,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악축제	3	대한민국관악페스티벌, 진해군악페스티벌, 제주국제관악제
	합창축제	2	제주국제합창제, 부산국제합창제
	실내악축제	3	대관령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타악기축제	1	사천세계타악축제
	재즈축제	1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민속국악 축제	국악제	2	임방울 국악제, 영동난계국악제
	판소리축제	1	전주세계소리축제



<그림 3-2> 음악축제 종류별 개최 수(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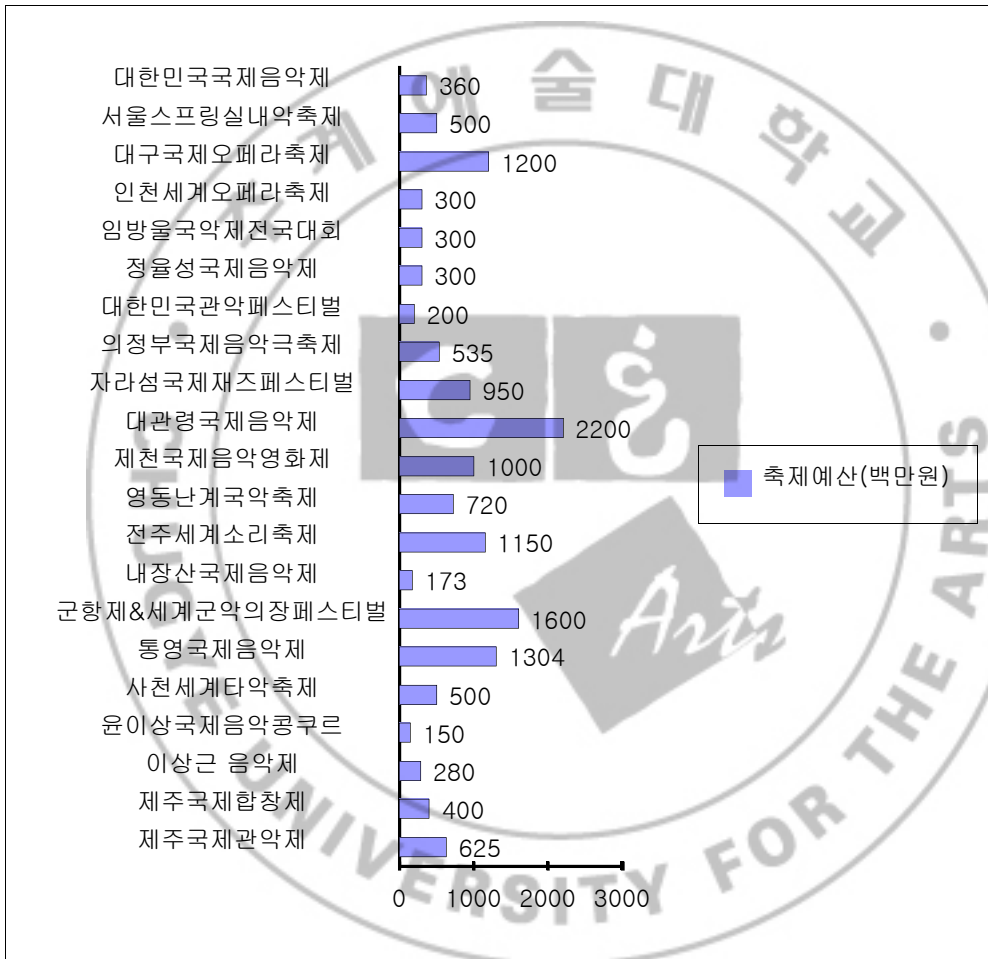
2009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음악축제 현황에서 예산부분을 보면, 강원도의 대관령국제음악제가 2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진해군항제·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이 16억원, 통영국제음악제가 13억원,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12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1억 5,000만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0억원,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9억 5,000만원, 영동난계국악축제가 7억 2,000만원, 제주국제관악제가 6억 2,500만원,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5억 3,500만원, 사천세계타악기축제가 5억원, 제주국제합창제가 4억원, 부산국제합창제가 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국제관악제는 2001년부터 제주 지역은행인 제주은행에서 매해 1억원 이상의 협찬금의 지원으로 지역 기업 메세나 운동을 대표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표 3-5>와 <그림 3-3>과 같다.

<표 3-5> 음악축제별 예산 현황(2009년)

단위 : 백만원

지역	축제 명	예산	예산 비율
서울특별시	대한민국국제음악제	360	전액 국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500	등록 안됨
부산광역시	부산국제합창제	400	시 300, 국 100
대구광역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1,200	국 600, 시비 600
인천광역시	인천세계오페라축제	300	시 300
광주광역시	임방울국악제전국대회	300	국 100, 시 200
	정율성국제음악제	300	국 100, 시 400
경기도	대한민국관악페스티벌	200	도 100, 시 100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535	국 55, 시 480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950	군 845, 도 35, 국 70
강원도	대관령국제음악제	2,200	등록 안됨
충청북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1,000	등록 안됨
	영동난계국악축제	720	국 150, 도 150, 군 420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	1,150	등록 안됨
	내장산국제음악제	173	국135, 도20, 시180
경상남도	군항제·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1,600	등록 안됨
	통영국제음악제	1,304	등록 안됨
	사천세계타악축제	500	등록 안됨
	이상근 국제음악제	280	국200, 도50, 시30
제주도	제주국제합창제	400	국200, 도200
	제주국제관악제	625	국100, 도425, 시100



<그림 3-3> 음악축제별 예산 현황도(2009년)

## 2. 일본의 음악축제

### 1) 역사적 배경

일본 클래식음악제의 역사는 오래지 않으며 1958년에 개막한 '제1회 오사카국제예술제(현 오사카국제페스티벌)'가 시작이라고 한다. 이 음악제의 특징은 최초개최년도에 레닌그라드 필하모니의 첫 일본방문, 2회에는 현대음악가인 스트라빈스키 초청 등 일류 외국예술가를 초청하는 것이 이 음악제의 특징이기도 했다. 본고에서 '음악축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이벤트명에 '음악제'나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것 둘째, 클래식 음악을 주체로 하는 것<sup>53)</sup> 셋째, 출연자가 프로, 또는 아마추어나 장래가 촉망되는 연주가에 의한 것. 넷째, 계속성이 있는 것이다.<sup>54)</sup>

1960년 전후에 시작된 일본의 음악축제는 '오사카국제페스티벌'과 같이 외국음악가를 초청해서 대규모로 행해지는 것과 현대음악제, 하이든음악제와 같이 소규모이면서 현대음악이나 하이든이라고 하는 특정한 테마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찾아내려고하는 것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한 신문사나 방송국 또는 음악가 등의 임의단체가 개최하는 음악제가 많았던 것도 이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로 들어가면서 지방의 시대, 문화의 시대, 행정의 문화화라고 하는 흐름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음악제의 개최에 적극적으로 된다. 주요목적은 지역활성화나 지역의 이미지창출 등의 '마을 만들기'의 기폭제로 작용

53) 클래식음악을 주체로, 재즈, 브라스밴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행하는 음악제 포함.

54) 일본의 음악축제에 관한 자료의 인용은 동경예술대학교 대학원 음악연구학과 박사과정인 이시미네 에리코(伊志嶺 繪里子)가 저술한 「일본의 음악제 활동상황과 매니지먼트에 관한 고찰-시민참가·협동의 바람직한 양상에 관하여-」를 바탕으로 작성 됨.



하고자 한 것이다. ‘츠크바음악제(1985년)’나 ‘도치기구라노마치음악제(1989년)’와 같이 1980년대부터 음악전용 홀 건설과 악기구입 등을 계기로 탄생한 음악제도 많았다. 그리고 이 무렵 많은 기업재단이 설립되어진 것은 음악제의 재정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90년대가 되면서 음악축제가 더욱 왕성해지지만, 1980년대 전후에는 시민교류와 자매도시 간의 교류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이 음악제의 기획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퍼시픽뮤직페스티벌(90년)’이나 ‘사이토 기념페스티벌(92년)’은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주최자와는 별개의 조직을 설립하고 자립적인 사업전개를 펼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참가이벤트, 마을콘서트, 아웃리치(조직적 봉사활동), 워크숍 등은 음악제 프로그램에 추가되어 지방자치단체, 음악가, 지역예술단체, 지역주민, 기업 등의 사이에 새로운 협력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한편 거품경제의 붕괴는 서서히 음악제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공연수는 1996년을 기준으로 감소하였고 음악제의 개최수는 1998년을 기준으로 감소경향으로 바뀌어 갔다.<sup>55)</sup>

## 2)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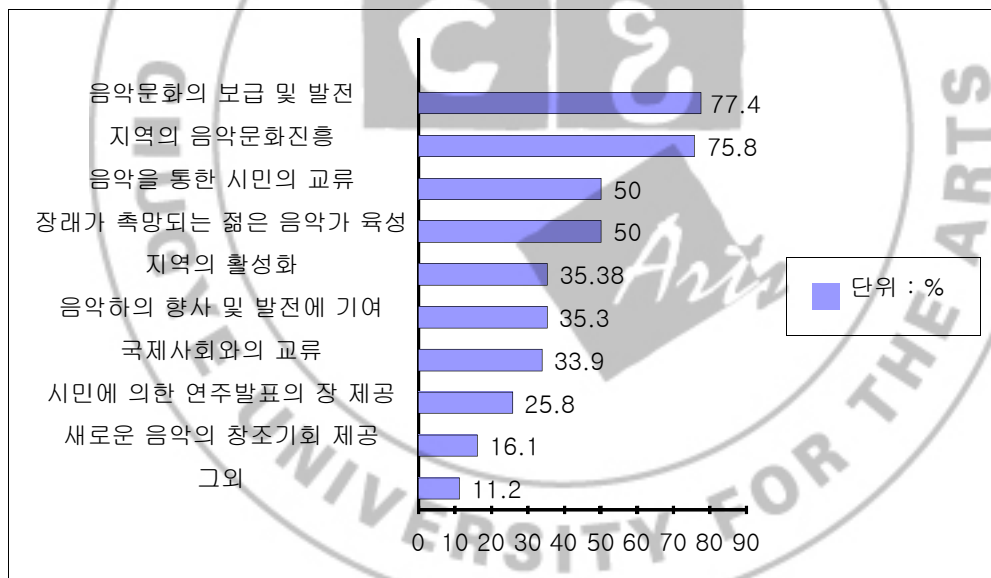
야마모토(2003)에 의하면, 일본전역에 개최되고 있는 음악제의 수는 140개라고 조사되었고, 음악축제의 대부분을 망라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이시미네 에리코(伊志嶺 繪里子)는 일본국 음악축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음악축제의 개최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쇼팽별책 일본음악콩쿨(전, 가이

55) 스키우라·하나사키, 2003, pp.2-6.

드콩쿨)·음악제·세미나의 자료(2004, pp.196~269)」에 기재되어 있는 음악축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축제를 포함해 131개 단체로 정하여 실시한 결과 설문지의 유효수는 62개(회수율 47.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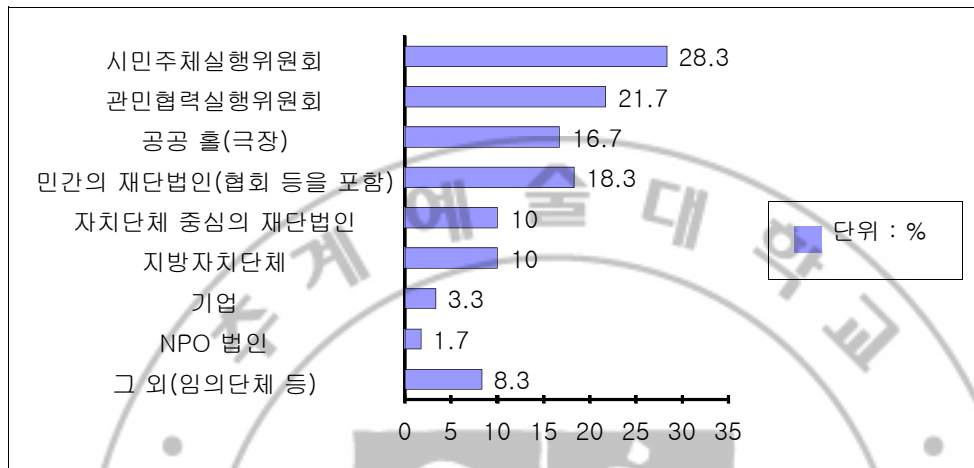
설문조사 분석결과, 음악제의 개최지는 대도시(50만 이상), 중핵도시(30~40만), 시읍면(30만 이하), 리조트지로 분류하면서 가장 많은 곳은 ‘시읍면’으로 42%, 대도시 28%였다. 리조트지에서의 음악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대도시와 중핵도시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가 많고, 시읍면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이후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최목적이나 이념에 대해서는 일본의 음악문화의 보급과 발전, 지역의 음악문화진흥이 75% 이상으로 가장 높고 시민의 교류와 장래가 촉망되는 음악가의 육성이 50%, 지역이 활성화, 음악가의 향상 및 발전에 기여,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25%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은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일본음악축제의 개최목적별 단체수 비율

음악제의 운영주체가 되는 단체는 시민주체 실행위원회, 관민협력실행위원회가 약 22-23%로 가장 많고 이어 공공홀이 16.7%, 민간의 재단법인이 약 13%, 자치단체 중심의 재단법인과 지방공공단체가 10%로 되어있다. 세부내용은 <그림 3-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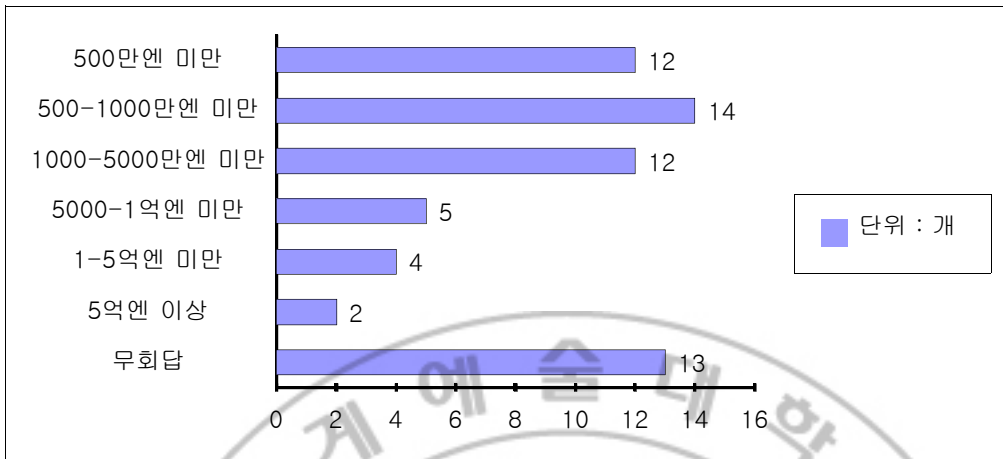


<그림 3-5> 일본음악축제의 운영주체별 단체수 비율

2000년 이후에 탄생한 음악제는 시민주체실행위원회 또는 자치단체형에서 관민협력실행위원회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음악제의 운영주체도 정부기관에서 민간단체로 바뀌어 가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전체의 약 37%의 음악제는 ‘공공홀’, ‘자치단체 중심의 재단법인’, 지방공공단체의 ‘자치단체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음악제의 규모를 총사업비로 보면, ‘500~1000만엔 미만’이 14개 단체로 가장 많고 ‘500만엔 미만’, ‘1000~5000만엔 미만’이 각각 12개 단체로 그 뒤를 잇는다. 또한 지방재정의 악화나 기업협찬 확보가 곤란한 것을 이유로 규모의 축소화가 결정되는 음악제도 많음을 볼 수 있다. 세부내용은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일본음악축제 예산별 단체 수

음악제의 형태에 있어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현저한 변화가 보인다. 현재 ‘콘서트+세미나형’이 24개 단체로 가장 많고, 이어 ‘콘서트형’이 22개 단체, 그리고 콘서트외에 시민 참가형 아웃리치(조직적 봉사활동)아 워크샵, 심포지엄, 마을이벤트를 여는 ‘콘서트+a형’이 16개 단체였다. 세부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일본음악축제의 형태별로 본 단체 수

형 태	단체수	비율(%)
콘서트형	22	32.8
콘서트+세미나형	24	35.8
콘서트+a형	16	23.9
세미나 중심형 <sup>56)</sup>	4	6.0
무 회답	1	1.5

56) 세미나 중심형」은 ‘세미나’나 ‘아카데미’ 라고 하는 명칭 아래, 기본적으로 세미나 등에

1995년을 경계로 음악제의 경향을 비교해보면 1995년 이후에 탄생한 음악제는 ‘콘서트+세미나형’의 비율이 2배로 증가하였고, 반면 ‘콘서트형’이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그리고, 콘서트+a형은 23%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4년 이전에는 아직 아웃리치나 워크샵이라고 하는 개념이 희박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 중 몇 개의 음악제는 1995년 이후에 그 형태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참가형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제의 기획입안 방법에 대해 언급하자면, 합의제가 37%로 가장 높고, 이어 어드바이저나 음악감독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주체가 결정하는 경우가 24%이다. 기획 입안 및 방법별로 본 단체수와 비율에 관한 세부내용은 <표 3-7>과 같다.

<표 3-7> 기획 입안 및 방법별로 본 단체수와 비율

기획 입안의 방법	단체수	비율(%)
합의제	23	37
어드바이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모체가 결정	15	24
음악감독 및 어드바이저에게 일임	12	19
음악감독 및 어드바이저 등과 운영모체가 협의	5	8
그 외	6	10
무회답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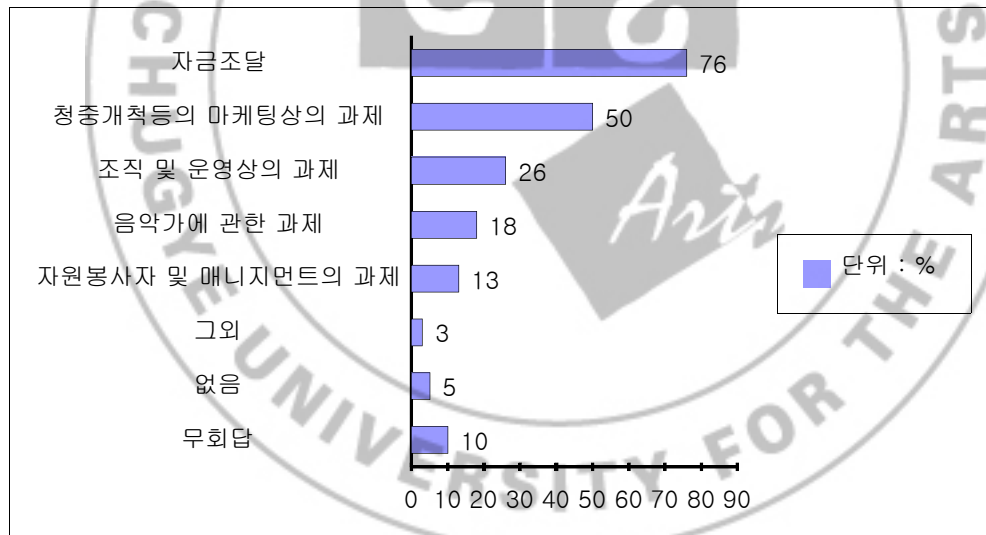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중심의 재단법인, 공공 홀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음악제에는, 음악감독, 어드바이저, 디렉터(연출감독) 등의 호칭으로 음악전문기획입안자가 존재했다. 이상의 조사결과로부터 현재 음악제의 활동상황을 요약하면, 최근 일본음악축제의 개최목적은 다양화하

중점을 두면서, 일반 공개 콘서트도 복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운영주체도 자치단체형에서 관민협력형으로 이행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제의 형태도 시민참가형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출연자에 대해서는 프로단독 보다는 프로와 아마추어나 프로와 아마추어, 음악가를 지향하는 젊은이가 상회하고 있으며, 시민참가가 왕성해짐에 따라, 음악제의 형태나 내용이 다양화되고있다.

### 3) 운영 과제

음악축제 운영상의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자금조달에 관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80%에 가까운 수치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청중개척 등의 마케팅에 관한 과제가 50%, 조직·운영상의 과제가 26%였다. 일본의 음악축제의 운영과제에 대한 응답내용은 <그림 3-7>과 같다.



<그림 3-7> 일본음악축제의 운영 과제



또한, 음악제의 개최 목적을 보면, 한 개의 음악제에 지역의 음악진흥, 음악을 통한 시민의 교류,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음악가 육성, 시민에게 연주 발표의 장을 제공, 지역의 활성화 등과 목적을 복수로 가지는 음악제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음악제에서는 운영상의 과제도, 조직의 과제나 음악가에 관한 과제, 자원봉사자·매니지먼트에 대한 과제 등 다양한 과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가장 많은 자금조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로, 근래에 있어서 행정이나 기업으로부터의 보조금 감액을 들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총예산에 대한 각 수입과목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해보면, 예산과 보조금<sup>57)</sup>의 상관관계가 0.827(n=34) 인데 대해, 예산과 티켓수입에서는 0.926(n=34) 라고 하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즉, 음악제의 축소화나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요인에는, 단순히 거품경제 붕괴 후의 보조금 감액 뿐만 아니라, 티켓수입의 주춤거림과도 관계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절반의 단체가 안고 있던 청중개척 등의 마케팅상의 과제(이하, 청중개척 등의 과제)를 가지는 또는 가지지 않는 음악제에 관해 비교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세부내용은 <표 3-8>과 같다.

<표 3-8> 음악축제 운영 주체별 과제

운영 주체의 분류	자금 부족	청중 개척
자치단체형	83%	100%
관민 협력형	73%	40%
시민 주체형	100%	67%

자치단체형, 관민협력형, 시민주체형의 세가지 운영주체별로 자금부족에

57) 공적인 보조금과 민간재단, 기업 등으로 부터의 보조금을 가리킴.

관한 과제와 청중개척 등의 과제를 가질 확률을 비교하면, 자치단체형 음악제는, 청중개척 등의 과제가 자금부족 과제보다도 상회하며, 전체 단체(100%)가 이 과제를 안고 있는데 반해, 관민협력형에서는, 자금부족 과제가 73%, 청중개척 과제는 40%로 낮았다. 이것은, 자치단체형보다 관민협력형으로 운영하는 편이, 청중은 개척되기 쉬운 경향이 있으며, 또한 청중개척 등의 과제는 자금부족과의 관련성이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지출구조와의 관계를 보면, 청중개척 등의 과제가 있는 음악제는, 출연료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이는 운영주체별로 본 총예산 대비 출연료의 비율평균을 봤을 때, 자치단체형에서는 평균 약 63.3%라고 하는 두드러지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세부내용은 <표 3-9>와 같다.

<표 3-9> 운영 주체별 예산대비 출연료 비율

운영 주체의 분류	출연료의 비율 평균
자치 단체형	63.3%
관민 협력형	42.2%
시민 주체형	35.0%

음악축제의 과제를 종합하면, 음악제의 다의화(多義化)와 시민참가가 왕성해 짐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음악제 규모의 축소화 원인은, 거품경제 붕괴나 자치단체 재정악화에 수반한 보조금의 감액뿐만이 아니라 청중이 개척되지 않고, 입장권수입이 주춤거리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청중개척 등의 과제는 자치단체형보다 관민협력형 운영을 실시하는 편이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 제2절 국내 음악축제의 운영실태

### 1. 통영국제음악제

#### 1) 축제 개요

현대음악의 거장인 통영 출신의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2000년 통영문화재단과 국제 윤이상협회가 개최한 통영현대음악제가 모체이다. 매해 현대음악을 포함한 클래식음악 브랜드를 가지고 수준 높은 음악회, 음악도를 위한 아카데미, 국제콩쿠르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타 음악축제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축제를 시즌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봄 시즌은 연주 위주인 페스티벌프로그램으로, 여름시즌은 음악학도들을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 가을시즌은 악기별 콩쿠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축제의 개요는 <표 3-10>과 같다.

<표 3-10> 통영국제음악제 개요

구분	내용
명칭	통영국제음악제
기간	페스티벌시즌(봄), 아카데미시즌(여름), 콩쿠르 시즌(가을)
장소	통영시민문화회관 외 주요 공연장
주최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위상	2002년 시작하여 콩쿠르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가입.
주요 행사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 윤이상 작품 공연, 현대음악 공연, TIMF 앙상블 공연, 아카데미, 국제음악콩쿠르

## 2) 발전 과정

2002년에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가 설립되어 통영현대음악제를 운영하면서 국제음악제의 규모로 확대되었고 2004년부터 연간 프로그램 특성별 시즌화 행사로 변경하여 매년 봄, 여름, 가을 등 3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2009년부터 페스티벌시즌과 아카데미시즌, 콩쿠르시즌으로 부르는데, 각각 통영국제음악제와 TIMF 아카데미,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로 나누어 행사가 열리고 주 연주장으로는 통영시민문화회관을 사용하고 있다. 형식과 장르에 따라 현대음악, 고전음악, 고전주의, 낭만주의, 교향악, 실내악, 오페라 및 음악극 등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조직의 운영을 보면,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이사회, 재단 주관 행사의 프로그램 구성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행사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예산 내역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통영국제음악제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합 계	국비	도비	시비	입장료수입	판매수익	후원금
1,600	300	100	800	300	10	90

※ 출처 : 박창호, 「음악축제분석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2006, 재정리

통영국제음악제는 출연하는 공연자와 공연단체의 수준이 세계최고인 점은 이 축제의 특징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은 매진 사례를 이루고 있다. 2008년 3월 21일부터 6일간 열린 통영국제음악제에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개막공연을 하였는데 좌석 점유율은 2002년 82%에서 올해 93%까지 상승했고, 전체 14개 공식공연 중 11개 공연이 매진되었

다. 또한 프린지페스티벌로 불리는 자유로운 길거리 공연에도 84개팀 1,000여명이 참가했다. 2009년 음악제에서는 총17개 유료공연 중 7개 공연 전석이 개막전 이미 매진되는 등 90%이상 객석점유율을 기록했다. 통영시에서는 국제음악제로 4만 7,500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여 33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였다.

### 3) 운영성과

통영국제음악제의 성공요인을 보면, 지역의 문화적 유산이자 세계적인 음악가인 윤이상 작품 세계를 소재로 하여 현대음악과 실내악을 접목한 수준 높은 음악회를 들 수 있다. 또한 예술가 창작활성화를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음악공연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지역 중학교와의 MOU 체결을 통해 미래의 음악애호가이자 관객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 또한 자원봉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 등 타 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준 높은 음악연주와 외국과의 음악적 소통을 위한 통영국제음악제 상주 연주단체인 'TIMF 앙상블'의 음악적 활동은 국내·외로 축제를 홍보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조직면에서 보면, 축제의 예술적 측면을 총괄하는 예술감독을 외국인으로 위촉하여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는 점과 아시아·태평양현대음악제(ACMF)처럼 세계적인 음악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등 우수한 국외 음악단체의 공연개최,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명망높은 유력인사와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후원회 조직과 활동 등은 통영국제음악제가 활성화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2. 대구국제오페라축제

### 1) 축제 개요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대구시의 문화산업 육성책의 하나로, 오페라 축제를 영국 에든버러페스티벌과 같은 국제적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구상되었다. 2003년 8월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과 함께 대구를 세계적인 오페라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이 축제는 오페라하우스의 개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공간은 지역을 근거로 하는 대기업(제일모직)이 대구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2003년 대구에 기증한 극장으로 이 극장의 가장 큰 행사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이다. 축제 개요는 <표 3-12>와 같다.

<표 3-12>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요

구분	내용
명칭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기간	매년 10월(10일간)
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수성아트피아, 대구문화예술회관 등
주최	대구광역시·대구오페라하우스
주관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
위상	2003년 시작하여 2010 공연전통예술행사 평가사업에서 최우수 등급(A) 선정, 전국 73개 사업 중 3위
주요 행사	약 25회의 오페라 공연, 오페라 갈라콘서트, 백스태이지 투어, 축제오페라대상, 찾아가는 오페라 산책 등

### 2) 발전 과정

2003년에 개최된 제1회 축제는 약 26일간에 걸쳐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중



심으로 개최되었고 주요 작품은 ‘사랑의 묘약’, ‘토스카’, ‘심청’, ‘나비부인’이 공연되었다. 대구시립오페라단, 영남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과 서울시오페라단이 참석해 총 12,600석 중 11,588명(좌석 점유율 92%)이라는 높은 관람실적을 이루어 냈다.

2004년 제2회 축제<sup>58)</sup>는 국제규모로 처음 열리는 전문음악축제로서 이탈리아의 로마오페라단, 러시아 무소르그스키오페라단,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오페라단, 대구시립오페라단 등의 최정상급 출연진 1,255명이 참가하여 오페라 13회 공연과 관련 부대 행사로 전 분야에 걸쳐 전년도에 비해 질적, 양적, 성장세를 보인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았다. 13회의 오페라 공연 중 7회가 매진됐으며, 매 공연마다 90%이상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하였다.

2005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에 개최된 제3회 축제는 오페라 ‘리콜레토’, ‘돈 조반니’, ‘카르멘’, ‘마르타’,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버섯피자’, ‘춘향전’을 공연하였다. 2005년 축제에서는 오페라 10회 공연 중 5회가 매진되었으며, 연인원 14,100여 명이 관람하여 평균 89%이상의 객석 점유율을 보였다. 이는 향후 국제오페라축제로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제4회 축제는 메인 오페라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 등으로 성공적인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개막작인 창작오페라 ‘불의 혼(The Spirit of Fire)’은 개막 첫날 1,400여석이 매진되었고, 사흘동안 객석점유율이 79%를 기록했다. 특히 국립오페라단이 공연한 푸치니(G. Puccini) 오페라 ‘투란도트’는 이틀 간 관람객 수가 2,700여명으로 객석점유율 98%를 기록하는 등 오페라축제의 성공 모델을 보여주었다. 또한 실례로 독일 칼스루헤국립극장과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공동 제작한 요한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박쥐’는 대

58) 제2회 축제는 2004년 10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집행되었고 이때부터 해외의 오페라팀을 초청하여 국제오페라축제를 본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구은행이 첫날 공연 좌석을 전석 구매한 것을 비롯해 교보생명, 동아백화점, 한국전력 등의 단체 구매로 76%에 해당하는 3,259석을 판매하였다. 또 루마니아 최고의 부쿠레슈티 국립오페라단이 공연하는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도 전체 좌석의 35%가 판매되었고 오페라축제 특별공연인 ‘조수미 해외 데뷔 20주년 기념음악회’는 조기 매진되기도하였다.

2007년 제5회 축제는 오페라와 발레, 인형극 등 모두 13건 24회의 작품을 선보였다. 총 관객 21,700여명, 객석점유율 88%(유료관객 81%)를 기록하였다.<sup>59)</sup>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예산 및 주요참가단체는 <표 3-13>과 같다.

<표 3-13>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예산 및 참가 현황

연도	예산	참가 단체수	주요참가 오페라단
2003	6억 원	4(1개국)	국립오페라단
2004	9억 원	6(3개국)	러시아 무소르그스키 극장 오페라단
2005	9억 원	5(3개국)	체코 프라하 국립극장 오페라단 등
2006	10억 원	9(3개국)	독일 칼스루헤 국립극장 오페라단 등
2007	14억 3천만 원	10 (7개국 예정)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극장 오페라단 등(예정)

※ 출처 : 2006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 자료 재정리.

### 3) 운영성과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사업으로 대구국제오

59) 이 중에서 국립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와 소 오페라 ‘봄봄’이 매진을 기록했는가 하면 대구시립오페라단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등은 작품성은 좋았지만 평균 유료관객 68%에 머물러 여전히 오페라 장르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을 대변했다.

페라축제는 국고, 복권기금, 시비 등의 공적기금과 기업 협찬으로 많은 예산을 확충한 것은 고무적이거나 방대한 예산에 비해 창작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대본작가나 작곡가, 그리고 연출가를 위한 워크숍이나 매칭사업 등 단순한 음악회 및 오페라 공연이외의 오페라 인프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2009년에 주요 평가내용을 보면 각 분야별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국내 유일의 오페라극장에서 개최하는 국제오페라축제는 외형만으로도 독창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오페라 극장의 시즌 프로그램 구성과 차별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 많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기업협찬과 개인의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하였고, 각 일정별 프로그램의 편차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예술성과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유사한 성격과 규모의 여타 행사와 비교하면 관객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공연·전통예술행사 평가사업<sup>60)</sup>을 보면,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조직과 진행, 홍보에서 안정적인 운영 모습을 보여주어 전반적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아시아 주요 공연장과의 파트너십 구축, 외국 오페라단과의 공동제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점, 주제(오페라, 문학을 만나다)와 맞춘 문학 강좌 시리즈와 관객 서비스 차원의 다양한 체험 행사의 개발, 예술성과 대중성이 검증된 익숙한 작품들과 익숙하지 않은 작품들을 모두 포함시켜 시민의 문화 예술 향수권을 신장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공연의 완성도가 높았으며 세계 수준의 해외 발레단 공연과 보조

60) 전국의 73개 사업 중 전체 3위를 차지하면서 전국 최우수(A) 등급에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평가받았다. 이 평가에서는 현장평가와 전문가 사를 통해 계획 및 비전, 집행 및 관리, 운영성과, 예술기여도 등 항목별로 진행됐다.

프로그램들, 아마추어 성악 콩쿠르를 개최해 일반인 오페라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부분, 지역 언론과 방송 및 KTX 등을 활용하는 홍보 프로그램 등이 호평을 받았다. 한편 공연 현장에서의 다양한 홍보와 관객 서비스 등이 독창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61)</sup>

### 3. 대관령국제음악제

#### 1) 축제 개요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연주회와 함께 젊은 음악도들이 캠프를 통해 다양한 음악회 공연과 마스터클래스 및 레슨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중심의 축제로, 해마다 7월~8월에 대관령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 로키산맥 고지의 이름 없는 폐광촌을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만든 아스펜음악제를 모델로 2004년에 시작되었다. 수준높은 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의 예술감독이며 뉴욕 줄리아드음악학교 교수인 강효를 예술감독으로, 강원도 대관령에서 약 20일간 개최되고 있다.

눈마을홀에서 개막콘서트로 시작해, 거장 음악가와의 대화, 저명 연주가 시리즈, 떠오르는 연주가 시리즈, 학생연주회, 세계적인 교수진들이 참여하는 마스터클래스, 바이올린·첼로·비올라 등 3개 분야에서 각 1명씩 뽑는 협연자 콩쿠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축제의 개요는 <표 3-14>와 같다.

61)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공연전통예술행사 평가사업, 2010,

<표 3-14>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요

구 분	내 용
명 칭	대관령국제음악제
기 간	매년 7월(약 20일간)
장 소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주 최	강원도
주 관	대관령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
위 상	2004년 시작하여 2010년 공연예술행사 평가에서 음악분야 최우수 공연예술행사 선정
주요 행사	저명 연주자 연주, 마스터클래스, 음악가와의 대화, 떠오르는 연주자 연주, 학생 음악회

## 2) 발전 과정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다른 음악축제와 비교되고 특성화된 부분은 음악학교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젊은 음악도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 개인 레슨, 실내악 레슨, 학생연주회, 협연자 콩쿠르 등으로 꾸며져,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등 총 10개국 120명의 음악도가 참가한다. 또한 강원도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7년에는 해외 연주62)가 개최되어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경제효과는 2008년 140억원의 경제과급효과와 20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효과별로는 내방객의 직접 지출비용이 49억원, 관광으로 생긴 추가비용 91억원이었고 방문객 그룹(3.7명)당 소비 지출액은 45만 7,000원에 달했다. 효과별로는 강원도의 이미지가 좋아졌다 89%, 강원도의 문화적인 이미지 상승 77%로 주를 이뤘고, 연주회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85%가 만족, 93%가 재방문을 희망했다. 하지만 개

62) 대관령국제음악제는 2007년 프랑스와 런던 등에서 유럽연주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에는 미국 카네기홀, 중국 베이징 등에서 '평창의 사계'를 연주하였다.

선사향으로는 공연장 시설 개선과 적극적인 음악제 홍보, 음악제의 규모와 기간연장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규모 음악축제의 예산규모를 보면, 대관령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예산규모는 약 14억~22억 원에 이른다. 특히 대관령국제음악제는 타 지역의 음악축제와 비교해서 책정된 예산이 높아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음악축제의 예산규모는 아래의 <표 3-15>와 같다.

<표 3-15> 국내 주요 음악축제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대관령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최초 개최 예산	2004년 1회 - 총예산 1,300 - 도비 1,000 - 행사수익 300	2000년 1회 - 총예산 50  2003년 4회 - 총예산 1,250 - 국비 200 - 도비 100, 시비 700 - 행사수익 150	2001년 1회 - 총예산 45,000  2005년 5회 - 총예산 1,950 - 국비 600 - 도비 1,460 - 행사수익 430
	최초 개최 예산	2008년 제5회 - 총예산 1,700 - 국비 300 - 도비 1,400	2008년 9회 - 총예산 1,150 - 도비 100 - 시비 1,100 - 협찬 200 - 행사수익 150

※ 출처 : 2009 제주국제관악제 발전 포럼, 재정리

### 3) 운영성과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배경으로 매년 새로운 테마를 설정한 가운데 연주회, 음악학교 운영,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 예술단체 지원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통 클래식 음악을 중심에 세우고 세계 정상급 음



악가들을 초청하여 국제적인 음악인을 음악감독으로 초빙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 방침이 성공요인중의 하나이다.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07년 공연예술행사 평가에서 최우수 행사로 선정되었다. 주요 평가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예술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고, 특히 동시대의 음악인들이 위촉되고 연주되는 사례는 매우 참신하고 고무적인 기획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내의 다른 축제가 예술감독제를 잘 살리지 못하는 반면 이 축제는 예술감독제를 통해 행사의 완성도가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반면, 음악학교 프로그램은 학생의 참가비가 높게 책정되어 향후 참가자에 대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운영면에서는 전문공연장이 아닌 리조트에서 진행되므로 진행스태프나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가 미흡하였고 행사지역 주변의 공연장에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축제 예산을 보면, 국고와 지방비의 의존율이 높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연주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수입의 극대화과 기업 협찬의 증대가 필요하고 운영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예산의 절감을 제안하였다.

2009년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 축제가 외부인력만으로 진행되는 축제라서 강원도의 독특한 문화행사가 없고 대관령이 이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홍보측면을 보면, 국제음악제라고 보기에 해외 홍보계획이 미흡하고 방송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반면 행사전반을 소개하는 매뉴얼 제작과 통역서비스는 잘 이루어졌으며 공연장 공간과 행사장 배치는 적절하고 공연장 주변의 편의시설도 우수하였으며 행사진행 인력의 관객 서비스는 친절하고 열정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 제2절 외국 음악축제 운영실태

### 1. 베로나오페라축제

#### 1) 축제 개요

이탈리아는 유럽 남부에 위치하여 세계 오페라와 성악음악의 발상지이자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다. 베로나는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베네토 주에 있는 인구 26만명의 도시로서 베로나오페라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축제이다. 축제 기간인 두 달간 약 8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방문하고 있으며, 베로나 지역은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가 있어 이와 관련된 관광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특히 축제장소인 아레나 원형 경기장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모든 공연은 밤 9시에 시작하며 공연 시작전에 관객들에게 촛불을 들게 하는 의식으로 유명하다.

축제의 개요는 <표 3-16>과 같다.

<표 3-16> 베로나오페라축제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명 칭	베로나오페라축제(Arena di Verona Opera Festival)
기 간	매년 7월(약 45일간)
장 소	베로나 아레나 극장
주 최	베로나오페라축제 위원회
위 상	1913년 시작하여 매년 50만명 이상의 공연 관람객
주요 프로그램	베르디와 푸치니 작품 중심의 오페라 공연

## 2) 발전 과정

베로나오페라축제는 원형 야외극장 아레나에서 고대 극장환경을 그대로 활용한 축제로서 1913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90여 회에 달한다. 이 축제는 오페라 가수와 극장 기획자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였다. 1913년 테너 오페라 가수 지오바니 제나텔로(Giovanni Zenatello)와 극장 기획자였던 오토네 로바토(Ottone Rovato)는 베르디 탄생을 기념하는 오페라 축제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베로나에 있는 원형극장 아레나에서 고대적 극장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야외 오페라축제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공연된 베르디의 아이다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면서 베로나오페라축제가 시작되었다.

베로나오페라축제는 매해 7월부터 9월 초까지 약 50여 일 동안 5, 6편의 오페라가 거의 매일 교대로 공연된다. 주요작품은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 오페라 작곡가인 베르디와 푸치니의 오페라를 중심으로 짜여져, ‘라 트라비아타’, ‘마농 레스코’ 등의 공연이 매일 있다. 특히 오페라 공연장인 아레나 원형경기장은 아직까지 원형 그대로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으며 최대 수용인원은 약 25,000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1인당 평균 입장료를 10만원으로 추정하고 입장 인원이 15,000명 정도라고 가정하면 하루 저녁 입장수익금만 해도 15억원이다. 이런 관광객의 효과로 베로나가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해 약 3,750억원이라고한다. 2002년 베로나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해 아레나 극장을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는 6억 유로(한화 7,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베로나시 문화재국장인 티티아나 사레스는 관광객들이 오페라만 관람하고 하루 만에 떠나지 않게 하기위해서 줄리엣 집을 방문한다거나 지역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인 고고학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 투어프로그램을 계획한다고 한다.

### 3) 운영성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게 된 축제는 대체로 처음부터 화려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하게 출발하여, 점차 축제 프로그램과 규모가 확대되면서 축제의 정체성과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이나 도시의 장소성이 결합되었고, 축제와 그 개최장소가 결합된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통합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 베로나오페라축제는 원형 그대로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고대 원형극장의 묘미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 극장 1/4이 무대로 할애되고 나머지 3/4과 아레나 경기장 평면 일부가 관중석으로 할애되어 약 2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고, 아레나 공연효과를 충분히 내기 위해 인공 음향과 관객석의 조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로마시대 검투장으로 이용됐던 아레나원형경기장은 현재 시에서 유적과 오페라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페라극장으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 연극제나 록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과 뮤지컬 등이 열리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매년 5월~9월 중 각종 콘서트 개최를 위해 개방되는 아레나는 2009년에 72회에 걸쳐 공연이 진행됐고, 이 중 오페라 상영만 49회에 달한다. 오페라 이외에 음악과 관련된 공연에만 3만유로(한화 약 4,65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시의 재정운영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63)</sup>

이탈리아 베로나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가 된 곳이고, 1세기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시대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전 세계 오페라 팬들이 한번쯤 꼭 가보고 싶어 하는 오페라축제가 열린다는 점은 베로나의 장점이다. 추미경은 세계의 성공한 축제 중에 장소

63) 진민수, 강원도민일보, 2010년 11월 10일.

마케팅(Place Marketing)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베로나오페라축제와 에든버러군악대축제의 예를 들었다. 장소마케팅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역문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유력한 지역 발전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소마케팅은 우리나라에서는 막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이지만, 미국의 각 도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의 많은 도시들에서 1980년대 전후 이미 채택하기 시작한 도시 활성화 전략이다. 이러한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소재나 장점들은 베로나오페라축제가 성공하게 된 요소들이다.

이 축제의 활성화요인은 <표 3-17>과 같다.

<표 3-17> 베로나오페라축제 활성화요인 요약

활성화 요인	세부내용
기획 및 프로그램	- 초기 : 베르디와 푸치니 오페라 -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대중적 오페라 공연)
다양한 재원 확보 프로그램	- 입장권 수입으로 자체 재원 확보(오페라 매표 수입 약 500억리라) - 총 예산 1000억 리라(500억~550억원) - 베로나 시당국 230억~240억리라, 베로나 인근도시 20억리라, 4개 민간 후원단체에서 3년에 한 번꼴로 90억리라, 은행 약 450억~500억 리라 정도 용자로 지원.
지역 자원활용	- 지역특색(역사적 유산인 야외 경기장, 오페라 전통)과 관광산업(이태리의 활성화된 관광)을 접목시킴.
조직의 효율화	- 민간 후원 단체 중심 - 전문가 중심의 축제위원회(관은 지원만 하고 계약기간에 감독에 일임) - 지역민의 철저한 축제 참여로 인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방지
사회 기여도	- 매해 약 50일간 80만 명의 관람객으로 약 3700 억원 수입 - 2002년 경제효과는 약 7천억원(베로나 대학 연구 보고서) - 야외 경기장 수용인원 약 2만명(평균입장료 10만원)

※ 출처 : 본문 요약 재정리.

## 2. 잘츠부르크음악제

### 1) 축제 개요

잘츠부르크는 유럽 중부 오스트리아의 중서부 독일 국경에 위치한 인구 15만 명의 도시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 도시로 유명하고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W. A. Mozart)의 고향이자 지휘자 카라얀(Herbert von Karajan)의 출생지이다. 이러한 지역의 고유한 자산만으로도 이 도시는 세계 최고의 음악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모차르트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1920년 시작된 이 페스티벌의 공연장은 메인 콘서트 홀로 대극장과 소극장, 펠젠라이트슐레 등 3개의 극장이 하나로 된 복합 문화공간<sup>64)</sup>으로 이루어졌고 매해 7월 말부터 시작하여 약 40일간 축제가 개최된다. 축제개요는 <표 3-18>과 같다.

<표 3-18> 잘츠부르크음악제 개요

구분	세부 내용
명칭	잘츠부르크음악제(Salzburger Festspiel)
기간	매년 7월 말부터(약 40일간)
장소	잘츠부르크 대축제 극장, 모차르트 음악원, 주립극장 등
주최	잘츠부르크 축제 재단
위상	1920년 시작하여 매해 200여회의 공연에 30만명 관람객으로 경제과급효과는 약 2,000억원
주요 프로그램	초기에는 모차르트 작품이었으나 현재는 오페라,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확대

64) 1960년에 완성된 대극장은 2,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320여 명을 수용하는 소극장은 오페라, 콘서트, 연극 등을 공연한다.



2) 발전 과정

축제 기간에는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데, 2001년의 경우 42일(7/21~8/31)동안 20만 9,315명이 공연을 관람하였고 좌석의 93%가 채워졌으며 이 중 외국인 방문객은 68%나 되었다. 취재를 위해 33개 국가에서 546명의 기자들이 프레스 센터에 등록하였고, 15개 채널의 TV와 몇 개의 영화사들 그리고 30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취재하였다. 2002년도 개최된 페스티벌의 작품은 오페라 9편, 드라마 11편, 콘서트 12개 등으로 구성되어 총 166회의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23만 명이 방문하였다. 한해 평균 20여만명의 관람객이 약 600억원을 소비하고 좌석의 93%가 채워진다. 이 중 약 70%가 외국인이고 공연 티켓은 보통 6개월 전에 예매가 마감된다. 공식 조직은 잘츠부르크축제재단으로 상근직원은 180명(행사 기간 중 임시직 인원은 총 3천명)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7개의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고 메인 축제는 매해 7월말에서 8월말까지 한 달간이다. 축제예산은 499억 원으로 자체수입이 74%이고 보조금이 26%이다. 그 세부내용은 <표 3-19>와 같다.

<표 3-19> 잘츠부르크음악제 예산 구분

구분	금액 (백만 유로)	구성비 (%)	내 용
예산 총액	43 (499억 원)	100	자체수입 + 보조금
자체 수입	31.8 (369억 원)	74	티켓 판매 47% 후원금(개인기부, 스폰서, 친구들, 후원자) 14% 기타수입(대관료, TV 및 라디오 중계권 등) 13%
보조금	13.2 (130억 원)	26	보조금 총액 중 - 40% 연방정부, 20% 잘츠부르크 주정부 - 20% 잘츠부르크 시정부, 20%는 관광진흥기금

※ 출처 : 김춘식·남치호, 『세계축제여행(김영사)』, 2002, 재정리.

후원금의 구성은 기업 스폰서와 개인 후원자 및 ‘잘츠부르크페스티벌의 친구들’로 되어 있다. 이들의 후원금은 약 5백만유로(전체 예산의 8.4%)에 달하는 금액으로 잘츠부르크페스티벌을 실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스폰서로는 네슬레와 지멘스, 아우디, 유니크바가 대표적이다. 또한 개인 후원자로는 골든클럽과 실버클럽의 회원이 있다. 골든클럽은 5만유로의 연회비를 내고 실버클럽은 1만유로(한화 약 1,600만원)의 연회비를 부담한다. 이 동호회는 약 2,000명의 후원 회원과 22,00여명의 정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원에게는 축제기간 동안에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리허설과 워크숍에 초대받으며 전시회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 동호회에는 현재 약 450명의 청소년 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회비는 25유로(약 3만 8천원)이다. 2004년의 경우 총 예산은 4,600백만 유로였으며 총 188 회의 공연에 관객은 23만 8,463명으로, 티켓 판매액은 2,388만 3,000유로였다. 총 후원금은 497만 1,000유로였다. 이 중 57만 5,000유로는 기업협찬이었고, 나머지는 개인 후원과 ‘잘츠부르크페스티벌의 친구들’의 지원이었다. 그 외에 TV와 라디오 중계권료와 연주홀 대관료, 협동업체의 지원이 478만 4,000유로였고 정부의 지원금은 1299만 6,000유로로 총 수입의 29.5%를 차지했다.

### 3) 운영성과

2008년 잘츠부르크음악제는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37일간 열렸다, 축제대극장과 모차르트하우스 등 시내 13개 공연시설에서 오페라 43회, 연극 68회, 콘서트 78회 등 모두 189회의 공연이나 연주가 있는 가운데 연인원 25만 3,850명의 관객을 끌어들이었다. 티켓 판매액은 2,520만 유로에 달했다. 이같은 티켓 판매액은 2006년 모차르트의 해에 이어 축제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였다.<sup>65)</sup>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통해 시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2억 2,500만 유로(2006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축제의 성공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이 낳은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격을 지닌 음악축제를 창출해내고 있다. 페스티벌 감독들은 고전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현대적인 표현방식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그럼으로써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다.

둘째, 연방 정부와 지방 행정부가 행정 및 재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연방 법이 인가한 재단의 확고한 조직체계에 의해 운영되고 중앙과 지방 행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셋째, 전문가들이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집행과 예술 및 경영 감독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세계 음악 애호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한다. 이미 공연 2년 전에 공연될 전체 작품을 선택하고 당해의 공연은 연초에 정확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감독, 지휘자, 배우, 성악가들의 한 자리에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관객에게 강한 관람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다섯째, 1928년에 개발한 로고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는 축제 감독이 바뀌면서 로고도 바뀌는 페스티벌하고는 달리 축제가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여섯째, 후원자들과 음악 애호가들을 철저히 관리한다. 페스티벌에 대한 안내 책자를 보내주며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입장권 구입시 우선권을 주는 등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곱째, 충분한 홍보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할 뿐 아

---

65) 강일중, 「공연예술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연극과 인간, 2009, p.81

나라 홍보책자 축제저널을 연간 두 번 발행하여 페스티벌에 대한 사항과 다른 음악회와 공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덟째, 공연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세계로 중계됨으로써 공연의 상품화와 홍보를 동시에 꾀한다. 즉 중계권료로 수입을 올리면서 광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활용한다.

아홉째,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과 연주이지만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할인티켓을 발행한다.

열째, 도시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최대로 활용한다. 아름다운 성과 정원에서 연주회와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럼으로써 고객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축제의 활성화요인은 <표 3-20>과 같다.

<표 3-20> 잘츠부르크음악제 활성화 요인 요약

활성화 요인	세부내용
기획 및 프로그램	- 초기 : 모차르트 작품 공연 - 다양한 프로그램(오페라, 드라마, 콘서트 총 160여회) 공연
다양한 재원확보 프로그램	- 다양한 재원확보 프로그램(입장권 및 후원회 조직을 통한 자체수입) - 자체수입 74%, 보조금 26% - 자체수입 : 입장권 판매 47%, 후원금 14%, 방송중계권등 13% - 보조금 : 연방정부 40%, 잘츠부르크 주정부 20%, 잘츠부르크 시정부 20%, 관광진흥기금 20%
지역 자원활용	- 지역특색(역사인물)을 현대 감각의 공연작품으로 승화하여 관광산업과 접목시킴.
조직의 효율화	- 잘츠부르크축제재단 - 상근화 된 조직과 많은 수의 참여 인원(축제 기간 중 인턴 확대) -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육성지원 의지
사회 기여도	- 2001년 : 42일간 21만여 명(외국인 68%), 언론 33개국 546명, 15개 채널의 TV와 영화사, 30개 라디오 방송국이 취재, 매해 약 6백억원 소비) - 2007년 효과 : 한화 36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3,800여명

※ 출처 : 본문 요약 재작성.

### 3. 에든버러군악대축제

#### 1) 축제 개요

에든버러는 옛 스코틀랜드 왕국의 수도로 스코틀랜드 행정·문화의 중심지이며 인구는 약 44만 9,000명이다. 축제로 연간 1,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유럽의 꽃으로 불리는 도시이다. 에든버러에는 9종의 주요한 여름 축제들이 있는데 그 중 최대 규모의 축제는 프린지축제이고, 밀리터리 타투(군악대축제), 재즈 페스티벌, 영화제, 도서 축제와 다양한 전시회들도 있다. 축제의 개요는 <표 3-21>과 같다.

<표 3-21> 에든버러군악대축제 개요

구분	내용
명칭	에든버러군악대축제(The Edinburgh Military Tattoo)
기간	매년 8월(약 20일간)
장소	에든버러 성
주최	에든버러 시
위상	1950년에 시작하였고 매해 20여회의 공연에 약 20만명의 관람객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간 1,320억원
주요 프로그램	에든버러성을 이용한 세계 각국의 군악대 연주 및 공연, 각국의 전통 군악행렬, 스코틀랜드 전통 백파이프 밴드 공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군악대축제의 정식명칭은 에든버러군악대축제(The Edinburgh Military Tattoo)이다. 에든버러군악대축제는 에든버러성에서 열리는데 1950년 에든버러국제축제때 스코틀랜드군악대가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 축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것은 스코틀랜드 특유의 복장인 킬트(kilt) 복장에 독특한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스코틀랜드 보병부대

의 행진이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군악대, 경찰악대, 민간공연단체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펼친다.

## 2) 발전 과정

종합예술적 성격을 띤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영국의 약 650여 가지의 축제 중 영국의 문화를 대표하며, 규모와 수준에 있어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연극, 무용, 오페라, 오케스트라, 미술품 전시, 등불행렬, 거리공연 등 매일 5백 종류가 넘는 공연이 개최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축제 중에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주요 축제는 9종의 축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04년 스코틀랜드에서는 군악대축제, 프린지축제, 영화축제, 과학축제, 어린이축제, 책 축제, 재즈축제 등 12종에 가까운 축제를 개최하였고, 특히 8개의 축제가 몰려있는 8월에는 축제왕국으로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스코틀랜드 관광청의 통계에 의하면 8월의 주요축제가 2004년에 유발한 수익은 총 1억 3,500만 파운드라고 한다. 8월에 개최되는 군악대축제와 프린지축제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전 세계의 수 많은 공연단들이 매해 8월이면 에든버러시로 모여들어 공연단에 의한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에든버러 군악대축제는 1950년에 에든버러축제 때 처음으로 스코틀랜드 군악대가 참여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이 축제는 에든버러페스티벌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지역의 상징인 에든버러 성을 주요 공연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곳은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장소이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도 잘 살린 관광지이다. 이 축제는 평균 23일의 축제기간 중에 매년 2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있다. 이들의 70%는 스코틀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전체 입장객의 35%는 해외에서 온 방문객이며, 또한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의 시청자가 TV로 이 축제를 본다고 한다. 군악대 축제가 미치는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공식조사에 의하면 군악대 축제가 스코틀랜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연간 7,200만 파운드(1,320억원)에 달하고 있다.<sup>66)</sup>

### 3) 운영성과

에든버러군악대축제의 성공사례와 운영프로그램 등은 국내·외의 음악축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주와 같은 세계의 관광지라는 공통점이 있고, 관악제라는 공통된 내용의 밴드축제가 있기 때문이다. 에든버러군악대축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만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명 관광지로의 부상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축제장소 선정 시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축제의 성격이 잘 조화를 이루는 장소를 선정하였다. 에든버러군악대축제의 경우 독특한 스코틀랜드 군악대의 전통과, 고성인 에든버러성채, 이 두 가지의 독특한 문화적, 공간적 자원을 절묘하게 조화시켰기 때문에 신비스럽고 매력적이다.

셋째, 최신기법의 조명이나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축제공간이나 공연무대를 환상적으로 연출한다.<sup>67)</sup>

에든버러군악대축제는 고유하고 독특한 스코틀랜드군악대의 전통과, 고성인 에든버러성채, 이 두 가지의 독특한 문화적이고 공간적 자원을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여기에서 전문적인 연출가의 다양한 연기, 야간의 환상적인 조명 효과, 수준 높은 음향 등을 결합시켜 탄생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축제의 활성화요인은 <표 3-22>와 같다.

66) 김춘식·남치호, 『세계축제경영』, 김영사, 2002, p.104.

67) 김춘식·남치호, 상계서, 2002, pp.109-112. 재정리.

<표 3-22> 에든버러군악대축제 활성화 요인

활성화 요인	세부 내용
기획 및 프로그램	최신 기법의 조명이나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축제공간이나 공연무대를 환상적으로 연출.
다양한 재원 확보	주요 공연인 에딘버러 성에서의 공연이 20여일간 매일 공연, 관람석은 약 9천석이고 입장료가 5만원에서 1만 5천원까지 다양함.
지역 자원 활용	축제장소 선정 시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축제의 성격이 잘 조화를 이루는 장소를 선정함.
조직의 효율화	상설 집행부 인원은 많지 않으나 축제기간 다양한 인력활용 프로그램을 활용함.
사회 기여도	연간 1,200만명의 관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명 관광지로의 부상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

※ 출처 : 본문 요약 재작성.

#### 4.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

##### 1) 축제 개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연간 40회 이상의 페스티벌과 국제적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으며 그중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은 매년 여름 6월 마지막 목요일에 시작하여 11일간 개최된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규모의 재즈페스티벌로서 1980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첫해에 12,000명이 방문하였지만, 1985년에는 30만명, 1989년에는 100만명, 2001년에는 170만명이 방문하였고 이중 25만명은 외부관광객 일만큼 단 시간에 급성장하였다. 2007년에는 약 30여개국 3,000여명이 참가하였고 Indoor콘서트 189회, 무료 Outdoor 콘서트 372회, 워크숍 등의 부대행사는 97회, 단체 및 예술가 쇼케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축제의 개요는 <표 3-23>과 같다.

<표 3-23>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명 칭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The Montreal International Jazz Festival)
기 간	매년 6월 마지막 목요일부터 11일간
장 소	장 망스 거리, 생카트린 거리
주 최	비영리단체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
위 상	1980년에 시작하여, 매해 500여회의 공연에 약 200만명 관람객
주 요 행사	재즈 공연, 도시의 퍼레이드, 야외 및 실내 공연, 워크숍, 예술가 및 단체의 쇼 케이스

축제의 주관은 비영리단체인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이 맡고 있으며 최고기구인 행정위원회로서 행정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 조직으로 총괄국, 언론홍보국, 마케팅 및 협찬, 제작국, 행사장 관리, 영업, 행정, 내부관리 등 8개 부서로 나눈다. 특이한 부분은 언론홍보국으로 책임자 4명을 제외하고도 40명의 인원이 있다. 그래픽(6명), 인터넷(4명), 페스티벌 로고 전문가(1명) 등이 배치되어 있다. 조직구성은 <표 3-24>와 같다.

<표 3-24>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 조직 및 인원

구 분	인원수	주요 업무 및 인원(수)
총괄국	27	프로그램 기획(8), 정부관계 및 관광개발(5), 운영(6), 표 및 공간(8)
언론 홍보국	40	언론(14), 홍보(6), 그래픽(6), 인터넷(4), 영업(5), 로고(1), 사진(4)
마케팅	11	마케팅 및 협찬(11)
제작국	14	계약(4), 교통 및 숙박(4), 기술지원(6)
행사장 관리	18	설비(10), 물자지원 및 안전관리(8)
영업	20	영업(20)
행정	14	일반행정(6), 회계(8)
내부관리	24	안내(9), 인사(7), 구매(3), 설비(5)

## 2) 발전 과정

현재는 몬트리올뿐 아니라 세계의 관심을 받는 축제로 자리잡았지만, 1980년 시작할 때만 해도 주정부의 무관심 속에 후원하는 곳도 없이 힘겹게 축제를 열어야 했다. 첫 축제 때 방문객은 1만 2천명 정도였으나 빠른 성장세를 보여 5회째에는 이미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몰려드는 축제가 되었다.

1987년부터 몬트리올 주정부의 후원을 받아 안정적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연의 70%가 무료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관광청과 같은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뛰어난 마케팅 전략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하는 점을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다. 스폰서로는 GM canada, 캐나다 국립은행 등 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공식 공급업자로 3개의 기업, 미디어 파트너로는 14개의 방송 및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다.

2001년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은 11일 동안 500회 이상의 콘서트가 열렸다.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약 2,500명의 음악가가 연주하였고 낮 12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릴레이 공연이 대부분이다. 이중 70%에 해당하는 350회 이상의 콘서트는 15곳의 야외무대에서 이루어지고 실내공연은 10곳의 무대에서 150회 이상 공연되었다. 공연장르는 재즈 뿐 아니라 소울, 블루스, 펑크, 힙합, 일렉트로,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음악 공연이 펼쳐지며 행사 기간 동안 시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퍼레이드 및 거리 공연도 특성화된 부분이다.

2001년 개최된 축제에는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약 10만 달러의 이익이 남았다고 한다.<sup>68)</sup> 또한, 2006년 행사에 찾아 든 방문객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68) 김춘식·남치호, 상계서, p.245.

축제의 효과를 보면, 축제를 통해 몬트리올은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관광지로서 매력은 더욱 증가되어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있다. 입장료를 보면 대부분 실내공연의 입장료는 15.5캐나다달러(한화 13,000원)에서부터 92.5캐나다달러(78,000원)까지 다양하고 대체적으로 20,000원에서 50,000원 수준이다. 이와는 반면 야외 공연은 무료이고 공식 판매대에서 파는 음료수나 식사 등의 수입 그리고 ‘축제의 친구들’ 카드 판매 수익금은 이벤트를 조직하고 야외 무료공연을 위한 비용에 투입된다.

### 3) 운영성과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은 10여일 동안 500회 이상의 콘서트가 열리고,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2,500명의 음악가와 매해 관람객수가 약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음악축제이다. 이 축제의 성공 요인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 주제의 선정시 보편성과 독창성을 동시 고려하였다. 재즈라는 보편성 있는 주제에 독창적인 기획력과 마케팅을 접목하였다.

둘째, 전문인력을 활용한 인터넷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우수하다. 홍보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넷 티켓예약이 40%에 달한다.

셋째, 축제장의 다변화 및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다. 기존 시설물인 가로등, 분수, 건물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장식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

넷째, 다양한 입장료 수입방법으로, 야외공연의 관람료는 무료이나, ‘축제의 친구들’이란 카드를 발매하고 경품을 지급한다.

다섯째, 휴가와 방학 및 주말과 공휴일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 활성화요인은 <표 3-25>와 같다.

<표 3-25> 몬트리올국제재즈페스티벌 활성화 요인

활성화 요인	주요 내용
기획 및 프로그램	축제 주제의 선정시 보편성과 독창성을 동시 고려.
재원 확보	야외공연의 관람료는 무료이나, '축제의 친구들'이란 카드 발매로 경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입장료 수입 프로그램을 활용.
지역자원 활용	축제장의 다변화 및 시가지 기존 시설물 활용.
조직의 효율화	전문인력을 활용한 인터넷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우수.
사회 기여도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2,500명의 음악가를 비롯하여 매해 관람객수가 약 200만명.

※ 출처 : 본문 요약 재작성.

## 5. 후지산가와구치코음악제

### 1) 축제개요

일본 후지산 북쪽에 위치한 후지가와구치코 마을에서 열리는 이 음악제는, 2002년에 시작되었다. 이 음악제는 그 고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진 실행위원회와 후지가와구치코마을, 가와구치코스텔라극장의 공동주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와구치코스텔라극장 운영을 담당하는 후지가와구치코 자치단체 문화진흥국직원과 실행위원회와의 관·민협력형으로 개최된다.

개최경위를 보면, 가와구치코스텔라극장의 직원과 이 극장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깊은 관련을 가짐으로써, 관·민 양자의 합의로 시작하게 되었다. 원래 합병이전의 옛 가와구치코 자치단체<sup>69)</sup>에서는 1988년에 취임한 오사



노츠네오(小佐野常父) 자치단체장이 ‘오감에 호소하는 마을만들기 정책’<sup>70)</sup>으로서 ‘오감문화구상’을 내걸고, 다양한 하드·소프트 정책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지역주민들의 요망과도 합치되는 부분으로서, 오감 중 ‘듣는시설’로 탄생한 것이 가와구치코 스텔라극장이다.

1995년에 개설되어진 이 극장은, 가까이 있는 다른 홀과 차별화된 시설로서 최대수용인수 3,000명의 대형공연장과 고대 로마극장을 모방한 반원형의 야외극장이 되었다. 또한, 당초부터 소수이지만 자치단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를 영입한 운영형태를 취해 온 결과, 3년째에는 ‘서포터즈 클럽’ 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 조직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 극장직원과 일부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올바른 자원봉사자의 자세나 동기부여 등에 관해 논의를 거듭한 결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힘으로 뭔가를 해 보고 싶다’고 하는 자발적인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지역의 시에나윈드오케스트라의 콘서트 관람을 통해 음악프로젝트가 계획되어졌다. 한편, 행정측의 옛 가와구치코 자치단체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음악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 행정측이 지원과 함께 1,400만엔의 보조금을 출자하였다.

## 2) 발전 과정

개최당초는 ‘음악프로젝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제1회째 실행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멤버는, 극장직원 외에 서포터즈클럽회장과 사무국, 학교 관악부 고문선생님들, 가와구치코남중학교 합창부졸업생들로 구성된 BEATS 멤버

69) 2003년에 옛 가와구치코 마을, 가츠야마무라, 아시와다무라, 산초손이 합병되어 「후지가와구치코초」가 되었다.

70) 인간이 가진 오감각에 호소하여, 주민의 감성을 높이면서, 특색있는 관광지로서 “가와구치코다움”을 추구하는 정책.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주형 시민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를 중심으로 약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회의는 브레인스토밍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서포터즈 클럽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지역주민으로서의 고민, 학교선생님들에게는, 예를 들어 중학교 관악부 부원의 감소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삼았고 또한 초등학교부터 악기와 친근하게 하여 음악체험을 통한 교육 등이 의제가 되었다. 현재 실행위원회의 멤버는 약 25명으로 이 멤버가 제안한 기획을 10년간 당 극장에서 기획·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노자와씨가 조정하고, 사도씨로부터의 제안을 포함해,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 노자와씨는 이 기획입안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에서 60대까지의 실행위원회 멤버가 나이차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에 유념하고 있으며, 실행위원회 멤버에게는 반드시 기획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스킬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2005년도 프로그램은, 프로 콘서트가 12회(공개 리허설이나 미니콘서트를 포함), 아마추어가 12회, 아웃리치나 워크샵이 11회, 그 외 출연자와 자원봉사자 스텝과의 친목회 등이 조직되어, 각각의 기획이 유기적인 관련성과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타악기 연주자 이케가미히데키(池上英樹)을 게스트로 초청한 BEATS 기획 ‘숲속 음악회’를 도입부에 넣음으로써, 초등학교에서의 사도히로(스텔라극장 음악감수자)의 음악교실+사도와 학교 음악교사, 학부형과의 대담회 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에나윈드 오케스트라의 악기클리닉, 사도히로시의 중학생 특별밴드공개 레슨, 고교 관악 국내 1위팀 야외콘서트, 시에나윈드오케스트라 공개 리허설로 연결되어, 모든 프로그램은 마지막날 ‘사도히로시 지휘 시에나윈드오케스트라 콘서트’에 출연함으로써 끝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이 음악축제는 출연자와 관객, 프로와 아마추어가 유연하게 교류하는 관계와 발전성이 프로그램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관객층은 지역주

민들이 중심이 되지만, 고교 국내 1위 팀 콘서트, 마지막 날의 시에나윈드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에는 다른 지방에서도 관객이 모여, 수용인수 3,000명의 스텔라극장이 만석이 된다.

행사운영은 약 25명의 실행위원회외에 서포터즈클럽 약 50명, BEATS 약 20명, 행사 기간중 자원봉사자 약 100명, 그 외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수백 명이 연주가가 업무분담으로 각각의 역할로 운영되어진다. 자원봉사자·매니지먼트를 하는 노자와는 운영 매뉴얼에 자원봉사자 개개인 각각의 역할 등을 기입하여, 개인의 판단력을 수반하는 부분을 남겨 두었다. 자원봉사자는 각각의 현재위치에서 음악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중층적인 구조로 누구에게든 열려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의 ‘인재만들기’로 연결된다. 노자와씨는, 자원봉사자·매니지먼트는 시간과 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운영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음악축제 종료 후에는 축제의 운영을 담당하였던 실행위원회, 극장직원, BEATS멤버 등이 모여 반성회를 통해 각각의 문제점을 공유할 것과 서로의 활동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 3) 운영성과

후지산가와구치코음악제는, 휴먼웨어 시점에서의 ‘인재만들기’,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참가하는 개인의 성장과 지역의 성장을 미션으로 내걸고 있다. 그리고 음악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참가한 지역주민이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 결과, BEATS에서 보여지듯이, 지역만들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려 하는 시민의식의 양성으로 이어졌다. 결국, 시민참가 과정에서 이렇게 참가하는 개인이 성장하는 장치, 즉 ‘인재만들기’가 행해지지

않으면, ‘마을만들기’는 실현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배경에 존재한다.

일본에서 음악축제 개최에 있어서 시민참가의 의의는,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점과 개인의 새로운 자기실현의 장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민협력형으로 운영하는 음악축제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휴먼웨어 수준에서 시민참가를 발전시킬 장치 만들기가 필요불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음악제의 청중개척이 가능한 요인에는, 이러한 휴먼웨어의 발전을 중시하면서, 전체를 코디네이션하고 있는 극장직원의 존재가 크다. 노자와를 시작으로 하는 극장직원은, 지역주민이나 음악가로부터 발안(發案)된 개개의 기획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음으로써, 프로와 아마추어, 출연자와 관객의 유동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발전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해 갔다. 노자와는, 실행위원회에서 제출된 기획서에 대해서 대등한 관계에서의 논의를 몇 번이고 검토한다. 이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는 지역만들기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인재만들기가 됨과 동시에, 극장직원과 실행위원회 멤버, 출연자 사이의 신뢰관계 구축이 되기도 한다.

시민참가에는, 계획·기획단계, 실시단계, 평가단계 등 일련의 사이클 안에서 다양한 수준이 고려되지만, 이 후지산가와구치코음악제의 경우 기획단계에서의 참가수준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회학자인 안스테인(Arnstein, 1969, pp.216-224)이 제시한 ‘시민참여 사다리의 여덟개 단계’와 일본의 학자 하라시나는, 시민과 행정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여,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로서 본 ‘참가의 5단계이론’(하라시나, 2005, pp.34-35.)을 제시하고 있다.

안스테인의 ‘사다리의 여덟개 단계’ 중 3~6단계 짝의 4단계, 새로운 참가의 개념 ‘의미있는 응답’을 보충한 것으로서, 레벨1은 ‘정보제공’의 단계, 레벨2는 ‘의견청취’의 단계로 행정은 시민의 의견을 들을 뿐 응답이 없다. 레

벨3은 ‘형식적인 응답’ 단계로 행정은 단 한번 응답하지만 시민과의 논의는 없으며, 레벨4의 ‘의미있는 응답’의 단계는, 행정과 시민의 숨김없는 논의가 필요하며, 마지막의 레벨5가 ‘파트너십’의 단계로, 시민에게 권리와 책임 모두가 생긴다고 하고 있다. 후지산가와구치코음악제의 기획단계에 있어서의 참가레벨을 이 정리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기반에 있어서 일부만 정보가 공개되어지는 점으로 보아, 레벨5 ‘파트너십’에는 미치지 않지만, 기획자인 노자와와 실행위원회 사이에 논의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레벨4의 ‘의미있는 응답’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음악제의 기획단계에서 시민참가·협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의미있는 응답’을 중시하고, 전체를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인제가 우선 필요하다. 환경정비 등에 있어서 ‘마을만들기’의 계획단계에서, 행정, 지역주민, 코디네이터 외에 ‘과학성’을 보증하는 의미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경우는 있지만 음악제에 있어서 전문가는, 과학성이 아닌 창조성이라고 하는 다른 벡터를 제시해야한다. 따라서 단순히 쌍방의 의견을 끌어모으거나, 또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거듭하여 문제점을 표면으로 끄집어내어 전체를 코디네이션 하는 능력이 음악제에는 필요하다.

기획단계에서 시민참가·협동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역주민이 기획·입안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음악제에는 당연히 관객만들기를 위한 전략적인 장치나 음악 그 자체의 가치판단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지역주민, 극장직원, 음악가 등이 대등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각각의 능력이나 네트워크를 발휘하고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뛰어난 능력을 갖춘 코디네이터의 존재는 필수조건이다.

## 제4장 제주의 축제현황 및 음악축제 운영실태

### 제1절 제주의 축제현황

#### 1. 개최 현황

제주에는 2000년 30여종에서 2006년에는 총 50여종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축제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등록된 제주의 문화관광축제 현황은 <표 4-1>과 같다.

<표 4-1> 제주지역 유형별 축제 분류표(2006년)

유형	축제수	축제명
관광축제	18	함덕서우봉일축제, 제주왕벚꽃축제, 제주유채꽃축제, 고사리격기대회축제, 표선백사대축제, 2006 뷰티페스티벌, 삼양검은모래축제, 제주도새기축제, 수원노을축제, 함덕바당모살축제, 역새꽃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협재한여름해변축제, 성산일출제, 서귀포칠선녀축제, 도두오래물수산물축제, 환경사랑 쇠소깍해변축제
특산물축제	9	보목일품자리돔축제, 강정천은어축제, 법환수산물품한치축제, 최남단방어축제, 제주감귤축제, 최남단감귤농장체험축제, 제주마축제, 남제주향토음식페스티벌, 서귀포뽕이축제
문화예술축제	9	용연야밤풍류재현축제,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중문해변영화제,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합창제, 이중섭예술제, 추사문화예술제, 4.3문화예술제, 바람예술제, 서귀포여름음악축제
스포츠레저축제	7	겨울바다펭귄수영대회, 세계일보서귀포국제마라톤축제, 서귀포칠십리국제걷기축제,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제주마라톤축제, 서귀포삼성하우젠배 겨울마라톤대회, 스포츠서울서귀포마라톤대회
전통민속축제	7	탐라입춘굿놀이, 탐라문화제,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 국제차문화축제, 이호테우축제, 들불축제, 덕수리 전통민속재현행사
기타	1	철쭉제(산악제)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6 한국 지역축제 현황(제주의 축제 현황)」



제주도정은 제주에서 개최되는 60여개에 달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비효율적인 축제를 통·폐합하고 축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제주축제의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2007년에 ‘제주축제 육성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제주축제육성위원회가 행정의 지원해야 할 축제 33개를 지정하였고, 2009년에는 28개의 제주 축제를 지정하였다. 2008년 제주의 유형별 축제내용은 아래의 <표 4-2>와 같다.<sup>71)</sup>

<표 4-2> 제주지역 유형별 축제 분류표(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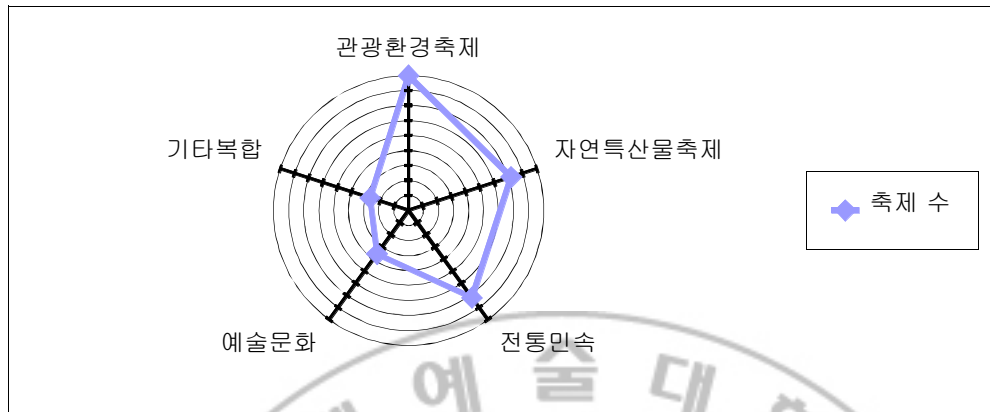
유형	축제수	축제 명
관광 환경축제	10	서귀포겨울바다펭귄수영대회, 제주유채꽃잔치, 제주왕벚꽃축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예래생태마을 해변축제, 환경사랑최소각축제, 삼양검은모래축제, 표선해변백사대축제, 제주억새꽃축제, 성산일출제
자연 특산물축제	8	제주도새기축제, 강정천올림은어축제, 도두오래물수산물대축제, 제주마축제, 제주감귤축제, 수산일품보목자리돔축제, 법환잠녀마을축제, 모슬포최남단방어축제
전통 민속축제	8	탐라국입춘굿놀이,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설문대할망축제,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덕수리전통민속재현축제, 이호테우축제, 탐라문화제, 민속문화예술축제
예술 문화축제	4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합창제, 이중섭예술제,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
기타 복합축제	3	한라산철쭉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제주마라톤축제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 지역축제 현황(제주의 축제 현황)」

위의 <표 4-2>와 아래 <그림 4-1>을 보면, 제주의 축제는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상 관광 및 환경과 관련된 축제가 10개로 가장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자연특산물축제가 8개, 전통민속축제가 8개, 예술문화축제가 4개, 기타복합축

71)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제주의 33개의 축제 현황으로서 실제 제주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약 60여종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제가 3개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4-1> 제주지역 축제 유형별 분포도(2008년)

## 2. 예산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4년 15개의 축제에 총 예산은 19억 원에 달하고 평균예산은 1억 2,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46개로 축제수가 증가하면서 총 예산은 51억 5,900만 원으로 늘었으나 평균예산은 1억 1,200만 원으로 줄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는 2004년에 554개 축제에 총예산은 1,312억 4,300만 원에 평균예산은 2억 5,000만 원이고 2006년 축제의 수가 873개로 증가하면서 총예산은 2,002억 8,200만 원에 평균예산 2억 5,900만 원으로 축제의 양적인 면에서나 예산면에서나 많은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제주지역 유형별 축제예산은 <표 4-3>과 <그림 4-2>와 같다.

<표 4-3> 제주지역 축제 및 예산 현황(2008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축제명칭	예산
관광 환경 축제	서귀포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22
	제주유채꽃잔치	220
	제주왕벚꽃축제	80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70
	예래생태마을해변축제	12
	환경사랑 쇠소깍축제	15
	삼양검은모래축제	12
	표선해변백사대축제	45
	제주억새꽃축제	80
	성산일출제	64
지역 특산물 축제	제주 도새기축제	30
	강정천올림은어축제	10
	수산일품보목자리돔 축제	30
	법환잠녀마을축제	10
	도두오래물수산물대축제	10
	제주감귤축제	200
	제주마축제	40
	모슬포최남단방어축제	94
전통 민속 축제	탐라국입춘굿놀이	70
	정월대보름들불축제	761
	설문대할망축제	60
	이호테우축제	20
	정의골민속 한마당축제	32
	탐라문화제	425
	민속문화예술축제	985
	덕수리전통민속 재현축제	24
예술 문화 축제	제주국제관악제	450
	제주국제합창제	250
	이중섭예술제	20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	15
기타복합 축제	한라산 킨쪽제	등록되지않음
	제주마라톤축제	100
	서귀포칠십리축제	30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 지역축제 총괄표」 재정리.



<그림 4-2> 제주지역 축제 예산 현황도(2008년)

1) 관광환경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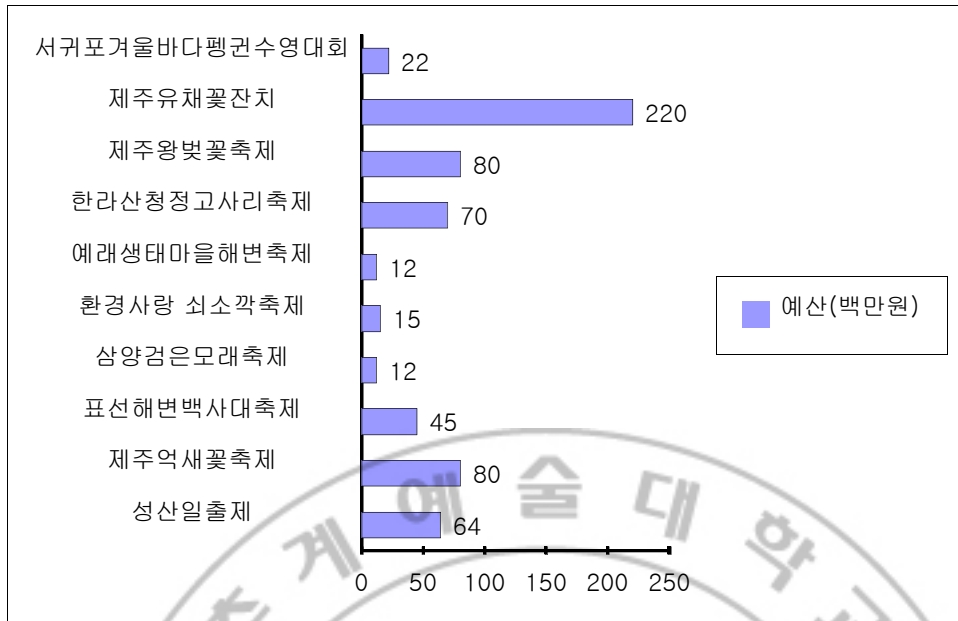
2008년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33개의 축제 중에 5개의 유형별 축제<sup>72)</sup>의 현황과 예산(행정의 보조금액)을 보면, 관광환경축제에서는 제주유채꽃잔치가 2억 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제주억새꽃축제가 8,000만원,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가 7,000만원이고 성산일출제가 6,400만원이고 나머지 축제는 6,000만원 이하이다. 세부내용은 <표 4-4>와 <그림 4-3>과 같다.

<표 4-4> 제주지역 관광환경축제 현황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축제명	주최/주관 (연락처)	최초개최 년도및횟수	축제예산 (지원액)
서귀포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서귀포시/서귀포시축제위원회 760-2682	2000 9회	22
제주 유채꽃잔치	서귀포시/KBS제주방송총국 728-2783	1983 26회	220
제주 왕벚꽃축제	제주시/축제조직위원회 728-2783	1992 17회	80
한라산 청정고사리축제	서귀포시/고사리축제위원회 760-2682	1995 14회	70
예래생태마을 해변축제	예래생태마을 해변축제위원회 760-2682	2001 8회	12
환경사랑 쇠소깍축제	효돈동 연합청년회 760-2682	2003 6회	15
삼양 검은모래축제	삼양동연합청년회 728-4701	2002 7회	12
표선해변 백사대축제	표선해변백사대축제위원회 760-2682	1996 13회	45
제주 억새꽃축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관광협회 710-3322	1994 15회	80
성산 일출제	성산일출제 축제위원회 760-2682	1993 16회	64

72) 관광환경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전통민속축제, 예술문화축제, 기타 복합축제.



<그림 4-3> 제주지역 관광환경축제 예산도

## 2) 지역특산물축제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특산물축제를 보면 제주감귤축제가 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 최남단방어축제가 9,400만원이며 나머지 축제는 5,000만원 이하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제주감귤축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단순화와 지역민과 관광객이 체험 및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 관광상품화 및 연계관광상품의 개발 약화 등 독특한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하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남단방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08년, 2009년 문화관광축제(예비축제)에 선정되어 3,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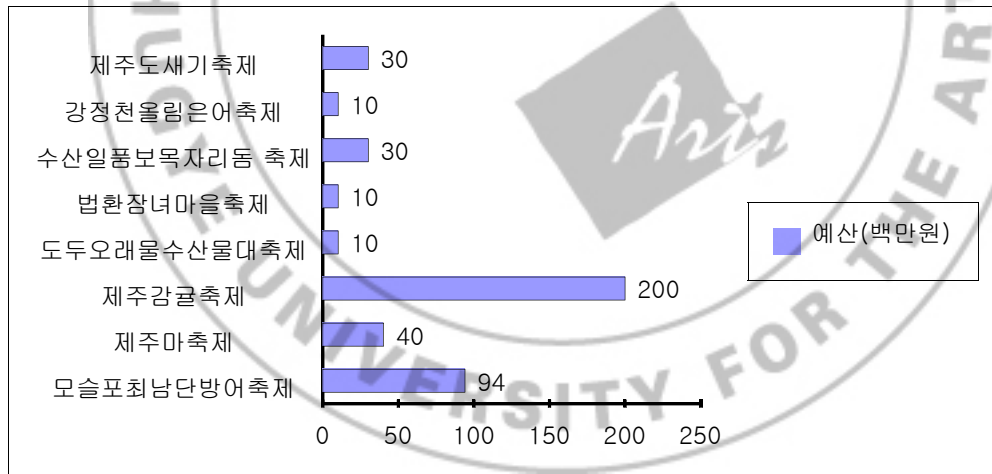


제주지역 지역특산물축제 현황과 예산은 <표 4-5>와 <그림 4-4>와 같다.

<표 4-5> 제주지역 지역특산물축제 현황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축제 명	주최/주관 (연락처)	최초개최 년도및횟수	축제 예산 (지원 액)
제주 도새기축제	제주양돈농협 710-6912	2003 5회	30
강정천올림 은어축제	은어축제위원회 760-2772	2002 5회	10
수산물품 보목자리돔 축제	보목자리돔축제위원회 760-2772	2000 7회	30
법환잠녀 마을축제	법환마을회 760-2772	2000 7회	10
도두오래물 수산물대축제	도두연합청년회 28-4941	2002 7회	10
제주 감귤축제	(사)제주감귤협의회 710-6872	1981 27회	200
제주마축제	제주특별자치도 / KRA 제주본부 710-6902	2003 6회	40
모슬포 최남단방어축제	최남단방어축제 위원회 760-2682	2001 8회	94



<그림 4-4> 제주지역 지역특산물축제 예산도

### 3) 전통민속축제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통민속축제를 보면 총 8종류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제주도지회가 주관하는 민속문화예술축제가 9억 8,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장 많은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우수축제 2회(2001년, 02년), 예비축제 1회(2005년), 유망축제 5회(06년부터 2010년까지)에 선정되어 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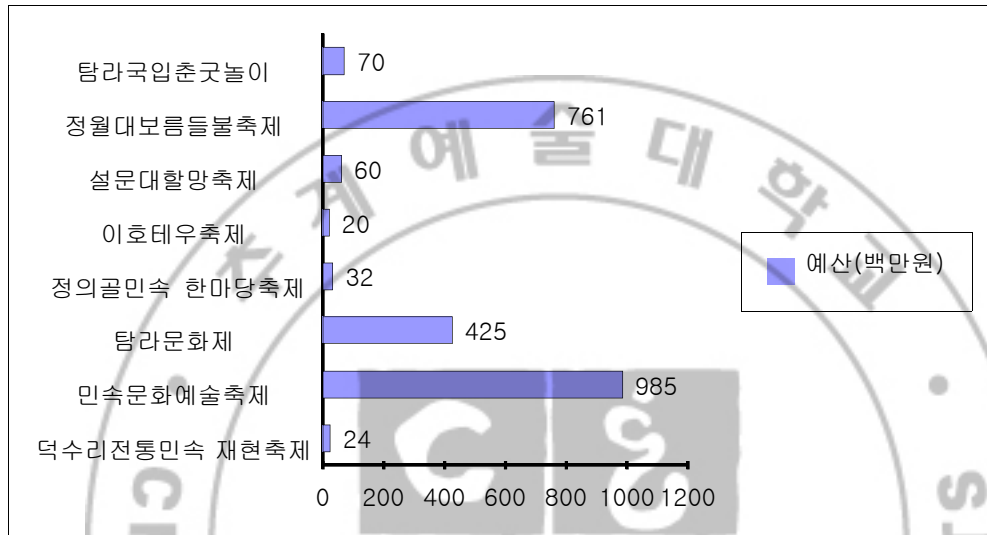
제주지역의 전통민속축제 현황과 예산은 <표 4-6>과 <그림 4-5>와 같다.

<표 4-6> 제주지역 전통민속축제 현황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축제명	주최/주관 (연락처)	최초개최 년도및횟수	축제예산 (지원액)
탐라국 입춘굿놀이	제주시 / 민예총도지회 (728-2714)	1999 10회	70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제주시 관광진흥과 (728-2753)	1997 13회	761
설문대 할망축제	제주돌문화공원 710-6631	2007 2회	60
이호 테우축제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이호동 연합청년회/728-4911	2004 5회	20
정의골 민속 한마당축제	서귀포시/성읍1리 760-2483	1995 14회	32
탐라문화제	예총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 710-3303	1963 47회	425
민속문화예술축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민예총 제주도지회	1961 49회	985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축제	서귀포시/덕수문화마을민 속보존회 760-2483	1992 17회	24

제주시가 주최하는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7억 6,100만원, 한국예총 제주도지회가 주관하는 탐라문화제가 4억 2,500만원, 제주시와 한국민예총 도지회가 주관하는 탐라국입춘굿놀이가 7,000만원,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주관하는 설문대할망축제가 6,0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축제는 4,000만원 이하의 예산을 보조 받고 있다.



<그림 4-5> 제주지역 전통민속축제 예산도

#### 4) 예술문화축제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예술문화축제를 보면 총 4종류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서양음악을 기반으로 기획된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를 비롯하여 화가 이중섭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중섭예술제, 추사 김정희를 소재로 대정읍에서 주최하는 추사문화예술제가 개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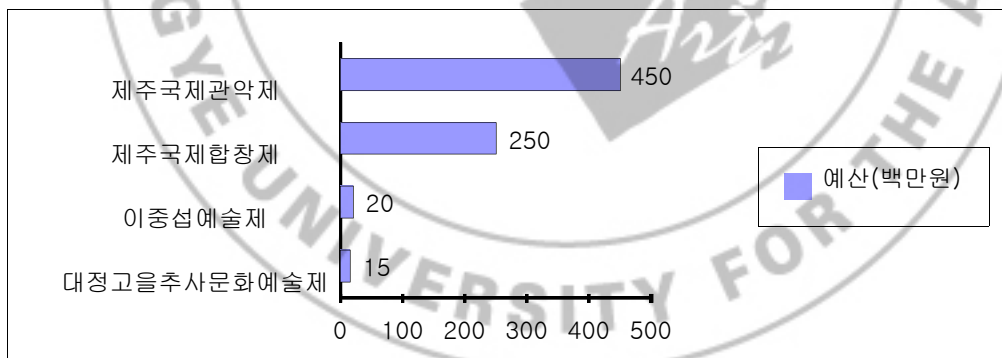
제주지역 예술문화축제 현황과 예산은 <표 4-7>과 <그림 4-6>과 같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국비에서 1억원, 지자체에서 2억 5,000만원과 기업협찬(제주은행) 1억원 총 4억 5,000만원(2009년의 경우 지방비가 4억 2,500만원이고 국비가 1억원, 기업협찬이 1억원으로 총 6억 2,500만원으로 집행됨)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제주국제합창제는 국비가 1억 5,000만원, 지방비가 1억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2009년의 경우 지방비와 국비 각각 2억원 총 4억원으로 집행됨.)으로 집행되고 있다. 나머지 축제는 2,000만원 이하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표 4-7> 제주지역 예술문화축제 현황 및 예산

(단위 : 개/백만원)

축제명	주최/주관 (연락처)	최초개최 년도 및 횟수	축제예산 (지원 액)
제주국제관악제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722-8704	1995 13회	450
제주국제합창제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합창제 조직위원회 710-3303	2001 8회	250
이중섭예술제	서귀포시 / 한국예총서귀포지부 760-2483	1998 11회	20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	서귀포시/대정고을역사문 화예술보존회 760-2483	2002 7회	15



<그림 4-6> 제주지역 예술문화축제 예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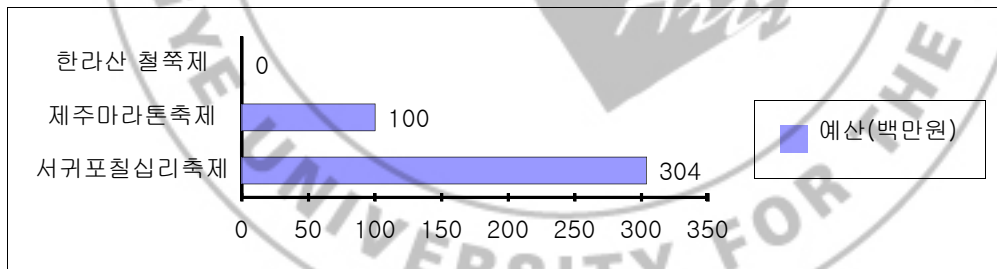
5) 기타복합축제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기타복합축제를 보면 총 3개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은 서귀포칠십리축제가 3억 400만원, 제주마라톤축제가 1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서귀포칠십리축제는 서귀포시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축제로서 제주에서 유일하게 2003년에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 2007년, 08년, 09년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다. 제주지역 기타복합축제 현황과 예산은 <표 4-8>과 <그림 4-7>과 같다.

<표 4-8> 제주지역 기타복합축제 현황과 예산

(단위 : 개/백만원)

축제명	주최/주관 (연락처)	최초개최 년도및횟수	축제예산 (지원 액)
한라산철쭉제	대한산악연맹제주도연맹 /제주산악회 759-0848	1967 42회	등록되지 않음
제주마라톤축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742-8861	1996 13회	100
서귀포칠십리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위원회 760-2682	1995 14회	304



<그림 4-7> 제주의 기타복합축제 예산도

## 제2절 제주국제관악제

### 1. 배경 및 개요

제주서양음악의 시작은 일제강점시대인 1930년대 중반부터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보통학교가 20여 개로 늘어났고 군국주의 교육과 군사훈련 등의 필요성에 의해 학교에 관악대 활동이 시작되었다.<sup>73)</sup>

제주의 역사적인 배경, 일본의 한국강점시기, 광복전후, 한국전쟁 당시의 음악활동으로 보았을때 제주서양음악은 3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제1시기였던 1930년대 일제말기부터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제주음악은, 일제강점기라는 독특한 시대배경으로서 군국가요가 대부분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광복은 선무공작대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학교 관악대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제2시기였던 한국전쟁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제주음악은, 한국전쟁으로 피난온 많은 음악인들의 활동과 모슬포 훈련소군악대 및 한국보육원관악대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미국인 찰스 길버트(Charles E. Gilbert)<sup>74)</sup>의 도움에 의해, 중·고교에 여러 관악대가 창립되었고 오현고등학교관악대의 활발한 활동 등은 제주를 전국에 알리는

73)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 60년사(제주 음악사), p.150.

74)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의 교수(콘서트밴드 지휘자)로서,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UN 민간협력단체부사령관으로 부임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제주에 체류하면서, 한국보육원 관악대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주중학교, 제주농업고등학교, 경찰악대, 구세군고적대 등에 지원과 함께, 오현고등학교 관악대 창설을 적극 도왔으며, 제주도내 관악대 순회지도와 밴드 지도교사 대상의 지휘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등 제주의 관악발전에 기여하였다. 1952년 12월 20일 제주도청(현, 제주시청) 청사 준공식에서 그의 지휘로 연합악대(제1훈련소 군악대, 한국보육원, 제주중, 제주농고, 오현고 관악대)반주에 의한 제주여고와 제주신성여고 합창단의 '할렐루야' 공연은 제주에서 최초의 대규모 음악공연이었다. 그의 고마움을 기리고자 오현고등학교는 신축음악관을 길버트음악관(Gilbert Music Hall), 한국보육원에서는 신축강당을 길버트관(Gilbert Hall)이라고 하였다.



역할도 하였다. 다양한 관악대의 활동은 1962년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부와 1973년 한국관악협회제주도지부의 창설배경이 되면서 제주음악의 구심점이 되었다. 제3시기였던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제주음악은, 제주대학교에 음악교육과가 개설되어 전문음악인을 양성하면서 음악지도자를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고 1990년 중반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에 음악과가 개설되면서 관악대 출신자들의 음악활동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 등으로 인해 1982년에 탐라관악합주단이 창단되었고, 이는 도내 최초의 공립음악단체인 제주시립예술단(현, 제주도립교향악단·합창단)이 창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관악분야의 다양한 활동은 대한민국관악제를 1992년 제주에서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1994년에 일본에서 열린 아·태관악제에 한국대표로 제주연합악대가 참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의 관악인들에 의해서 국제적인 관악제를 구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1995년에 탄생된 제주국제관악제이다.

이상 제주의 초창기 관악역사는 <표 4-9>와 같다.

<표 4-9> 제주의 초창기 관악역사 시기별 요약

시 기	주요 내용
<b>제1시기</b> 1930년대부터 1950년대 까지	- 1923년 일제 강점 시기에 초등학교 관악대 창설 - 1945년 전후 선무공작대의 활동으로 학교관악대 창설에 기여 - 1950년 한국전쟁으로 모슬포 훈련소에 군악대 활동 활발
<b>제 2시기</b> 1950년대 부터 1970년대 까지	- 한국전쟁으로 피난온 음악인의 다양한 활동 - 도내 중·고교에 관악대 창설과 활발한 활동 - 한국음악협회제주지부 및 관악대지도자협회제주지부 창설
<b>제3시기</b> 1970년대 부터 1990년대 까지	- 대학에 음악학과 창설로 음악전문가 및 교육자 배출 - 공립 관악합주단의 창설을 바탕으로 교향악단 창단 - 1992년 대한민국관악제 94년 일본 아·태관악제를 계기로 국제 규모의 관악제 구상(1995년 제주국제관악제 탄생)

※ 출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 60년사-제주음악사」, 재정리.

제주의 관악역사는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시작되어 이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한 결과 초·중·고교, 대학, 경찰, 일반 및 서귀포시립관악단 등 모두 30여개 관악대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창립된 서귀포시립관악단은 한국 최초의 상설화된 시립관악단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야외연주가 용이하고 기동력이 뛰어난 관악의 특성과 제주의 관광환경 및 평화스런 이미지와 조화를 이룬 제주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악축제이다. 1995년부터 시작되어 매해 약 10여개국 1,3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음악인과 국내 1,500여명에 달하는 음악인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교육,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주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의 개요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제주국제관악제 개요

구 분	내 용
명 칭	제주국제관악제
주 제	섬, 그 바람의 울림
기 간	매년 8월 12일부터(9일간)
장 소	제주문예회관, 제주해변공장, 서귀포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등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위 상	1995년 밴드축제로 시작, 2000년부터 격년제의 금관악기콩쿠르 개최, 2004년 아·태관악제 <sup>75)</sup> 및 2006년 세계마칭쇼챔피언십대회를 제주국제관악제와 동시 동시개최, 2009년 UNESCO 산하기구인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가입되었고 세계최초로 금관악기 전 부문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연대회이다.
주요 프로그램	경축시가퍼레이드, 거장 초청연주, 국내외 관악단 공연, 유명 관악인 공개강좌, 관악관련 심포지엄 및 세미나, 금관악기콩쿠르

75) 아시아태평양 관악제는 아·태지역 16개국 관악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지역 관악의 균형적 발전과 정보 교환 및 연주를 통한 우호를 다지기 위해 197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 2년 격년제로 아시아 지역 국가를 순회하며 관악 연주를 펼치고 있는 순수 국제음악예술 축제. 2000년 1월 제11회 대회에서 제13회 제주개최 확정(대만), 2002년 8월 제12회 대회에서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장이 아·태 관악연맹 회장에 피선.

## 2. 발전과정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 관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1995년부터 시작되어 1998년에는 일본, 대만, 독일, 한국에서 참가한 전문양상블단체, 관악독주 등 양상블축제를 신설하여 홀수해의 밴드축제와 병행하였다.<sup>76)</sup>

1999년 제4회 축제부터는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고 2000년부터 짝수해에는 관악콩쿠르가 양상블축제와 동시에 개최되었다. 또한 2004년에 제주국제관악제(양상블축제)와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APBDA)가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APBDA 사상 최대규모로 개최되었고, 2005년에는 제주국제관악제 10주년을 기념하는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서울공연’이 8월 18일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sup>77)</sup> 2006년 축제에는 제주국제관악제와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제주대회(World championship For Marching Show Bands, Jeju, arena)를 동시에 개최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2007년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관악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2008년에는 ‘마에스트로 콘서트’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sup>78)</sup>

2009년에는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제주국제관악콩쿠르<sup>79)</sup>가 가입되어 제주국제관악제의 위상은 물론 제주브랜드

76) 1995년 격년제 행사로 시작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매해 추진되면서 2012년부터 밴드축제와 양상블축제를 구분하지 않고 매해 진행할 계획이다.

77) 이 연주회에는 미국 줄리어드음대 교수인 버니니아 알렌의 지휘로 대만의 예수한(트럼펫, 대만국립사범대학 교수), 프랑스의 야끄모저(토롬본, 독일 에센폴크방 음대교수), 미국의 앤드류 델키(색소폰, 미국 노던콜로라도 주립대학 교수)가 협연하였다.

78) 이 연주회에는 국제무대에서 최정상급의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에릭오비에르(트럼펫), 야끄모저(토롬본), 롤랜드 젠트팔리(튜바)가 출연하였다.

79)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4월 UNESCO 산하기구인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 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 총회에서 가입 인준을 받아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연맹 가입으로 공식기구를

를 높이게 되었다. 국제연맹에 가입되면 공식기구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회가 홍보되어 보다 많은 음악인들의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축제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병역법상 우리나라 출신의 참가자가 1, 2위에 입상할 경우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금관악기 전 부문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연 참가자 전원 합동캠프방식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음악적 교류를 돕는다.

특히, 2004년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와 2006년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대회가 제주국제관악제와 동시에 개최되어 세계적 규모의 음악축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다시 제1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를 제주국제관악제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국제관악제 연도별 주요내용은 <표 4-11>과 같다.

<표 4-11> 제주국제관악제 연도별 주요 내용

연 도	주 요 내 용
1995 (제1회)	- 제주국제관악제 창설 - 4개국 24팀 1,501명 참가(초청 인사 3명), 약 40여회 공연 - 세미나 및 공개강좌 10여회, 특별행사 2회, 보조프로그램 3개
1997 (제2회)	- 7개국 27팀 1,518명 참가(초청 인사 9명), 약 50여회 공연 - 세미나 및 공개강좌 10여회, 특별행사 2회, 보조프로그램 3개
1998 (제3회)	- 2개국 14팀 700여명 참가(초청 인사 5명), 약 50여회 공연 - 세미나 및 공개강좌 10여회, 특별행사 2회, 보조프로그램 3개 - 소규모의 앙상블축제 신설하여 홀수해의 밴드축제와 병행
1999 (제4회)	- 밴드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 - 8개국 40팀 2,300명 참가(초청 인사 20명), 약 60여회 공연

통한 전 세계 홍보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FIMC는 1957년 설립됐으며,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폴란드 쇼팽 피아노 콩쿠르 등 120여개 콩쿠르가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2007년에 최초로 가입되었고, 2009년에 제주국제관악콩쿠르와 서울국제음악콩쿠르가 가입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li> <li>-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창설 및 축제 연주 전담 관악단 운영</li> </ul>
2000 (제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앙상블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li> <li>- 9개국 32개팀 1,120명 참가(초청 인사 14명), 약 40여회 공연</li> <li>-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신설, 기타 기본 행사 개최</li> </ul>
2001 (제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밴드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li> <li>- 14개국 55팀 2,985명 참가(초청 인사 19명), 약 70여회 공연</li> <li>- 숲속의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신설, 기타 기본 행사 개최</li> </ul>
2002 (제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앙상블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li> <li>- 11개국 29팀 937명 참가(초청 인사 22명), 약 50여회 공연</li> <li>- 관악 콩쿨르 입상자 음악회 개최, 기타 기본 행사 개최</li> </ul>
2003 (제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밴드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li> <li>- 10개국 43팀 2,640명 참가, 약 80여회 공연</li> <li>- 제1회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 신설, 기타 기본 행사 개최</li> </ul>
2004 (제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앙상블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총 60여회 공연</li> <li>- 관악제 : 9개국 13개팀 96명 / 아태관악제 : 6개국 57개팀 3,454명 참가</li> <li>- 초청 인사 : 관악제와 아·태관악제 포함 51명, 약 90여회 공연</li> <li>- 제주국제관악제와 제13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동시에 개최</li> <li>- 아시아태평양관악연맹 총회 개최(회원국 관악지도자 70여명 참가)</li> </ul>
2005 (제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밴드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li> <li>- 12개국 51개팀 2,800명 참가(초청인사 14명)</li> <li>- 제1회 대한민국 동호인 관악단 경연대회 신설, 기타 기본 행사 개최</li> </ul>
2006 (제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앙상블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li> <li>-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제주대회 개최(세계 19개국 24개 마칭밴드)</li> <li>- 관악제 : 16개국 25팀 1,000명 참가(초청인사 36명)</li> <li>- 마칭쇼밴드 : 10개국 27개팀 2,300명 참가(초청인사 15명)</li> <li>- 열한시 콘서트 신설(도 문예회관 대극장)</li> </ul>
2007 (제1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밴드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li> <li>- 12개국 47개팀 2,650명 참가(초청인사 17명)</li> <li>- 도민과 함께하는 관악제 신설(제주시 노형 기적의 공원, 성산일출봉 야외 공연장, 저지 예술인마을 야외공연장)</li> </ul>
2008 (제1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앙상블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li> <li>- 17개국 30개팀 1,800명 참가(초청인사 50명)</li> <li>- 마에스트로 콘서트 신설, 지휘 공개강좌, 협연, 관악 공연 등</li> </ul>
2009 (제1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밴드축제, 세미나 및 공개강좌, 특별행사, 보조프로그램 등</li> <li>- 9개국 41개팀 1,900여명 참가(초청인사 20명)</li> <li>- 운영조직인 축제조직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4월 22일 등록)</li> <li>- UNESCO 산하기구인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가입</li> </ul>

※ 출처 :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http://www.jiwef.org>) 재정리.



제주국제관악제는 짝수해와 홀수해의 행사에 각각 특징이 있어, 주요행사 내용이 다르다. 홀수해의 행사는 대중적 호응이 높고 축제성이 강한 반면, 짝수해에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어 행사를 진행한다. 홀수해의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대규모 밴드축제, 국내·외 관악단의 순회연주, 관악 거장 초청공연 등을 들 수 있다. 짝수해에는 앙상블 공연, 국제관악콩쿠르 등이 주요 행사이다. 매해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행사 내용으로는 외국 음악단 초청 공연 및 야외 순회공연, 환영음악회, 국내·외 관악단의 시가퍼레이드, 관악기 전시 및 수리서비스, 초등학교 및 동호인 관악단의 합주경연대회, 제주국제관악제 발전포럼 등이 있다. 특히 제주도 초등학교 관악단 경연대회는 오래전에 활동하다가 중단되었던 초등학교 관악단이 재창단 되는 계기가 되어 매우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제주윈드오케스트라는 세계적인 작곡가에게 제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창작곡을 위촉하여 제주의 관악 작품곡을 만들어 가고 그 공연을 음반 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있는 작업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최근 제주의 장점인 유명관광지에서의 관악단 연주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효과를 얻고 있다.

### 3. 운영조직과 예산

제주국제관악제의 운영조직은 2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 향후추진계획을 큰 틀에서 심의·결정하는 조직위원회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위원회는 제주도청의 관련부서 국장과 도의회 문화관광위원, 도



교육청의 국장, 제주도내 관광협회 및 관련 임원, 협찬업체의 임원, 도내 음악 대학의 교수와 고교의 교사, 제주도내·외 음악협회 주요 임원 약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관련분야(학계, 음악계 등)의 민간 전문인으로 능력과 덕망을 인정받는 인물로 위촉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또한 축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포지션인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이외에 음악적인 부분을 운영하고 조정하는 역할인 예술감독에 이수한(대만국립사범대학교 교수)과 아르민로진(독일 슈트트가르트 음대교수)이 콩쿠르 심사위원장을 맡아 국내·외 음악 전문가가 적절하게 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무와 집행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축제 전문관악단인 제주윈드오케스트라<sup>80)</sup>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윈드오케스트라는 1995년에 격년제로 시작된 제주국제관악제가 3회째인 1999년 축제부터 새로운 시도로 마련된 ‘위대한 작곡가의 작품 조명’의 연주를 위해 같은 해 4월에 조직되어 첫 번째 대상자로 작곡가 알프레트 리드(Alfred Reed)를 초청, 그의 지휘로 그의 대표적 작품을 연주하였다.

또한 2006년 프랭크 티켈리(Frank Tichelli 미국), 2008년 야곱 드 한(Jacob de Haan, 네덜란드), 2009년 만프레드 슈나이더(Manfred Schneider 독일, 2008년 11월 본인 사망으로 인해 在獨음악인 윤중현 지휘), 2010년 얀 반 더 루스트(Jan Van der Roost 벨기에)등 현대 관악의 거장들이 초청되어 그들의 작품이 공연되었다.

80) 제주윈드오케스트라는 2000년 대만 치아이시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와 2002년 중국 광저우시의 제12회 대회, 2008년 대만 타이난시의 제15회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였다. 제한된 시기에만 활동하던 이 단체는 제주국제관악제를 비롯하여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2003년 2월에 상설화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였다. 2005년 8월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주국제관악제 1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에서 만나는 제주국제관악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이동호 제주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창단부터 현재까지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개최 당시 약 5,000만원의 지자체의 예산과 협찬금 4,000만원으로 시작하여 2009년 현재 국비 1억원, 지자체 예산 4억 2,500만원, 협찬금 1억원 총 6억 2,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제주은행의 협찬은 열악한 제주 지역의 기업 메세나 운동을 대표하는 좋은 예로서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sup>81)</sup>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예산 현황은 <표 4-12>와 <그림 4-8>과 <그림 4-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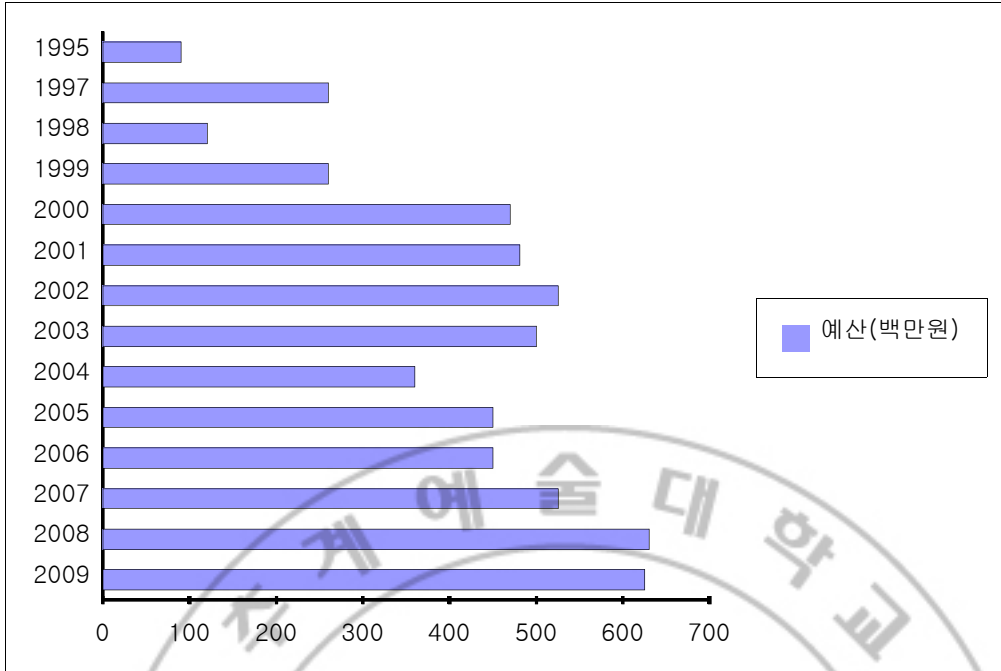
<표 4-12> 제주국제관악제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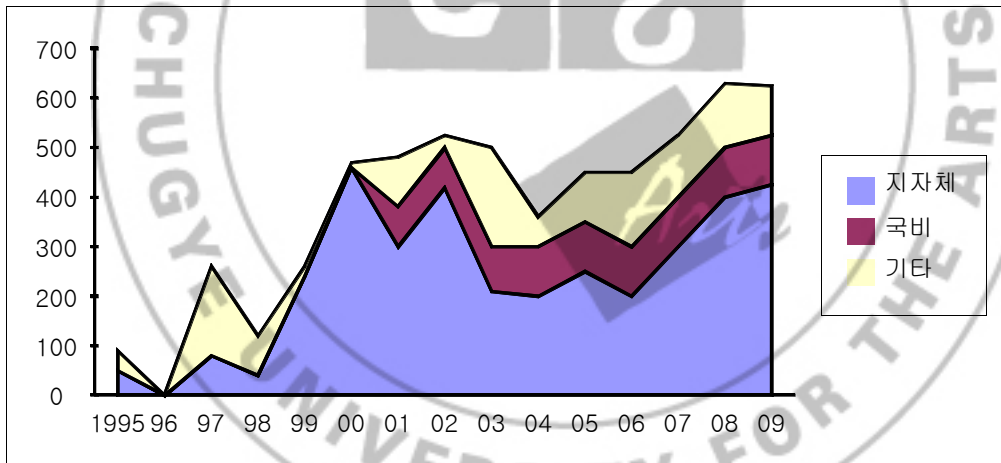
연도	예산 구성			
	합계	지자체	국비	기타
1995	90	50		40
1997	260	80		180
1998	120	40		80
1999	260	240		20
2000	470	460		10
2001	481	300	81	100
2002	525	419	81	25
2003	500	210	90	200
2004	360	200	100	60
2005	450	250	100	100
2006	450	200	100	150
2007	525	300	100	125
2008	630	400	100	130
2009	625	425	100	100

※ 출처 :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자료 재정리.

81)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규모 음악축제의 예산현황을 보면, 통영국제음악제, 대관령국제음악제,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은 모두 제주국제관악제보다 늦게 시작된 축제로 약 14억원에서 2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관악제는 지방비에 비해 국비의 비율이 매우 낮아 국비 확충을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4-8> 제주국제관악제 연도별 예산도



<그림 4-9> 제주국제관악제 예산 구성 분포도

#### 4. 운영성과

제주국제관악제의 2006년 관객은 도민 5만 3,000명, 관광객 4만여 명, 외국인 1만 7,000여명 등 모두 11만 2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은 모두 31억 8,000만원, 내국인은 25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57억 4,000만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한 연주자와 동반가족의 1인당 공식지출 비용은 449,637원으로 조사되었고 참가자의 소비지출 증대 27억원과 시설투자 5억여 원의 증대로 인해 나타나는 총산출 효과는 44.6억 원, 고용효과는 224명, 소득효과는 30.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임원 및 연주자와 동반자 가족의 직접적인 소비지출 증대로 인해 총산출은 37.7억원, 고용은 188명, 소득은 26억원이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시설투자로 인해 총산출은 6.8억원, 고용은 35명, 소득은 4.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82)</sup> 세부내용은 <표 4-13>과 같다.

<표 4-13> 제주국제관악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구 분	총산출 효과 (백만 원)	총 고용효과 (명)	총 소득효과 (백만 원)
임원 및 연주자	3,030.1	150.9	2,096.7
동반 가족	743.8	37.6	512.4
소 계	3,773.9	188.5	2,609.1
시설투자	688.3	35.7	478.9
총 계	4,462.2	224.2	3,088.0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한 임원, 연주자 등 참여자는 국외 참가 앙상블 및 관악단이 5개국 10개팀 170여명, 국내 참가 앙상

82)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예술·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 2004, pp.75-76.

블 및 관악단이 7개 팀 230여명, 초청 및 협연자가 10개국 50여명, 도립무용단 40명, 트롬본 및 플루트 캠프 참가자 2개팀 200명, 도내 참가팀은 11개팀 550여명 등 17개국 30개팀 총 1,300여명으로 계측되었다. 이러한 참가자의 제주지역 내 지출액이 지역경제에 파급시킨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면 총 생산 파급액은 14억 5,431만원으로 분석되었다.<sup>83)</sup>

산업별로 보면 문화 오락서비스업 5억 416만원, 소매업 3억 2,247만원, 관광 교통업 1억 135만원, 음식점업 8,864만원 순으로 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6억 3,29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오락서비스업 3억 793만원, 숙박업 1억 8,570만원, 소매업 8,385만원, 관광교통업 3,238만원, 음식점업 2,30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 고용파급자수는 제주국제관악제로 인한 관광산업에 10억 원의 비용을 투입했을 때 생겨나는 일시적 일자리, 피고용자수로 나타나는데, 총 고용파급수는 9.7명으로 나타났고, 소매업 3.68명, 문화오락서비스업 2.63명, 음식점업 1.01명, 관광교통업 0.98명 순으로 파급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을 사회통합적 측면, 정치 선진적측면, 문화 발전적측면, 산업적 측면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우선 사회통합적측면을 보면 관악제 기간 동안 관악단 순회연주회, 지역 곳곳의 연주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며, 2008년 6월 한달간 자원봉사를 모집하여 지역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시켰다.

문화측면에서는 초등학교, 박물관, 산사, 도내주요 관광지 등에 특설무대를 마련하여 음악회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켰다. 또한 세계적으로 근래에 작곡된 관악작품들을 발굴하고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여한 국내·외 음악인들을 위해 제주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83) 이은정·황경수·고태호,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VOL.10, No.11, 2009, pp. 3506-3515.

을 마련하여 제주의 미지를 한층 높이는 시도 등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 및 홍보적 측면에서는 온라인 신문사를 중심으로 홍보와 현수막 및 배너 등 인쇄물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로 지역민에게 잘 인지되어있는 지역 축제로 성장하였다. 특히 독일 로렐라이금관양상블의 일원으로 본 축제에 참가한 로렐라이시 시장은 제주시를 방문하여 제주시장과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두 지역간 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홍보의 기회도 되었다.

산업적 측면을 보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제주지역 은행의 기업메세나를 통한 기부금 지원, 악기 관련 기업과 국내·외 악기 제조사의 광고를 통한 광고비 협찬을 비롯해서 도내 언론사, 제주관광협회와 관련기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민·관 후원이 있었다.<sup>84)</sup>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자료에 의하면 2006년 제주국제관악제는 ‘세계마칭 쇼밴드챔피언십제주대회’ 등 독특한 프로그램의 유치와 수준 높은 국내·외 연주단의 공연을 통한 흥미있는 진행과 다양한 구성 등의 요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민요 등 제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악곡의 창작과, 참가 음악인 및 외부인들에게 제주민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각종 매스컴 및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행사 분위기를 띄우는 노력이 필요하고, 관광 차원에서 국내(Arte TV 등) 채널을 이용하여 행사내용을 외부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sup>85)</sup>

2007년 평가내용을 보면, 사업계획과 사업운영 면에서 소기의 목적은 무난

84) 이은정·황경수·고태호, 상계서, p.3512.

85) 문화체육관광부,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 지원 사업 평가」, 제11회 제주국제관악제 평가 결과, 2006, pp.114-116, 재정리.



히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운영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매우 친절하였고 이점은 행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하였다. 사업성과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본 목적을 달성하였고, 관객참여와 호응도도 높다고 평가되었으나 국제음악제로서의 예술교류부문은 미약하여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받았다. 특히 다른 음악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특성화된 공연 요소의 개발이 필요하고, 민간부문의 후원 활성화를 통한 축제 예산의 확보를 제안하였다.

2008년에는 국제관악콩쿠르의 세계콩쿠르연맹(WFIMC) 인준 노력, 2014년 제1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유치성공 등 중·장기계획이 적절하고 현재보다 많은 국내 전문가 및 단체의 참여와 제주관광과 연계된 외국관광객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관객을 위한 서비스부분은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고 청중들에게 공연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비스는 오히려 공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해설과 통역을 피해야 하고 연주가들의 즉각적인 해설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009년 평가를 보면, 음악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향수권의 확대라는 면에서 국고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행사라고 평가하였으나, 행사의 규모와 연혁에 비해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사업운영면에서는 집행위원의 명단은 있으나 업무별 구체적 조직은 미비해 보이고 도내인사 중심의 현재의 조직은 외부의 시선으로는 다소 폐쇄적으로 여겨지므로 국제 행사인 만큼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에 지역을 떠나 전문적인 인력 투입을 제안하였다. 홍보측면의 평가내용을 보면,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성격과 부합되는 홍보전략이 미흡하고 대부분 제주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점, 홍보예산 대부분이 현장홍보에만 집중되어 중앙과의 홍보가 단절되는 점 등은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홈페이지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2009년 제주국제관악제 포럼에서 이장직은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으려면 실내 공연장 못지않은 음향시설과 여건을 갖춘 야외음악당 신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탕글우드음악축제<sup>86)</sup>의 야외 음악당이며 주 공연장인 쿠세비츠키 뮤직셰드가 지붕이 있는 5,100석과 야외 잔디밭에 1만 명까지 수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제주에서 벤치마킹 할 부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포럼에서 김성호는 제주국제관악제로 인해 제주지역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단체 탄생의 계기가 되었고, 축제와 콩쿠르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관악인의 국제교류와 세계적인 관악작곡가들의 작품세계조명 등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으며, 세계적 작곡가에 제주를 소재로 관악창작곡 위촉을 통하여 음악을 통해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메신저의 역할은 물론 제주도민의 문화향수권신장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sup>87)</sup>

강일중의 『공연예술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이상철<sup>88)</sup>은 향후 제주국제관악제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sup>89)</sup>

첫째, 관악으로 특화된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의의를 더욱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지역의 관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축제로 관악합주와 관악앙상블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면서, 국제관악콩쿠르 개최를 통해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추구하는 통합적인 관악

86) 미국 메사추세츠쿠버크셔 지방의 레녹스시 산악지대에 있는 탕글우드에서 개최되는 음악축제로서 보스톤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관하고있다. 여름음악캠프, 야외잔디밭공연, 재즈 및 팝스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 프로그램.

87) 2009년 제주국제관악제 발전을 위한 포럼, 2009년 8월 19일,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 이장직(중앙일보 기자), 김성호(전, 제주 MBC 방송국 국장 및 현, 제주한라대학 강사)

88) 전)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장, 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89) 제주국제관악제 집행위원장 인터뷰 내용, 2011년 5월 13일, 조직위원회사무실.

전문축제로 성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통합적인 음악축제 시스템은 관악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고 관악콩쿠르는 최대규모이다. 또한 금관악기콩쿠르 전 부문 통합운영, 심사위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특별연주, 콩쿠르의 부문별 우승자들의 차기년도 초청공연 등 관악축제와 콩쿠르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있다. 이처럼 잘되고 있는 장점들이 곧 제주국제관악제의 특징과 매력이므로 이를 더욱 보강하여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둘째, 제주국제관악제는 서양음악과 관악분야가 발달된 외국에 잘 알려져 있는 음악축제로서 홍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외국 관광객에 대한 방문 유도를 통해 도외 관광객 유치에 장려하고, 제주도민들이 자원봉사자와 관객으로서 축제참여를 통해 지역민의 예술문화 향유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한다. 또한 본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제주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제주국제관악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제주의 이미지를 국내·외로 홍보하고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다양한 효과를 주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제주가 세계관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상설화되고 전문화·체계화된 전문 관악단을 육성해야 한다.

넷째, 세계 일류 음악축제인 아스펜음악제<sup>90)</sup>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젊은 음악도를 위한 음악아카데미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제주관악아카데미와 국제음악캠프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연, 캠프, 마스터클래스에 적합한 국제규모의 전문공연장 또는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해야한다.

90)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6월중순부터 8월말까지 9주 동안 개최되는 음악축제이다. '아스펜 음악제와 학교'가 그 공식 명칭으로서 1949년에 시작하여 약 40여 개국 800여 명의 음악도가 참가하고 전문연주자 180명이 참가하며 약 200여종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해 약 1,200만 달러(한화 144억)의 예산으로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의 쇼핑, 숙박, 소비를 포함하여 아스펜 음악제가 아스펜시에 가져 오는 수입은 4천만 달러(한화 480억)로 아스펜 경제의 42%를 차지한다.

### 제3절 제주국제합창제

#### 1. 배경 및 개요

제주의 합창음악은 제주도에 기독교의 유입으로 인해 교회를 통한 찬송가의 보급과 함께 시작되었다.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조직되면서 한국 최초의 목사 7인이 임직되었고 그 중 한사람인 이기풍목사가 제주로 파견되면서 제주의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합창음악이 시작되었다.<sup>91)</sup>

이후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교육기관이 확장되었으며, 학교의 관악대와 함께 일본의 창가가 강제로 전파되었다. 이 시기에 제주는 해상교통을 통한 일본과의 소통이 원활하여 제주에 대한 일본의 군국주의 교육은 더욱 심화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이후 광복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의 유입과 함께 전쟁에 투입될 군인양성을 위한 훈련소가 대정읍 모슬포에 들어서면서 군인과 피난민 등 15만여명에 이르는 인구가 제주로 몰려들었고 이러한 피난민 중에는 많은 예술인들도 있었다. 음악인으로는 이성삼, 이성재, 계정식, 변 훈, 박재훈, 김금환 등이 있었고, 이들의 활동은 휴전 이후 환도할 때까지 길지 않은 기간이었으나 제주도민들이 순수예술 음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제주도의 음악인들은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정보와 자극을 얻어 제주도 음악의 진로를 모색하는 보다 큰 안목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부가 1962년에 결성되고, 탐라문화제의 전신인 제주예술제가 출범하면서 음악제가 개최되었고, 제주도 최초의 성인합창단인 탐라합창단이 창단되었다. 이 합창단은 1963년

91) 이기풍 목사는 1908년 2월 입도하여 13년 동안 제주에서 복음과 성가를 전파하였다.

과 1964년에 세계적인 음악가 안익태를 초청하여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안익태의 음악지도를 계기로 제주도내 합창음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도내 음악회에서도 수회의 지휘를 하여 몇 년간 제주의 합창분야는 활발한 활동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한라문화제(제주예술제, 탐라문화제로 변경)음악제를 중심으로 합창제 및 학생음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음악제가 개최되었고, 도내·외에서 개최된 음악경연대회와 교회음악 중심의 합창분야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다. 특히 김국배<sup>92)</sup>에 의해 제주도 민요가 다양한 편곡으로 합창 및 관악연주 등 현대화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93)</sup>

제주지역 합창음악의 발전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교회음악과 중·고교에서의 음악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부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제주음악인들의 초기 기획과 행정기관의 후원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대규모의 음악축제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990년 제주도가 주최하고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가 주관하는 ‘탐라합창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탐라합창제는 이후 매해 진행되면서 제주도 음악인의 가장 큰 음악행사로써 지역의 합창음악과 성악분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제주국제합창제는 탐라합창제를 모태로, 제주음악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이 매칭되어 탄생된 음

92) 1912년 9월 13일 전남 목포 출생. 제주가 고향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목포에서 초·중 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숭실전문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였다. 졸업후 현재의 한국교향악단의 효시인 경성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1948년 제주에 정착하였다. 1949년 3월부터 제주중학교에 음악교사로 부임하여 관악대를 지도하며 선무공작대의 음악부장으로 활동하였고 1951년 6월부터 1963년 2월말까지는 제주여자중·고등학교에 재직하며 제주역사상 전무하였던 합창 및 뮤지컬과 오페라공연도 개최하였다. 그는 제주도 민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제주도의 대표적 민요인 오돌또기를 편곡·보급하였으며 1962년에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를 창립하는데 기여하였고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초창기 제주도 음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64년 제3회 제주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93)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 60년사(제주음악사), p.53.



악축제이다.

2001년에 시작된 제주국제합창제는 최초 개최당시 탐라전국합창축제로 진행되다가 2008년부터 제주국제합창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주국제합창제는 한국 합창의 활성화와 제주 문화관광산업에 기여하고자하는 목표 아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합창제조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를 대표하는 합창경연과 창작곡 및 성악중심의 음악축제이다.

참가인원을 보면, 매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합창단이 20여개 단체와 가족 및 음악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1,000여명의 외부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도내 합창단 또한 약 15개 단체 약 800여명이 참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국제규모의 합창제로 추진되어 매해 약 6개국 500여명의 외국 음악인이 방문하면서 지역경제효과는 물론,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국내·외로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축제개요는 <표 4-14>와 같다.

<표 4-14> 제주국제합창제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명 칭	제주국제합창제
주 제	섬에서 부르는 화합, 평화, 희망의 합창
기 간	매년 7월(5일간)
장 소	제주문예회관, 제주해변공장, 서귀포시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등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주 관	제주국제합창제조조직위원회
위 상	2001년 시작하여 성인아마추어 합창경연대회, 창작곡 발표회, 야외공연을 동시에 개최하는 제주의 음악축제이다.
주요 행사	성인아마추어 합창경연대회, 전문합창단 및 아마추어합창단 공연, 국내·외 합창단 공연, 창작곡 경연대회 및 발표회, 어린이합창단공연, 합창관련 심포지엄 및 세미나



## 2. 발전과정

2001년 최초 개최 당시에는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가 주관하면서 그 후 매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착되었다. 제1회 축제에서는 성인 아마추어 합창연대와 전문합창단의 실내·외 공연이 주요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제2회 축제인 2002년에는 창작합창곡경연대회와 창작합창곡발표회가 신설되면서 창작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는 창작합창곡을 음반으로 제작하여 전국의 클래식음악전문 라디오 등을 통하여 보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5년부터는 가곡의 활성화를 목표로 창작가곡경연대회와 창작가곡발표회가 신설되었고 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가 추진되었다. 또한 축제의 운영주체가 2005년부터 변화되는데 기존의 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의 주관에서 합창제조직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여 이후부터 주관하였다.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중에 과도한 경연대회는 축제의 본질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2007년에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전체 4개 경연대회(성인합창경연대회, 창작합창곡경연대회, 창작가곡경연대회, 어린이합창경연대회)중 성인합창경연대회만 존속시키고 창작합창곡경연대회와 어린이합창곡경연대회는 폐지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는 아마추어합창경연대회만 계속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연대회는 폐지하되 창작곡에 대한 발표회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작곡경연대회 대신 국내·외의 유명 작곡가에게 제주를 소재로 한 창작곡을 위촉하고 제주와 연관된 시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 제주의 노래를 제작하여 음반제작과 악보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제주국제합창제로 규모 확대와

함께 행사명을 변경하고 주관처인 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꾀하였다. 이후 2009년 제9회 축제까지 개최하고 2010년에는 개최하지 못하였다.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는 방만했던 프로그램을 축소시켜 집중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제주를 소재로 한 창작곡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7년간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에게 관심을 끌만한 대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발전적인 행사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sup>94)</sup> 연도별 주요내용은 <표 4-15>와 같다.

<표 4-15> 제주국제합창제 연도별 주요 내용

연 도	주 요 내 용
2001 (제1회)	- 탐라전국합창축제 창설, 7월 22~7월 27일 - 도내 17개 단체, 도외 초청 전문합창단 5개 단체, 약 800여명 출연 - 실내외 공연, 세미나, 합창경연대회 등
2002 (제2회)	- 7월 13일~7월 18일, 창작합창곡 콩쿨 시작 - 합창경연대회 13팀, 축제공연단체 21팀, 성악가 및 약 1,000여명 출연 - 심포지엄, 세미나, 창작합창곡콩쿨 및 발표회 등
2003 (제3회)	- 7월 26일~7월 30일 - 합창경연대회 10팀, 축제단체 16팀, 전문합창단 7팀, 약 1,200여명 출연 - 기본프로그램, 창작합창곡집 제작 및 음반전시
2004 (제4회)	- 7월 17일~7월 20일 - 합창경연대회 14팀, 축제단체 18팀, 전문합창단 6팀, 약 1,250여명 출연 - 기본 프로그램, 창작합창곡집 제작 및 음반전시
2005 (제5회)	- 7월 12일~7월 15일 - 합창경연대회 15팀, 축제단체 18팀, 전문합창단 6팀, 약 1,300여명 출연 - 전국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제1회 전국창작가곡경연대회 및 위촉곡 공연

94)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2007 제주축제 평가백서」 p.240.

2006 (제6회)	- 8월 1일~8월 4일 - 합창경연대회 14팀, 축제단체 19팀, 전문합창단 6팀, 약 1,280여명 출연 - 기본 프로그램, 창작 합창곡집 제작 및 음반전시
2007 (제7회)	- 7월 18일~7월 22일 - 합창경연대회 15팀, 축제단체 20팀, 전문합창단 6팀, 약 1,350여명 출연 - 경연대회를 4개에서 1개로 축소 : 합창경연대회(성인, 어린이)와 창작곡 경연대회(합창, 가곡)의 4개 경연에서 성인합창경연대회만 실시
2008 (제8회)	- 7월 15일~7월 19일 - 합창경연대회 17팀, 축제단체 19팀, 전문합창단 7팀, 약 1,600여명 출연 - 기본 프로그램, 창작합창곡집 제작 및 음반전시, 기획프로그램 - 국제규모로 확대, 외국 음악단체 공연 및 관광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2009 (제9회)	- 7월 15일~7월 19일 - 합창경연대회 16팀, 축제단체 20팀, 전문합창단 7팀, 약 1,800여명 출연 - 기본 프로그램, 창작합창곡집 제작 및 음반전시, 기획프로그램 - 다양한 중창 형태 및 소규모의 공연, 관광지 찾아가는 음악회 등.

### 3. 운영조직과 예산

제주국제합창제의 조직은 2001년 최초 개최 당시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가 주관하면서 협회 임원이 자동으로 축제의 조직위원이 되어 활동하였고 한국음악협회와 한국합창연합회의 회장단은 조직위원회의 당연직 고문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 제3회 축제부터 탐라전국합창축제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와 공동주관하였고 조직의 구성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2005년에 사무국 조직이 일부 상설로 변화되었고 2006년부터는 축제 조직위원회가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주관하였다. 축제 조직위원회가 단독으로 주관하면서 사업의 진행속도나 운영이 매우 발전적으로 진행되었고 예산의 집행, 프로그램의 기획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집행되었다.

이러한 조직은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더욱 짜임새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였고 국제규모로 확대되면서 ‘제주국제합창제’로 행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국고 보조금의 규모나 지자체의 지원규모가 확대되었고 참가단체 또한 외국단체가 포함되면서 음악인 출연자가 1,700여명에 달하였다.

조직위원회는 크게 2개 부분으로 구분되었는데 합창제의 큰 틀을 결정하고 전반적인 운영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로 구분되었다. 운영위원회는 다시 음악을 전공하여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및 고문단으로 구성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전국규모의 합창연합회 및 한국음악협회와 작곡가협회 등 음악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자문위원과 고문단은 도내·외 언론사 임원, 관련 학계교수로 구성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지원단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었는데 지원단은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의 문화예술과의 담당자 또는 예술단의 단무장으로 구성되었고 사무국은 축제 초창기부터 본 축제의 실무를 담당하여온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실무의 대부분은 사무국에서 이루어졌고 행사 약 3개월 전부터 사무국(약 3명)이 상근으로 가동되었으나 안정적인 운영은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의 『2007 제주축제 평가백서』의 평가내용을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준비기간이 1년이지만 조직이 상설로 운영되지 않았고 도외에서 참가한 경연팀의 숫자, 공연장에 모인 관객이 저조한 것으로 보았을 때 축제의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조직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운영 조직도상 제주예총이나 민예총, 제주음악협회 등에서 행사를 지원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도내의 합창인 일부만이 헌신적으로 참여했을 뿐 전반적인 음악인들의 참여

가 미비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sup>95)</sup>

재정운형을 보면 2001년 첫회는 지자체로부터 1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2002년에는 경륜사업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이었다가 2003년에는 다시 지자체예산 1억원으로 운영되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지자체 예산 1억 5,000만원으로 운영되었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연속 정부에서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지자체에서도 1억 3,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승되어 행사 총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부터는 국제규모의 축제로 확대되면서 예산 또한 지자체에서 1억 5,000만원과 국비에서 2억원의 예산으로 총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지자체와 국비 각 2억원으로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증가하였다. 제주국제합창제 연도별 예산은 <표 4-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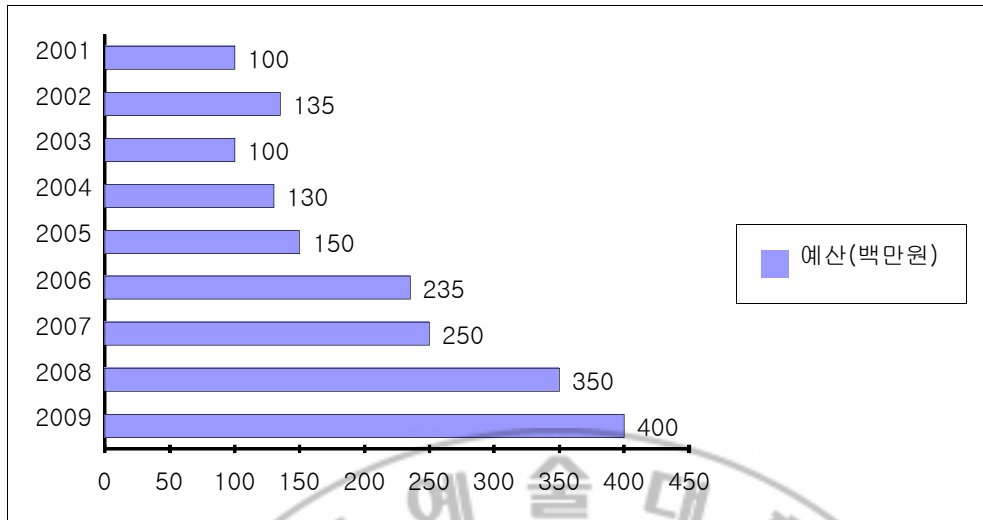
<표 4-16> 제주국제합창제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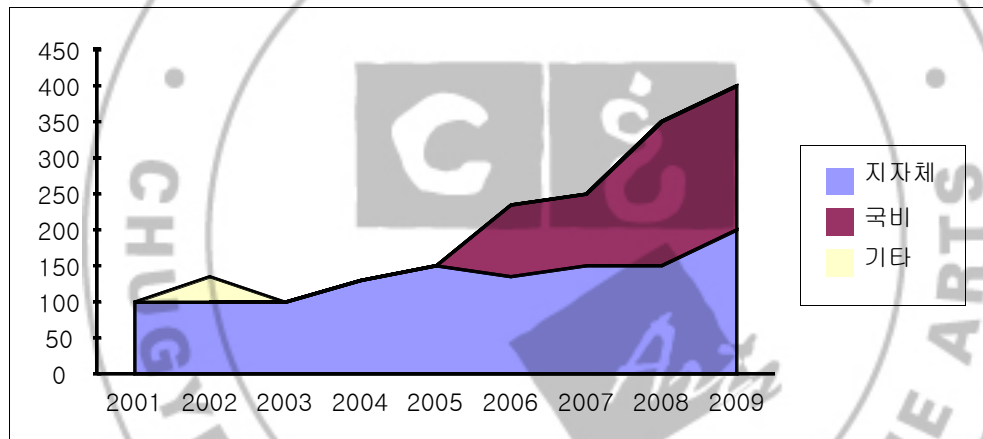
연도	예산구성			
	합계	지자체	국비	기타
2001	100	100		
2002	135	100		35
2003	100	100		
2004	130	130		
2005	150	150		
<b>2006</b>	<b>235</b>	<b>135</b>	<b>100</b>	
2007	250	150	100	
2008	350	150	200	
2009	400	200	200	

※ 출처 : 제주국제합창제조직위원회 자료 재정리.

95)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2007 제주축제 평가백서」 p. 239.



<그림 4-10> 제주국제합창제 연도별 예산도



<그림 4-11> 제주국제합창제 연도별 예산 분포도<sup>96)</sup>

96) 제주국제합창제의 예산분포를 보면, 지방비와 국비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 국제규모의 음악축제와 비교하였을 때 예산확보의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은행과의 기업협찬은 지역의 기업메세나 차원의 벤치마킹사례이고, 기업의 협찬 및 입장권 수입, 합창 및 성악과 관련된 음악업체와의 스폰서를 통한 재원확충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4. 운영성과

제주국제합창제조직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첫회에 900여명의 음악인이 참가하였고 2003년부터는 어린이 합창단의 참가로 매해 1,200여명 이상의 출연자가 참여하고있다. 국제규모의 축제로 확대된 2008년에는 경연대회, 솔리스트 연주자, 성악가, 시인, 작곡자, 동반자 등 약 1,600여명의 음악인 및 관계자의 참여로 축제 참가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7년까지 전국규모의 축제에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매우 제한되었으나, 2008년 국제규모의 행사로 확대되면서 예산의 증가와 행사 규모의 확대로 외국인의 참여가 증가하여 음악을 통한 제주의 홍보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합창경연대회의 참가와 전문합창단 초청 공연만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후 제주관광을 패키지로 넣고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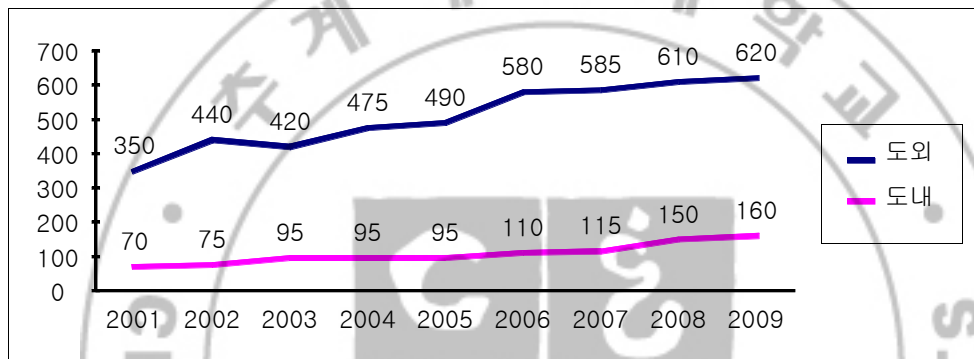
참가자 현황을 보면 2006년까지 총 6회를 거치면서 2001년부터 시작한 성인합창경연대의 참가단체는 평균 13팀이고, 2005년부터 시작한 어린이합창경연대회는 평균 5팀으로 약 250여명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창작곡(가곡, 합창곡)에 위촉한 작곡가와 작사자(시인 등)는 매해 약 11명에서 18명으로 파악되었다. 초청 단체는 매해 평균 12개 단체를 초청하였고, 축제 관련 음악가 및 예술가를 매해 25명에서 35명을 초청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엔 창작합창곡 경연대회가 추가되면서 시인과 작곡가와 성악가가 특별출연하게 되면서 약 50여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였고, 2005년부터 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와 합창발표회가 추가되면서 어린이 약 250여명과 보호자 약 100여명이 동반 참여하는 효과를 보았다. 제주국제합창제 참가인원의 세부내용은 <표 4-17>, <그림 4-12>, <그림 4-13>과 같다.

<표 4-17> 제주국제합창제 참가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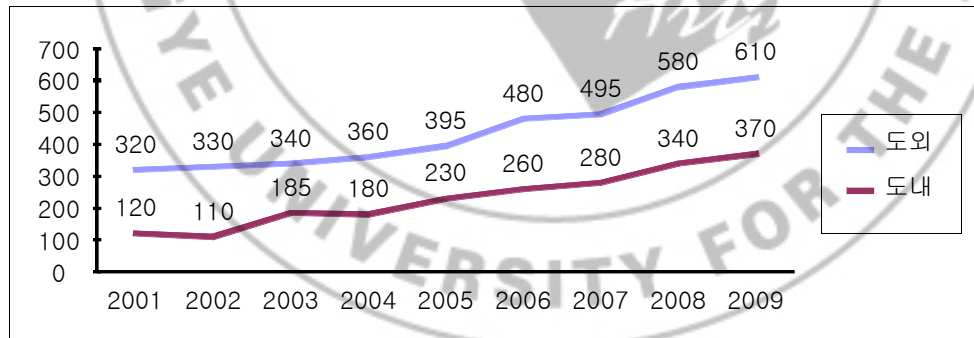
단위 : 연도 / 인원(수)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창경연대회 창작곡발표회	도외	350	440	420	475	490	580	585	610	620
	도내	70	75	95	95	95	110	115	150	160
초청단체 및 개인	도외	320	330	340	360	395	480	495	580	610
	도내	120	110	185	180	230	260	280	340	370
총 계		860	955	1,040	1,110	1,210	1,420	1,475	1,630	1,760

※ 출처 : 제주국제합창제 조직위원회 자료 재정리.



<그림 4-12> 제주국제합창제 출연자 현황(경연대회)



<그림 4-13> 제주국제합창제 출연자 현황(초청단체)

제주국제합창제의 특징은 매해 성인 아마추어 합창경연대회를 기본으로, 제주를 소재로 한 시를 바탕으로 전문작곡가에게 의뢰하여 제주노래를 창작해 가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매해 약 1,700여 명의 음악인(도외 평균 900여명)이 참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제 규모로 확대되어 외국 관광객 유입 효과도 매우 높아졌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국제합창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시를 바탕으로 창작곡을 만들고 음반 제작을 통하여 제주를 알리는 작업을 한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 받았다.<sup>97)</sup> 그러나 2007년 평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더욱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행사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체적이고 폭넓은 홍보, 이벤트 차원에서의 공연 및 행사 유치, 지역 사회의 교수 및 교사들과의 협조체계구축, 인터넷을 통한 감상 공간의 확보 등이 요청되며, 제주가 가진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미약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과 자연이 어루러지는 종합예술적인 개념이 현재보다 더 많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평가되었다.<sup>98)</sup> 이러한 평가이외에 외부지역 음악전문가와 지역의 음악애호가 및 행정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 행사의 정책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추미경은 이 축제가 국제 규모의 축제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축제의 정체성,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전국 규모의 축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축제 조직으로서의 운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97) 예술경영지원센터, 「2006 국고 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 결과」, p.119.

98) 예술경영지원센터, 전게서, p.183.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합창축제에 대한 예술감독과 프로그램 기획을 전담할 전문 인력의 구조, 축제 운영의 합리성과 체계성을 구축하기 위한 축제 운영감독 또는 사무국장의 구조, 기술적 부분에서의 전문성, 축제 행사장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이 분화되어 체계화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전국적, 국제적 규모로 확장될수록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인력도 전문화를 강조하였다.<sup>99)</sup>

우지숙에 의하면, 제주국제합창제가 나아갈 방향은 ‘제주를 대표하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문화상품으로의 육성’이라고 강조하였다. 프로그램면에서는 전문성과 더불어 대중성을 안고 가야하는 과제도 있고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지키는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강문철은 제주를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는 창작곡에 대한 중요성과 타 지역의 축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대하여 타 지역의 기업메세나처럼 기업에서 문화예술 단체 또는 행사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제주은행에서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에 매해 기업메세나의 일환으로 광고비를 기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본 합창제의 경우도 기업메세나의 형식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제작되어진 제주의 노래 음반을 재정비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저작권등록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본 합창제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전반적으로 재원확보와 축제참여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sup>100)</sup>

99) 추미경(다움문화예술기획 연구회 상임이사,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2007 탐라전국합창 축제 정책세미나, 2007년 7월 16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100) 강문철(제주국제합창제조직위원회 위원장), 우지숙(제주국제합창제조직위원회 부위원장), 2007 탐라전국합창축제 정책세미나, 2007년 7월 16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 제5장 조사설계와 활성화요인 분석

### 제1절 연구의 설계

#### 1. 연구의 과제

본 연구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의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운영현황과 파급효과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여 활성화요인을 찾아내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내·외 음악축제의 활성화요인을 연구하였고 제주지역 국제규모의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활성화요인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본 논문의 연구의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연구를 통해 국내·외 활성화된 음악축제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요인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활성화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실증분석을 통해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제주지역 음악축제 인지여부, 참가경험, 참가동기와 불참이유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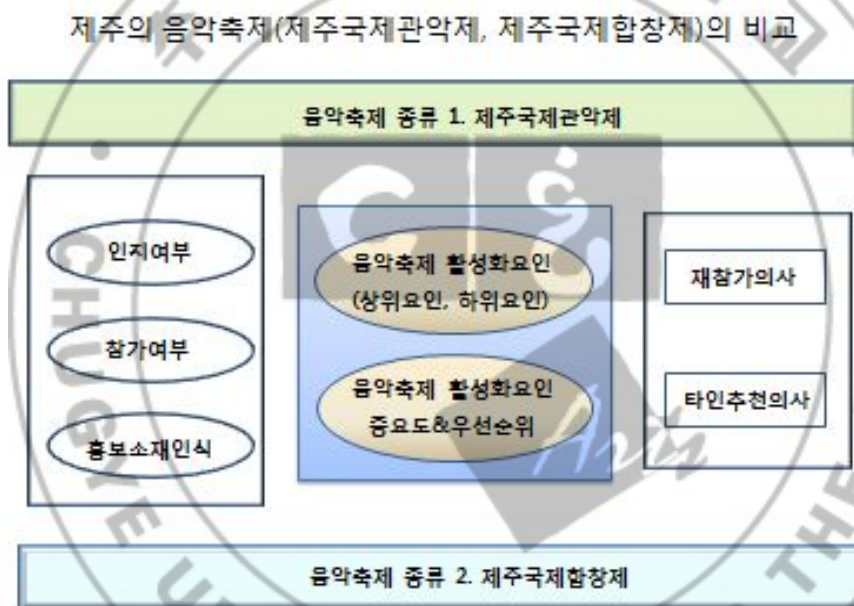
셋째, 실증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음악축제 활성화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넷째, 실증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음악축제를 국내외로 홍보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인식차이를 각 축제별로 조사하였다.

다섯째, 실증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대한 재 참가의사와 타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2. 연구의 모형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제주지역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이 음악축제의 종류, 음악축제의 인지, 참가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이 재 참가의사와 타인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와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이다. 특히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를 비교 분석하여 활성화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연구의 모형



## 제2절 조사의 설계

### 1. 조사의 개요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한 모집단 선정은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도내·외 음악축제 전문가를 선정하여 편의표본추출을 사용해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은 도내·외에서 음악축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음악단체, 언론사, 학계 등으로 한정하였다. 음악단체는 제주도내의 공립예술단체인 제주도립교향악단, 서귀포관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합창단을 선정하였고, 언론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문사, 지역케이블방송국의 문화부 담당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학계에서는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의 음악학과 관악교수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관악단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의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술가는 제주예총 공연분야인 연극협회, 무용협회의 회원과 기타 예술인을, 공무원은 제주도청,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직원과 음악축제와 관련된 행정부서의 직원과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표본 단체는 <표 5-1>과 같다.

<표 5-1> 설문 표본 단체

구분	단체명	대상	설문부수
음악 단체	제주도립교향악단	15	10
	서귀포시립관악단	15	14
	제주도립합창단	15	13
	서귀포시립합창단	15	13
언론사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도민일보 제주의소리, 미디어제주, 케이블방송국	11	11

교수	제주대, 한라대, 관광대	4	4
교사	중학교 및 고등학교	20	20
음악인	관악협회, 성악협회, 대학생 <sup>101)</sup>	45	39
예술가	제주예총 회원 단체	15	15
공무원	행정, 제주문화예술재단	10	9
축제 집행부	관악제 조직위원회	15	15
	합창제 조직위원회	15	15
일반	일반	5	2
합 계		200	180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설문지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고, 본 조사는 2011년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80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가운데서 부분적 무응답 설문지와 무의미한 설문 39부를 제외한 141부(유효 표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음악인(관악협회, 성악협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 응답지는 음악단체의 대상자와 중복된 응답자를 표본에서 제외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 의뢰 및 회수현황은 <표 5-2>와 같다.

<표 5-2> 설문지 의뢰 및 회수 현황

구분	대상	설문지 의뢰 수	회수된 설문지수	결측,무응 답자수	최종분석 설문지수
음악 단체	제주도립교향악단	15	10	2	8
	서귀포시관악단	15	14	1	13
	제주도립합창단	15	13	2	11
	서귀포시합창단	15	13		13

101) 대학생은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의 음악학과 학생중에 제주의 음악축제에 자원봉사자로 3년 이상 활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복되는 음악인은 제외함.

언론사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도민일보, 제주의소리 미디어제주, 케이블 티브	11	11		11
교수	제주대, 한라대, 관광대	4	4		4
교사	중학교 및 고등학교	20	20		20
음악인	관악협회, 성악협회, 대학생	45	39	33	6
예술가	제주예총회원	15	15		15
공무원	도청, 시청, 재단	10	9		9
집행부	관악제 조직위원회	15	15		15
	합창제 조직위원회	15	15	1	14
일반	일 반	5	2		2
합 계		200	180	39	141

## 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설문의 구성은 제주의 음악축제에 대한 인지여부와 참여경험, 참가 동기와 참여하지 못한 동기, 음악축제의 활성화요인에 대한 평가로 구성하였다. 제주 지역 음악축제의 성과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활성화 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고, 제주의 음악축제를 국내·외로 홍보를 위한 소재의 인식에 대한 질문과 제주의 음악축제에 대한 재 참가의사 및 타인 추천의사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지의 문항은 64개이고, 구성과 설문내용은 <표 5-3>과 같다.

<표 5-3> 설문 구성 내용

문항구분		설문 내용	항목수	척도
Part I	제주국제 관악제	1. 인지 여부(안다, 모른다) 2. 참여 경험(참여, 불참)	2	명목
	제주국제 합창제	1. 인지 여부(안다, 모른다) 2. 참여 경험(참여, 불참)		

Part II	제주지역 음악축제	1. 참가 동기 2. 참여하지 못한 이유	2	명목
Part III	제주국제관악제 평가	1.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2.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3.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4. 자원 및 조직 요인 5. 사회 기여도 요인	25	5점 리커트 척도 102)
	제주국제합창제 평가	1.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2.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3.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4. 자원 및 조직 요인 5. 사회 기여도 요인	25	5점 리커트 척도
Part IV	제주국제관악제	1. 홍보 소재 인식	1	명목
	제주국제합창제	1. 홍보 소재 인식	1	명목
Part V	제주국제관악제	1. 재 참가 의사 2. 타인 추천 의사	2	명목
	제주국제합창제	1. 재 참가 의사 2. 타인 추천 의사	2	명목
일반적 특성		1. 성별 2. 연령 3. 지역 4. 종사분야	4	명목 비율

설문내용 Part III에서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을 5가지 상위요인과 각 요인별 5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활성화요인을 설정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표 5-4>의 하위요인 내용과 같다.

### 3.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 1) 타당성 분석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개념타당성 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 직각 회전 방식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이 6개가 형성되어 개념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성분1의 설명량은 21.889, 성분2는 16.88, 성분3은

102) 매우잘됨 5점, 잘되고있음 4점, 보통이다 3점, 잘안됨 2점, 매우 잘안됨 1점.

13.48, 성분4는 8.632, 성분5는 8.425, 성분6은 7.114로 나타났다. 누적설명양이 76.421로 전체적인 설명양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복 적재요인이 많아 추가로 중복 적재요인을 제거하면서 요인분석을 반복 실시하였다.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타당성 분석표는 <표 5-4>와 같다.

<표 5-4>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 타당성 분석표

하위요인	성분					
	1	2	3	4	5	6
전문가의 축제기획 및 외부평가	0.889	0.078	0.079	0.15	0.09	-0.135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	0.857	0.048	0.105	0.184	0.148	-0.132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0.826	0.063	0.148	-0.259	0.153	0.006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0.78	-0.376	0.07	0.144	0.047	0.284
행사진행 및 각종 서비스개선	0.725	-0.24	0.115	0.24	0.027	0.14
다양한 홍보 전략개발	0.674	0.031	0.07	0.042	0.302	0.081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0.659	0.524	0.053	0.23	-0.005	0.173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	0.629	-0.16	0.002	0.114	0.402	0.183
관련 인쇄물(외국인용 책자 등) 제작	-0.193	0.904	0.013	0.119	0.052	0.041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개발	0.247	0.81	0.009	0.057	0.147	0.153
전문 공연장 확충	-0.174	0.801	0.197	0.206	-0.036	0.099
관련 교육 기관(학과 등) 설립	-0.246	0.737	0.386	0.21	0.007	0.138
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	0.231	0.152	0.865	0.215	0.105	-0.046
숙박, 교통, 편의시설 확충	0.22	0.115	0.864	0.214	0.152	0.075
축제장으로의 접근 편의성	0.123	0.477	0.651	-0.17	0.197	0.07
재정 자립도 향상	0.365	0.214	-0.646	0.22	0.113	0.26
재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0.155	0.397	0.562	0.188	0.344	0.203
후원회 조직 및 효율적 운영	0.321	0.111	0.515	0.508	0.074	0.221
운영 조직의 상설화	0.197	0.345	0.094	0.739	0.131	0.063
전문 인력 양성	0.187	0.177	0.169	0.711	0.419	0.12
경제적 파급 효과	0.218	0.03	0.106	0.208	0.795	-0.018
관광객 유치 효과	0.28	0.063	0.224	0.334	0.622	0.215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0.276	0.485	0.21	-0.317	0.571	0.206
국제적 자유도시 홍보 효과	0.059	0.084	-0.104	0.098	0.151	0.851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0.043	0.412	0.217	0.073	0.017	0.72
<b>고유 값</b>	<b>8.195</b>	<b>4.674</b>	<b>2.302</b>	<b>1.564</b>	<b>1.275</b>	<b>1.094</b>
<b>설명 량</b>	<b>21.889</b>	<b>16.88</b>	<b>13.48</b>	<b>8.632</b>	<b>8.425</b>	<b>7.114</b>
<b>누적 설명량</b>	<b>21.889</b>	<b>38.769</b>	<b>52.249</b>	<b>60.882</b>	<b>69.307</b>	<b>76.421</b>

## 2) 신뢰도 분석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Cronbach alpha test)를 진행한 결과 신뢰도계수가 성분1이 0.905, 성분2가 0.828, 성분3이 0.934, 성분4가 0.779, 전체가 0.814로 나타났다. 신뢰도계수 임계치가 Nurally가 언급한 신뢰도 한계 0.5~0.6을 넘어 개념의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에 대한 개념타당도와 개념신뢰도가 모두 잘 나와 연구 도구의 개발은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신뢰도 분석표의 하위요인에 대한 세부 분석내용은 <표 5-5>와 같다.

<표 5-5>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신뢰도 분석표

내 용	성분				
	1	2	3	4	5
재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0.915	0.032	0.126	0.189	-0.112
재정 자립도 향상	0.892	0.001	0.141	0.269	-0.074
후원회 조직 및 효율적 운영	0.871	-0.075	0.142	-0.03	0.223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0.124	0.933	0.003	0.108	0.092
관광객 유치 효과	-0.122	0.829	0.28	-0.012	0.085
국제적 자유도시홍보 효과	0.271	0.801	-0.007	0.17	0.248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0.188	0.133	0.931	0.16	0.047
다양한 홍보 전략 개발	0.172	0.084	0.896	0.239	0.13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0.118	0.212	0.213	0.876	-0.055
행사 진행 및 각종 서비스 개선	0.241	0.006	0.19	0.814	0.264
축제장으로서의 접근 편의성	-0.008	0.353	0.157	0.142	0.864
<b>고유 값</b>	4.044	2.568	1.311	0.979	0.708
<b>설명 량</b>	23.931	21.824	17.368	15.295	8.948
<b>누적 설명량</b>	23.931	45.755	63.123	78.417	87.365
<b>Cronbach의 알파</b>	0.905	0.828	0.934	0.779	
<b>전체 Cronbach의 알파</b>	0.814				



### 제3절 실증분석 결과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결과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68.1%, 여자 31.9%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20대 이하 2.8%, 30대 이하 31.2%, 40대 이하 41.1%, 50대 이하 22%, 60세 이상 2.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제주도민 90.1%, 제주도 외인 9.9%로 나타났으며, 종사분야별로 예술인 10.6%, 언론인 7.8%, 음악인 36.2%, 음악축제 집행부 20.6%, 행정가 6.4%, 학계 전문가 17%, 기타 1.4%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은 <표 5-6>과 같다.

<표 5-6>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분석표

구분	내용	빈도	백분비
성별	남	96	68.1%
	여	45	31.9%
연령	20대 이하	4	2.8%
	30대 이하	44	31.2%
	40대 이하	58	41.1%
	50대 이하	31	22.0%
	60세 이상	4	2.8%
지역	제주도민	127	90.1%
	제주도 외인 <sup>103)</sup>	14	9.9%
종사분야	예술인	15	10.6%
	언론인	11	7.8%
	음악인(대학생 포함) <sup>104)</sup>	51	36.2%
	음악축제 집행부(실무자 및 임원)	29	20.6%
	행정가(공무원, 연구사 등)	9	6.4%
	학계 전문가(교수, 교사 등)	24	17.0%
	기타(일반인, 관광객 등)	2	1.4%

## 2. 음악축제 종류별 교차분석

### 1) 인지도

음악축제 종류별 인지도에 대해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안다는 100%로 나타났으며, 제주국제합창제는 모른다가 0.7%, 안다가 99.3%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5-7>과 같다.

<표 5-7> 음악축제 종류별 인지도 분석표

내 용	음악 축제 종류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합창제
모른다	0(0%)	1(0.7%)
안 다	141(100%)	140(99.3%)
합 계	141(100%)	141(100%)

음악축제 종류별 인지도 교차분석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예술문화축제가 전무하였던 제주에 1995년에 시작되어 15년 이상 진행되어진 축제로 다양한 홍보와 직·간접적인 참여로 제주도민이 느끼는 인지도는 매우 높다. 특히 초·중·고교 관악대의 연주활동과 청소년시절부터 제주국제관악제에 연주단원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참가를 하는 등 참여의 기회가 많은 반면, 제주국제합창제는 2001년에 시작된 축제로서 청소년 시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으로서, 관악제에 비해 홍보나 도민의 인식차원에서 열악하였기 때문에 인지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있다.

103) 한국음악협회, 한국합창연합회 소속 임원으로서 참가 경험이 있는 자.

104) 대학생은 3년 이상 자원봉사자 경험 있는자만 유효 표본으로 인정.

## 2) 참가경험

음악축제 종류별 참가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우 불참이 8.5%, 참여가 91.5%로 나타났으며, 제주국제합창제의 경우 불참이 22.7%, 참여가 77.3%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5-8>과 같다.

<표 5-8> 음악축제 종류별 참가경험 분석표

내 용	음악 축제 종류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합창제
불 참	12(8.5%)	32(22.7%)
참 가	129(91.5%)	109(77.3%)
합 계	141(100%)	141(100%)

음악축제 종류별 참가 경험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참여도를 보면 합창제가 관악제보다 불참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민의 인식이 합창보다는 관악분야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기 때문이다. 관악제의 특성상 실내공연은 물론 실외공연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거리시가행진이나 관광지 찾아가는 관악연주회 등의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방송국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음악회 프로그램 방송은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주국제합창제는 실외공연보다 실내공연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합창의 특성상 공연관람을 위해 관객이 직접 방문해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제주국제합창제는 관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 또는 야외나 야외 관광지 및 대중 집결지에서의 공연을 통해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 3) 참가 동기

제주지역 음악축제 참가 동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업무관련 31.3%, 음악활동관련 53.4%, 휴가관련 0.8%, 기타(관광, 문화체험 등)가 14.5%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5-9>와 같다.

<표 5-9> 음악축제 참가동기 분석표

내 용	제주지역 음악축제
업무관련	41(31.3%)
<b>음악활동관련</b>	<b>70(53.4%)</b>
휴가관련	1(0.8%)
기타(관광, 문화체험 등)	19(14.5%)
합 계	131(100%)

음악축제 종류에 따른 참가 동기에 분석결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참가한 동기를 보면 음악활동을 위해서와 업무관련으로 대부분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설문 응답자가 음악축제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보다 많은 참가를 위해서는 제주도내·외의 음악인 또는 단체의 참가수를 확대하고 참가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음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4) 불참여유

음악축제의 종류에 따른 불참여유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제주국제관악

제는 관심이 없어서 10%, 정보를 몰라서 40%, 시간이 없어서 50%로 나타났으며, 제주국제합창제는 관심이 없어서 30%, 정보를 몰라서 10%, 시간이 없어서 50%, 기타 10%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5-10>과 같다.

<표 5-10> 음악축제 종류별 불참 이유 분석표

내 용	음악 축제 종류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합창제
관심이 없어서	1(10%)	3(30%)
<b>정보를 몰라서</b>	<b>4(40%)</b>	1(10%)
불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0(0%)	0(0%)
<b>시간이 없어서</b>	<b>5(50%)</b>	<b>5(50%)</b>
교통이 불편해서	0(0%)	0(0%)
기 타	0(0%)	1(10%)
합 계	10(100%)	10(100%)

음악축제 종류별 불참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에 불참이유 중 시간이 없어서와 정보를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가 높게 분석되었는데 시간이 없는 이유와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자는 각 음악축제별 전문가의 개인적인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관악제나 합창제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음악축제의 특성상 일부 응답자의 경우 관심분야에 대한 축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제주국제관악제의 정보를 몰라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관심이 없어서는 홍보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축제의 홍보강화와 사전 교육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참가기회를 확대하고 관악제와 합창제를 독립적으로 홍보하는 방법과, 제주의 음악축제로 함께 묶어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 5) 홍보소재 인식차이

제주지역 음악축제를 세계에 알리는 소재 인식 차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우 제주의 자연환경에 관한소재 21.3%, 제주의 신화에 관한소재 16.3%, 제주의 고유한 언어에 관한소재 3.5%, 제주의 민요에 관한소재 5%,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53.9%로 나타났으며, 제주국제합창제의 경우 제주의 자연환경에 관한소재 14.9%, 제주의 신화에 관한소재 27%, 제주의 고유한 언어에 관한소재 9.9%, 제주의 민요에 관한소재 43.3%,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5%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5-11>과 같다.

<표 5-11> 음악축제 종류별 홍보소재 인식차이 분석표

내 용	음악 축제 종류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합창제
제주의 자연환경에 관한 소재	30(21.3)	21(14.9)
제주의 신화에 관한 소재	23(16.3)	38(27)
제주의 고유한 언어에 관한 소재	5(3.5)	14(9.9)
<b>제주의 민요에 관한 소재</b>	7(5)	<b>61(43.3)</b>
<b>시가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b>	<b>76(53.9)</b>	7(5)
합 계	141(100)	141(100)

음악축제 종류별 홍보소재 인식차이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관악제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거리 시가행진 및 야외관광지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연환경에 관한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한다. 관악제의 특성상 합창제에 비해 음악적 수준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실내연주 보다는 야외연주에 적합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관악제의 홍보수단으로는 시각적 효과를 표출할 수 있는 거리시가행진 및 관광지에서의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천혜의 관광지인 제주에서 적합한 음악축제이고 제주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제주국제합창제는 제주민요와 제주의 신화에 관한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합창제의 특성상 합창제는 인성을 활용한 무대공연으로서 관악제에 비해 시각적인 효과보다 청각적인 효과를 우선하고 실내연주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합창제는 제주의 고유한 신화와 독특한 제주민요를 소재로 한 오페라, 뮤지컬 등 언어를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재창작 프로그램 등은 제주를 세계로 알리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 3.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평가분석

#### 1) 종합평가 분석

제주지역 음악축제 2가지를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활성화요인의 평가분석 결과, 전문가의 축제기획 및 외부평가 3.56±0.67점,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한 기획 3.1±0.95점, 연계 관광상품개발 2.24±0.63점,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3.06±0.66점, 행사진행 및 각종 서비스개선 3.1±0.64점, 다양한 홍보전략개발 3.07±0.92점, 관련행사 글로벌네트워크구축 2.93±0.93점,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 2.83±0.72점, 관련 인쇄물(외국인용 책자 등) 제작이 2.98±0.58점,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개발 2.01±0.75점, 전문공연장

확충 2.41±0.88점, 관련 교육 기관(학과 등) 설립 1.63±0.89점, 학생 수요층 및 일반애호가육성 2.7±0.76점, 숙박·교통·편의시설 확충 3.66±0.73점, 축제장으로서의 접근 편의성 3.84±0.53점, 재정자립도 향상프로그램 개발 2.26±0.66점, 재원확보 프로그램개발 2.22±0.64점, 후원회 조직 및 효율적 운영 2.27±0.67점, 운영 조직의 상설화 3.19±0.83점, 전문인력 양성과 안정된 조직 확보 2.79±0.68점, 경제적 파급효과 4.16±0.95점, 관광객 유치효과 4.23±0.99점,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4.57±0.77점, 국제적 자유도시 홍보효과 3.85±0.59점,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3.11±0.67점으로 나타났다. 음악축제별 활성화 요인 평가분석결과는 <표 5-12>와 같다.

<표 5-12>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 평가분석표

내 용		N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전문가의 축제 기획 및 외부 평가	282	1	5	3.56	0.67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	282	1	5	3.10	0.95
	연계 관광 상품의 개발	282	1	4	2.24	0.63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82	1	5	3.06	0.66
	행사 진행 및 각종 서비스 개선	282	1	5	3.10	0.64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다양한 홍보 전략 개발	282	1	5	3.07	0.92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82	1	5	2.93	0.93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	282	1	5	2.83	0.72
	관련 인쇄물(외국인용 책자 등) 제작	282	1	5	2.98	0.58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개발	282	1	5	2.01	0.75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전문 공연장 확충	282	1	5	2.41	0.88
	관련 교육 기관(학과 등) 설립	282	1	4	1.63	0.89
	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	282	1	5	2.70	0.76
	숙박, 교통, 편의시설 확충	282	2	5	3.66	0.73
	축제장으로서의 접근 편의성	282	2	5	3.84	0.53
재원 및 조직	재정자립도 향상	282	1	5	2.26	0.66
	재원확보 프로그램 개발	282	1	4	2.22	0.64

요인	후원회 조직 및 효율적 운영	282	1	4	2.27	0.67
	운영 조직의 상설화	282	1	5	3.19	0.83
	전문 인력 양성	282	1	5	2.79	0.68
사회 기여도 요인	경제적 파급 효과	282	1	5	4.16	0.95
	관광객 유치 효과	282	1	5	4.23	0.99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282	1	5	4.57	0.77
	국제자유도시 홍보 효과	282	1	5	3.85	0.59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282	1	5	3.11	0.67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 종합평가 분석결과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원 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한다. 또한,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한다. 제주는 지역 특성상 대기업과 후원조직 시스템의 부재로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문화가 열약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 또는 국제적인 후원회조직 및 악기점 또는 음악관련 외국기업의 후원금 확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또한 제주어를 활용한 창작곡과 제주의 민요를 소재로 관악과 합창음악으로 편곡하는 등 제주의 고유한 예술적 소재를 음악축제와 접목하여 지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장르의 편곡을 통해 제주를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 2) 제주국제관악제 평가분석

제주국제관악제 활성화 요인 평가분석결과를 보면, 전문가의 축제기획 및

외부평 3.91±0.49점,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한 기획 2.6±0.8점,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2.28±0.64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23±0.73점, 행사진행 및 각종 서비스개선 3.27±0.65점, 다양한 홍보 전략개발 3.76±0.6점,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구축 3.57±0.78점, 지역주민인식 및 참여도확보 2.94±0.76점, 관련 인쇄물(외국인용 책자 등)제작 3.11±0.59점,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개발 2.04±0.85점, 전문 공연장확충 2.43±0.97점, 관련 교육 기관(학과 등)설립 1.6±0.87점, 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 2.97±0.69점, 숙박, 교통, 편의시설확충 3.61±0.83점, 축제장 접근편의성 3.93±0.44점, 재정자립도 향상 2.31±0.68점, 재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2.24±0.7점, 후원회 조직 및 효율적 운영 2.34±0.74점, 운영조직의 상설화 3.66±0.71점, 전문 인력 양성과 안정된 조직 확보 2.92±0.6점, 경제적 파급효과 4.5±0.86점, 관광객 유치효과 4.35±0.93점,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4.67±0.71점, 국제적 자유도시 홍보효과 3.96±0.49점,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함양 3.19±0.71점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5-13>과 같다.

<표 5-13> 제주국제관악제 활성화요인 평가분석표

내 용		N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b>전문가의 축제기획 및 외부평가</b>	<b>141</b>	<b>2</b>	<b>5</b>	<b>3.91</b>	0.49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	141	1	5	2.60	0.80
	연계 관광 상품 개발	141	1	4	2.28	0.6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41	2	5	3.23	0.73
	행사 진행 및 각종 서비스 개선	141	2	5	3.27	0.65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다양한 홍보 전략 개발	141	2	5	3.76	0.60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41	2	5	3.57	0.78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	141	1	5	2.94	0.76
	관련 인쇄물(외국인용 책자 등) 제작	141	2	5	3.11	0.59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개발	141	1	5	2.04	0.85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전문 공연장 확충	141	1	5	2.43	0.97
	관련 교육 기관(학과 등) 설립	141	1	4	1.60	0.87
	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	141	1	5	2.97	0.69
	숙박, 교통, 편의시설 확충	141	2	5	3.61	0.83
	축제장으로의 접근 편의성	141	2	5	3.93	0.44
재원 및 조직 요인	개정 자립도 향상	141	1	4	2.31	0.68
	재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141	1	4	2.24	0.70
	후원회 조직 및 효율적 운영	141	1	4	2.34	0.74
	운영 조직의 상설화	141	1	5	3.66	0.71
	전문 인력 양성	141	1	5	2.92	0.60
사회 기여도 요인	<b>경제적 파급 효과</b>	<b>141</b>	<b>1</b>	<b>5</b>	<b>4.50</b>	0.86
	<b>관광객 유치 효과</b>	<b>141</b>	<b>1</b>	<b>5</b>	<b>4.35</b>	0.93
	<b>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b>	<b>141</b>	<b>1</b>	<b>5</b>	<b>4.67</b>	0.71
	<b>국제적 자유도시 홍보 효과</b>	<b>141</b>	<b>1</b>	<b>5</b>	<b>3.96</b>	0.49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141	1	5	3.19	0.71

제주국제관악제 활성화 요인 평가분석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관악제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결과, 사회기여도 요인이 가장 높은 값으로 나왔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객 유치효과, 국제적 자유도시 홍보 효과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주국제관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획 및 프로그램요인이나 인프라 및 접근성요인, 재원 및 조직요인에 비하여 사회기여도 요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축제의 기획이나 집행 등에 있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한다. 특히 외국인 및 도외관광객의 축제 방문 유도를 위해 전국 대도시와 외국 주요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축제의 홍보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의 이미지를 함께 홍보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관람객 유치와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을 위한 제주적인 소재를 활용한 음악프로그램 개발과 음반 제작을 통한 보급 등이 주요한 정책사항이다.

### 3) 제주국제합창제 평가분석

제주국제합창제의 활성화 요인 평가 분석결과를 보면, 전문가의 축제 기획 및 외부평가가 3.21±0.65점,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 3.6±0.83점,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2.21±0.62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89±0.53점, 행사진행 및 각종 서비스개선 2.92±0.59점, 다양한 홍보전략 개발 2.39±0.63점, 관련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28±0.55점, 지역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확보 2.72±0.67점, 관련 인쇄물(외국인용 책자 등)제작이 2.86±0.54점,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개발 1.99±0.64점, 전문 공연장 확충 2.39±0.77점, 관련 교육기관(학과 등) 설립 1.65±0.92점, 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 2.42±0.73점, 숙박, 교통, 편의시설 확충 3.72±0.6점, 축제장으로서의 접근 편의성 3.76±0.6점, 재정 자립도 향상 2.21±0.64점, 자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2.19±0.58점, 후원회조직 및 효율적 운영 2.21±0.59점, 운영조직의 상설화 2.72±0.67점, 전문 인력 양성과 안정된 조직 확보 2.65±0.74점, 경제적 파급효과 3.82±0.93점, 관광객 유치효과 4.11±1.04점,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4.48±0.82점, 국제자유도시 홍보효과 3.75±0.66점,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함양 3.04±0.63점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5-14>와 같다.

<표 5-14> 제주국제합창제 활성화요인 평가분석표

내 용		N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전문가의 축제 기획 및 외부 평가	141	1	5	3.21	0.65
	<b>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b>	<b>141</b>	<b>1</b>	<b>5</b>	<b>3.60</b>	0.83
	연계 관광 상품 개발	141	1	4	2.21	0.62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41	1	4	2.89	0.53
홍보 및	행사 진행 및 각종 서비스 개선	141	1	5	2.92	0.59
	다양한 홍보 전략 개발	141	1	4	2.39	0.63



네트워크 요인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41	1	4	2.28	0.55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	141	1	5	2.72	0.67
	관련 인쇄물(외국인용 책자 등) 제작	141	1	4	2.86	0.54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개발	141	1	4	1.99	0.64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전문 공연장 확충	141	1	5	2.39	0.77
	관련 교육 기관(학과 등) 설립	141	1	4	1.65	0.92
	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	141	1	5	2.42	0.73
	<b>숙박, 교통, 편의시설 확충</b>	<b>141</b>	<b>2</b>	<b>5</b>	<b>3.72</b>	0.60
	<b>축제장으로서의 접근 편의성</b>	<b>141</b>	<b>2</b>	<b>5</b>	<b>3.76</b>	0.60
재원 및 조직 요인	재정 자립도 향상	141	1	5	2.21	0.64
	재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141	1	4	2.19	0.58
	후원회 조직 및 효율적 운영	141	1	4	2.21	0.59
	운영 조직의 상설화	141	1	4	2.72	0.67
	전문 인력 양성	141	1	4	2.65	0.74
사회 기여도 요인	<b>경제적 파급 효과</b>	<b>141</b>	<b>1</b>	<b>5</b>	<b>3.82</b>	0.93
	<b>관광객 유치 효과</b>	<b>141</b>	<b>1</b>	<b>5</b>	<b>4.11</b>	1.04
	<b>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b>	<b>141</b>	<b>1</b>	<b>5</b>	<b>4.48</b>	0.82
	<b>국제적 자유도시 홍보 효과</b>	<b>141</b>	<b>2</b>	<b>5</b>	<b>3.75</b>	0.66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141	1	5	3.04	0.63

제주국제합창제 활성화 요인 평가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합창제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 분석결과 사회기여도 요인이 가장 높은 값으로 나왔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관광객 유치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국제적 자유도시 홍보 효과, 숙박 및 교통등의 편의시설과 축제장으로서의 접근편의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주국제합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획 및 프로그램요인이나 인프라 및 접근성요인, 재원 및 조직요인에 비하여 사회기여도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제의 기획이나 집행 등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지역민의 다양한 참여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외부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의 이미지에 대한 상승효과와 관련된 정책을 중점사항으로 추진해야한다.

#### 4.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다중회귀분석

##### 1) 재 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

###### (1) 제주국제관악제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이 제주국제관악제 재 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실시 결과 회귀식은( $R^2=.47$ ,  $F=23.948$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로 보면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beta=0.464$ ,  $p<.001$ ), 사회기여도요인( $\beta=0.477$ ,  $p<.001$ )이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beta=-0.221$ ,  $p<.05$ )이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체크한 결과 VIF지수가 10이하로 나타나 연구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내용은 <표 5-15>와 같다.

<표 5-15> 제주국제관악제 재 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표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1.749	0.341		5.134	0.000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0.128	0.126	-0.103	-1.017	0.311	0.386	2.594
<b>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b>	0.592	0.127	0.464	4.647	<b>0.000***</b>	0.393	2.543
<b>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b>	-0.282	0.131	-0.221	-2.152	<b>0.033*</b>	0.372	2.69
재원 및 조직 요인	-0.017	0.124	-0.013	-0.137	0.891	0.427	2.345
<b>사회 기여도 요인</b>	0.509	0.076	0.477	6.672	<b>0.000***</b>	0.767	1.304
<b><math>R^2=.47</math>, <math>F=23.948</math>, <math>p=.000***</math></b>							

a 종속변수 : 제주국제관악제 재 참가 의사

b 음악축제종류 : 제주국제관악제

\*\*\* :  $p<0.001$ , \*\* :  $p<0.01$ , \* :  $p<0.05$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상위)이 제주국제관악제 재 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관악제에 재 참가유도를 위해서는 지역음악인이 음악공연 및 음악회의 직·간접적으로 참가하는 예술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축제장소로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 등 축제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시스템 또는 관련 봉사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 유도하는 프로그램 도입과 실행방안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국내에 국한된 홍보에서 벗어나 국내·외 대상의 다양한 홍보 전략과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외부관광객 유치로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지역문화예술이미지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 상승효과를 통해 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한다.

## (2) 제주국제합창제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이 제주국제합창제 재 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2=.437$ ,  $F=20.971$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로 보면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beta=0.193$ ,  $p<.05$ ), 사회기여도 요인( $\beta=0.588$ ,  $p<.001$ )이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체크한 결과 VIF지수가 10이하로 나타나 연구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내용은 <표 5-16>과 같다.

<표 5-16> 제주국제합창제 재 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표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2.176	0.385		5.659	0.000		
<b>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b>	0.31	0.149	0.193	2.076	<b>0.04*</b>	0.481	2.078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0.322	0.182	-0.182	-1.772	0.079	0.395	2.534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0.15	0.13	-0.104	-1.155	0.25	0.516	1.938
재원 및 조직 요인	-0.036	0.116	-0.024	-0.309	0.758	0.671	1.491
<b>사회 기여도 요인</b>	0.649	0.083	0.588	7.813	<b>0.000***</b>	0.736	1.359
<b>R<sup>2</sup>=.437, F=20.971, p=.000***</b>							

a 종속변수 : 제주국제합창제 재 참가 의사

b 음악축제종류 : 제주국제합창제

\*\*\* : p<0.001, \*\* : p<0.01, \* : p<0.05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상위)이 제주국제합창제 재 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합창제에 재 참가유도를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축제기획을 통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음악전문가와 지역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예를 들면 성악과 합창의 장점을 활용한 제주의 고유한 민요나 신화를 바탕으로 재창작한 뮤지컬, 오페라 등 성악과 관련된 작품을 들 수 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방법과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외부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사회에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이미지 상승과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방안을 통해 사회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한다.

## 2) 타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 (1) 제주국제관악제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이 제주국제관악제 타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2=.461$ ,  $F=23.114$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로 보면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beta=0.521$ ,  $p<.001$ ),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beta=-0.374$ ,  $p<.001$ ), 사회기여도 요인( $\beta=0.45$ ,  $p<.001$ )이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인들 사이의 다중 공선성을 체크한 결과 VIF지수가 10이하로 나타나 연구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내용은 <표 5-17>과 같다.

<표5-17> 제주국제관악제 타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2.113	0.363		5.822	0.000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0.048	0.134	0.036	0.357	0.722	0.386	2.594
<b>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b>	0.701	0.136	0.521	5.17	<b>0.000***</b>	0.393	2.543
<b>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b>	-0.504	0.14	-0.374	-3.609	<b>0.000***</b>	0.372	2.69
재원 및 조직 요인	-0.252	0.132	-0.184	-1.905	0.059	0.427	2.345
<b>사회기여도 요인</b>	0.506	0.081	0.45	6.234	<b>0.000***</b>	0.767	1.304
<b><math>R^2=.461</math>, <math>F=23.114</math>, <math>p=.000***</math></b>							

a 종속변수 : 제주국제관악제 타인 추천 의사

b 음악축제종류 : 제주국제관악제

\*\*\* :  $p<0.001$ , \*\* :  $p<0.01$ , \* :  $p<0.05$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이 제주국제관악제 타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관악제를 타인에게 추천하기위한 요인으로는 홍보 네트워크요인, 인프라 및 접근성요인, 사회기여도 요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 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축제장소로의 접근 편의성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의 자원봉사자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외부 관광객 참여 확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야한다.

## 2) 제주국제합창제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이 제주국제합창제 타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2=.515$ ,  $F=28.655$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로 보면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beta=0.198$ ,  $p<.05$ ), 사회 기여도 요인( $\beta=0.619$ ,  $p<.001$ )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beta=-0.256$ ,  $p<.01$ )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체크한 결과 VIF지수가 10이하로 나타나 연구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내용은 <표 5-18>과 같다.



<표 5-18> 제주국제합창제 타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표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2.385	0.387		6.155	0.000		
<b>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b>	0.345	0.151	0.198	2.288	<b>0.024*</b>	0.481	2.078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0.243	0.183	-0.127	-1.329	0.186	0.395	2.534
<b>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b>	-0.401	0.131	-0.256	-3.072	<b>0.003**</b>	0.516	1.938
재원 및 조직 요인	-0.128	0.117	-0.08	-1.098	0.274	0.671	1.491
<b>사회 기여도 요인</b>	0.742	0.084	0.619	8.861	<b>0.000***</b>	0.736	1.359
<b>R<sup>2</sup>=.515, F=28.655, p=.000***</b>							

a 종속변수: 제주국제합창제 타인 추천 의사

b 음악축제종류=제주국제합창제

\*\*\* : p<0.001, \*\* : p<0.01, \* : p<0.05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이 제주국제합창제 타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합창제를 타인에게 추천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과 인프라 및 접근성요인 및 사회기여도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공연장 확충과 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도를 높여야한다. 또한 재정 자립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로 축제 재원확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야한다. 제주는 57만명의 인구에, 매해 약 750만명의 관광객이 입도하여 많은 수익 요건이 관광객에게 맞추어져 있다. 제주지역 음악축제 또한 관광객과 지역민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제주국제합창제의 경우 경연대회의 지정곡을 제주를 소재로 한 작품에 국한하지 않고 작품 선택의 폭을 넓혀 보다 많은 도외 단체의 참가를 유도해야 한다.

### 3) 활성화 요인별 중요도 분석

#### (1) 상위 요인

음악축제 활성화요인 중요도가 음악축제 종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실시결과 회귀식은( $R^2=.463$ ,  $F=47.524$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사회기여도요인 ( $\beta=0.66$ ,  $p<.001$ )이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체크한 결과 VIF지수가 10이하로 나타나 연구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사회적기여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 타 요인들의 설명력을 무효화하는 결과가 나타나 다시 각 요인과 재참가 의사와 타인추천 의사를 통합한 종속변수와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19>와 같다.

<표 5-19> 음악축제 활성화 상위요인 중요도 분석표

활성화 요인 (상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eta$	표준 오차	$\beta$			공차 한계	VIF
(상수)	1.593	0.274		5.809	0.000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0.037	0.063	-0.031	-0.59	0.556	0.701	1.427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0.037	0.041	0.047	0.896	0.371	0.715	1.398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0.028	0.069	0.021	0.402	0.688	0.72	1.389
재원 및 조직 요인	-0.092	0.058	-0.078	-1.588	0.114	0.804	1.244
<b>사회 기여도 요인</b>	0.673	0.053	<b>0.66</b>	12.807	<b>0.000***</b>	0.733	1.364
$R^2=.463$ , $F=47.524$ , $p=.000***$							

\* 종속변수 : 음악축제 종합평가

\*\*\* :  $p<0.001$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요인별 중요도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1순위는 사회 기여도 요인( $\beta=0.66$ ), 2순위는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beta=0.047$ ), 3순위는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beta=0.021$ ), 4순위는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beta=-0.031$ ), 5순위는 자원 및 조직 요인( $\beta=-0.078$ )으로 나타났다.

## (2) 하위 요인

음악축제 활성화 하위요인의 중요도가 음악축제 종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은( $R^2=621$ ,  $F=16.779$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지역의 고유한문화를 소재로 기획(0.17,  $p<.05$ ),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0.352,  $p<.01$ ),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0.169,  $p<.01$ ), 전문 공연장 확충(-0.212,  $p<.01$ ), 축제장으로의 접근 편의성(0.141,  $p<.05$ ), 자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0.323,  $p<.01$ ), 관광객 유치 효과(0.468,  $p<.001$ ),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0.259,  $p<.01$ )가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0.229,  $p<.001$ ), 재정 자립도 향상(-0.362,  $p<.001$ ), 경제적 파급 효과(-0.31,  $p<.01$ )는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체크한 결과 VIF지수가 10 이하로 나타나 연구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5-20>과 같다.

<표 5-20> 음악축제 활성화 하위요인 중요도 분석표

활성화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eta$	표준 오차	$\beta$			공차 한계	VIF
(상수)	1.652	0.293		5.63	0.000		
전문가의 축제기획 및 외부평가	0.045	0.074	0.043	0.604	0.546	0.295	3.391
<b>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b>	<b>0.126</b>	<b>0.049</b>	<b>0.17</b>	<b>2.58</b>	<b>0.01*</b>	<b>0.341</b>	<b>2.929</b>
연계 관광 상품의 개발	-0.029	0.07	-0.026	-0.409	0.683	0.378	2.648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0.044	0.076	-0.041	-0.58	0.562	0.293	3.41
행사 진행 및 각종 서비스 개선	0.054	0.068	0.049	0.802	0.423	0.39	2.566
다양한 홍보전략 개발	-0.045	0.081	-0.058	-0.555	0.579	0.133	7.497
<b>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b>	<b>0.267</b>	<b>0.078</b>	<b>0.352</b>	<b>3.441</b>	<b>0.001**</b>	<b>0.141</b>	<b>7.07</b>
<b>지역 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b>	<b>0.165</b>	<b>0.063</b>	<b>0.169</b>	<b>2.619</b>	<b>0.009**</b>	<b>0.355</b>	<b>2.814</b>
관련 인쇄물(외국인용 책자 등) 제작	0.013	0.069	0.011	0.196	0.845	0.459	2.178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개발	0.107	0.062	0.114	1.721	0.087	0.336	2.979
<b>전문 공연장 확충</b>	<b>-0.171</b>	<b>0.055</b>	<b>-0.212</b>	<b>-3.124</b>	<b>0.002**</b>	<b>0.321</b>	<b>3.118</b>
관련 교육 기관(학과 등) 설립	-0.092	0.069	-0.117	-1.327	0.186	0.192	5.218
<b>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b>	<b>-0.213</b>	<b>0.058</b>	<b>-0.229</b>	<b>-3.701</b>	<b>0.000***</b>	<b>0.386</b>	<b>2.588</b>
숙박, 교통, 편의시설 확충	-0.033	0.053	-0.034	-0.626	0.532	0.497	2.014
<b>축제장으로의 접근 편의성</b>	<b>0.188</b>	<b>0.079</b>	<b>0.141</b>	<b>2.368</b>	<b>0.019*</b>	<b>0.416</b>	<b>2.402</b>
<b>재정 자립도 향상</b>	<b>-0.388</b>	<b>0.108</b>	<b>-0.362</b>	<b>-3.59</b>	<b>0.000***</b>	<b>0.145</b>	<b>6.884</b>
<b>재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b>	<b>0.355</b>	<b>0.116</b>	<b>0.323</b>	<b>3.064</b>	<b>0.002**</b>	<b>0.133</b>	<b>7.513</b>
후원회 조직 및 효율적 운영	-0.033	0.076	-0.032	-0.442	0.659	0.286	3.501
운영 조직의 상설화	0.053	0.06	0.063	0.884	0.377	0.292	3.424
전문 인력 양성	-0.092	0.071	-0.089	-1.294	0.197	0.314	3.183
<b>경제적 파급 효과</b>	<b>-0.229</b>	<b>0.069</b>	<b>-0.31</b>	<b>-3.322</b>	<b>0.001**</b>	<b>0.17</b>	<b>5.869</b>
<b>관광객 유치 효과</b>	<b>0.332</b>	<b>0.062</b>	<b>0.468</b>	<b>5.348</b>	<b>0.000***</b>	<b>0.194</b>	<b>5.166</b>
<b>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b>	<b>0.237</b>	<b>0.089</b>	<b>0.259</b>	<b>2.658</b>	<b>0.008**</b>	<b>0.156</b>	<b>6.398</b>
국제적 자유도시 홍보 효과	-0.077	0.099	-0.064	-0.777	0.438	0.216	4.634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0.111	0.091	0.105	1.217	0.225	0.198	5.052
<b>R<sup>2</sup>=.621, F=16.779, p=.000***</b>							

\* 종속변수: 음악축제 종합평가

\*\*\* : p<0.001, \*\* : p<0.01, \* : p<0.05

<표 5-19>와 <표 5-20>의 음악축제 활성화(상위, 하위) 요인이 중요도에 대한 결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원확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또한,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주민과 외부 관광객의 참여를 높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한다. 또한 제주는 지역 특성상 대기업과 후원조직 시스템의 부재로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문화가 열약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 또는 국제적인 후원회 조직 및 악기점 또는 음악관련 외국기업의 후원금 확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그리고 제주어를 활용한 창작곡과 제주의 민요를 소재로 관악과 합창음악으로 편곡하는 등 제주의 고유한 예술적 소재를 음악축제와 접목하여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이 접목된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 4) 중요도 우선순위 분석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활성화요인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1순위는 관광객 유치 효과( $\beta=0.468$ ), 2순위는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beta=0.352$ ), 3순위는 재원확보 프로그램개발( $\beta=0.323$ ), 4순위는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beta=0.259$ ), 5순위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 $\beta=0.17$ ), 6순위는 지역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 $\beta=0.169$ ), 7순위는 축제장으로서의 접근 편의성( $\beta=0.141$ ), 8순위는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팅 전략 개발( $\beta=0.114$ ), 9순위는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 $\beta=0.105$ ), 10순위는 운영 조직의 상설화( $\beta=0.063$ )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은 <표 5-21>과 같다.

<표 5-21>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별 중요도 우선순위 분석표

활성화 요인	중요도( $\beta$ )	중요도 순위
관광객 유치 효과	0.468	1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0.352	2
재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0.323	3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0.259	4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	0.17	5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	0.169	6
축제장으로의 접근 편의성	0.141	7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개발	0.114	8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0.105	9
운영 조직의 상설화	0.063	10
행사 진행 및 각종 서비스 개선	0.049	11
전문가의 축제 기획 및 외부 평가	0.043	12
관련 인쇄물(외국인용 책자 등) 제작	0.011	13
연계 관광 상품의 개발	-0.026	14
후원회 조직 및 효율적 운영	-0.032	15
숙박, 교통, 편의시설 확충	-0.034	16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0.041	17
다양한 홍보 전략 개발	-0.058	18
국제적 자유도시 홍보 효과	-0.064	19
전문 인력 양성	-0.089	20
관련 교육 기관(학과 등) 설립	-0.117	21
전문 공연장 확충	-0.212	22
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	-0.229	23
경제적 파급 효과	-0.31	24
재정 자립도 향상	-0.362	25

음악축제 활성화요인별 재 참가의사와 타인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활성화요인의 중요도와 중요도 우선순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이 재 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사회 기여도요인과 홍보 및 네트워크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제주국제합창제는 사회 기여도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이 타인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홍보 및 네트워크요인, 인프라 및 접근성요인, 사회기여도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제주국제합창제는 사회 기여도요인이 가장 높으며 인프라 및 접근성요인과 기획 및 프로그램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지역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상위요인)별 중요도를 도출한 내용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를 보면, 1순위는 사회 기여도 요인( $\beta=0.675$ ), 2순위는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beta=0.342$ ), 3순위는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beta=0.179$ ), 4순위는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beta=0.129$ ), 5순위는 자원 및 조직 요인( $\beta=-0.076$ )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주지역 음악축제 활성화요인(하위요인)별 중요도를 도출한 내용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를 보면, 1순위는 관광객 유치 효과( $\beta=0.468$ ), 2순위는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beta=0.352$ ), 3순위는 자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beta=0.323$ ), 4순위는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beta=0.259$ ), 5순위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 $\beta=0.17$ ), 6순위는 지역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확보( $\beta=0.169$ ), 7순위는 축제장으로서의 접근 편의성( $\beta=0.141$ ), 8순위는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개발( $\beta=0.114$ ), 9순위는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함양( $\beta=0.105$ ), 10순위는 운영 조직의 상설화( $\beta=0.063$ )로 나타났다.

##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제주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정치, 환경,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변화를 접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관광자원과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접목한 문화관광축제분야는 지역의 정체성 제고는 물론 지역민의 화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수익창출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 또는 문화상품으로 육성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국제규모의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고지원 공연예술사업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축제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음악축제와 국내를 대표하는 음악축제에 대한 기본내용과 운영현황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내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 축제가 활성화 된 요인을 추출하여 제주지역 국제규모의 음악 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발전과정, 운영조직 및 재원, 운영 프로그램, 공공기관의 축제평가, 각 축제의 활성화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참가경험이 있는 음악축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통계 자료는 SPSS 통계 17.0 프로그램으로 분석처리 하였고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을 통해 모집단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음악축제의 활성화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설문문의 주요내용은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대한 인지도와 참가 경험, 참가 동기와 불참 이유, 음악축제의 활성화요인에 대한 평가, 제주의 음악축제 홍보

소재에 대한 인식, 축제의 재 참가 및 타인추천의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실증분석의 주요내용은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상위 활성화 요인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분석, 하위 활성화요인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분석, 제주지역 음악축제를 세계에 홍보하는 소재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활성화요인이 재 참가 의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주지역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이 타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상위 활성화 요인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결과, 1순위는 사회 기여도 요인, 2순위는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3순위는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4순위는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5순위는 재원 및 조직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하위 활성화 요인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결과, 1순위는 관광객 유치 효과, 2순위는 관련행사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3순위는 재원확보 프로그램개발, 4순위는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5순위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 6순위는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 7순위는 축제장으로서의 접근 편의성, 8순위는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개발, 9순위는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10순위는 운영 조직의 상설화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지역 음악축제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소재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결과, 제주국제관악제는 거리시가 행진 및 야외 관광지 연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53.9%, 자연환경에 관한 소재가 21.3%, 제주의 신화에 관한 소재가 16.3%, 제주의 고유한 언어에 관한 소재가 3.5%, 제주의 민요에 관한 소재가 5%로 나타났고, 제주국제합창제는 제주의 민요에 관한 소재가 43.3%로 나타났으며 제주의 신화에 관한 소재가 27%, 제주의 자연환경에

관한 소재가 14.9%, 제주의 고유한 언어에 관한 소재가 9.9%로 나타났다.

넷째,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이 재 참가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사회 기여도요인과 홍보 및 네트워크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제주국제합창제는 사회 기여도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이 타인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홍보 및 네트워크요인, 인프라 및 접근성요인, 사회기여도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제주국제합창제는 사회 기여도요인이 가장 높으며 인프라 및 접근성요인과 기획 및 프로그램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인 제주지역 음악축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 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야한다. 또한,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한다. 제주는 지역 특성상 대기업과 후원조직 시스템의 부재로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문화가 열약하기 때문에 자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 또는 국제적인 후원회 조직 및 악기점 또는 음악관련 외국기업의 후원금 확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또한 제주어를 활용한 창작곡과 제주의 민요를 소재로 관악과 합창음악으로 편곡하는 등 제주의 고유한 예술적 소재를 음악축제와 접목하여 지역민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제주국제관악제를 국내·외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악제의 특성상

거리 시가행진 및 야외 관광지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연환경에 관한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관악제는 악기를 활용한 무대공연의 특성상, 합창제에 비해 음악적 수준보다는 시각적인 효과가 주요하기 때문에 실내연주 보다는 야외연주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관악제의 홍보 수단으로는 시각적 효과를 표출할 수 있는 거리시가행진 및 관광지에서의 공연 등은 천혜의 관광지인 제주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이고 제주국제관악제를 세계로 홍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셋째, 제주국제합창제를 국내·외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합창제의 특성상 제주민요와 제주의 신화에 관한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합창제는 인성을 활용한 무대공연으로서 관악제에 비해 시각적인 효과보다 청각적인 효과를 우선하고, 실내 연주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합창제는 제주의 고유한 신화와 독특한 제주민요를 소재로 오페라, 뮤지컬 등 언어를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재창작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호텔 및 전시공간이 발달한 제주의 특성과 접목한 다양한 실내공간에서의 공연은 제주국제합창제를 국내·외로 알리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넷째,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재 참가유도와 타인추천을 위해서는, 제주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발하고 관광객과 지역민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축제장소로의 접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원봉사 또는 음악인으로서 공연무대의 참여를 높이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 제2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음악축제와 국내를 대표하는 음악축제에 대한 활성화요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운영현황, 조직 및 재원, 프로그램, 활성화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축제 활성화요인에 대한 문헌분석을 토대로, 음악축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실증분석하였고,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음악축제 활성화요인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획 및 프로그램요인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제작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및 관광객과 지역민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관악제 중심의 야외관광지공연을 강화하고 합창제 중심의 실내공연을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야간 상설공연 시스템 운영과 여름철 공연을 벗어난 각 축제별 시즌화 방안 등 유동적인 운영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홍보 및 네트워크요인에서는, 축제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내 음악관련 단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홍보교육 아카데미의 운영, 음악축제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외 대도시 교류음악회, 축제의 상설 음악 단체와 해외 유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해외 투어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축제의 홍보 방안을 강화해야한다.

셋째, 인프라 및 접근성요인에서는 축제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순환버스시스템을 적용하고 택시운영체계가 발달된 제주의 특성상 콜택시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축제를 위한



전문 공연장의 신축보다는 이미 운영 중인 공연장 및 공연공간을 축제별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재원 및 조직요인에서는, 제주의 지역 특성상 대기업과 후원조직 시스템의 부재로 예술분야에 대한 후원문화가 열약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 또는 국제적인 후원회 조직 및 악기점과 음악관련 외국기업의 후원금 확보 등 재원확보 방안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제주에 적합한 조직모델인 행정가, 외부전문가, 도내 예술가의 적절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구성이 시급하다.

다섯째, 사회 기여측면에서는, 제주지역 음악축제로 인해 지역정체성 확보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외부 관광객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경제효과 및 지역의 이미지를 상승시켜야 한다. 문화·교육 측면에서는 제주의 고유한 예술문화를 바탕으로 현대성이 가미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내 관광협회와 여행업계와의 협약을 통해 투어공연과 주요 호텔과의 패키지 프로그램 등 관광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한다.

이러한 음악축제의 활성화요인에 대한 결론을 토대로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의 근본 목적인 지역민의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축제아카데미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도외 방문객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과급 효과를 상승시켜 사회기여도를 높여야한다.

둘째,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방안 이외에, 음악축제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외 대도시 교류음악회, 축제의 상설 음악 단체와 해외 유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해외 투어공연, 인터넷 네트워크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축제의 홍보를 강화해야한다.

셋째, 각 음악축제별 맞춤형 공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관광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공연 시스템 운영, 제주의 자연과 환경의 특성을 살린 제주세계자연유산지역에서의 기획공연, 관악축제의 특성을 살린 야외관광지 음악회, 합창제의 특성을 살린 전시공간 또는 호텔 실내공간에서의 음악회, 두 장르의 연합공연 또는 공연확대를 통한 오페라, 뮤지컬, 음악극과 같은 종합예술 작품개발 등 각 축제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각 축제별 소속 음악단체를 활용한 상설 공연을 통한 수익, 수준 높은 음악회 개최를 통한 기업 협찬과 광고 수익, 음악축제 관련 문화상품의 개발과 판매 등 축제로 인한 직·간접적인 수익창출 및 수익의 확대 등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다섯째, 열악한 제주의 지역경제 특성상 후원회 시스템의 운영과, 제주도내에 한정하지 않는 재원확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한다. 세계적인 음악축제의 공통점은 후원회 시스템을 통하여 축제의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한 국내·외의 유관 기업에 대한 스폰서 유치 및 제주의 특성을 살린 관광업계와의 패키지 협약을 통한 다양한 협찬 방안 등 재원확보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야한다.

여섯째, 지역의 음악애호가에 대한 육성과 지원, 수준 높은 전문음악인의 육성과 발굴 등 균형적인 음악발전을 통한 음악 인프라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야한다. 이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관악 및 성악 아카데미 운영, 음악축제 상설단체의 육성과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 문헌

### 1) 단행본

- 강원개발연구원·한국문화정책연구원, 『춘천 인형극제의 지역문제 및 사회 문화적 효과』, 1995.
- 강인원·고호석,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축제 행사의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학회 문화관광연구 제5권 제1호, 2003.
- 강일중, 『공연예술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연극과 인간, 2009.
- 고정민, 「한류지속과 기업의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5.
- 고승익·김 윤·이양희, 『관광 이벤트 경영론』, 백산출판사, 2002.
- 고승익·윤동구·정승훈·박은아, 「축제 방문동기 세분화에 따른 지각된 성과와 만족분석」, 관광학연구 Vol. 23(2), 2002.
- 김명자, 「지역축제의 방향을 위한 시론」, 비교민속학연구 Vol. 12, 1995.
- 김병철,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1995.
- 김성혁·고호석·김순하, 「지역축제 관광객의 시장세분화 선택속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0.
- 김성혁·고호석·김순하, 『소비자 행동론』, 형설출판사, 서울, 1997.
- 김장기·권혁순, 「현대지역축제의 성공요인과 집행과정에 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Vol. 9, 2001.
- 김철원·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 김춘식·남치호, 『세계축제경영』, 김영사, 2002.
- 김태관·변금윤, 『제주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양성방안 연구』,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 류정아, 「제주 대표축제 개발 논의를 위한 워크샵」, “제주지역 축제의 발전현황과 대표축제의 가능성 탐색”, 제주문화관광연구소, 2008.
- 류정아, 『축제 인류학』, 살림지식총서 014, 2003.
- 박미경, 『아시아 음악의 어제와 오늘』, “한국의 음악축제 현황”, 아시아음악학회, 2008.
- \_\_\_\_\_, 『북캘리포니아 음악축제 현장보고』, 세계음악학회(음악과 문화), 2003.
- 박종호, 『유럽음악축제 순례기』, 한길아트, 2006.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1996-2005)』, 2007.
- \_\_\_\_\_, 「2009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9.
- \_\_\_\_\_, 「2008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8.
- \_\_\_\_\_, 「2007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7.
- \_\_\_\_\_, 「200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6.
- \_\_\_\_\_, 「2005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5.
- \_\_\_\_\_,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09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 보고서」, 2009.
- \_\_\_\_\_, 「2008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 보고서」, 2008.
- \_\_\_\_\_,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 보고서」, 2007.

- 송정일, 『이벤트 플래닝』, 백산출판사, 2001.
- 안혜원·이민규, 『지역축제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0권 제6호, 2010.
- 양영근·김의근·정승훈·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축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2000.
- 오영훈,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10.
- 오영환, 「지역축제의 실제와 경제적 효과」, 관광학 연구, Vol. 22(8), 2008.
- 오창현, 「제주 대표축제 개발 논의를 위한 워크샵」,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1년의 성과와 과제”, 제주문화관광연구소, 2008.
- 이흥재, 『문화경제학 만나기』, “문화산업총론” 한국문화경제학회, 김영사, 2001.
- \_\_\_\_\_, 『문화예술정책론』, 박영사, 2001.
- 이은정·황경수·고태호,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09
- 임상오,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본 공연예술, 21세기 공연예술의 향방과 대책』, (사)한국공연예술 매니지먼트협회, 2000.
- 정강환, 「지역축제를 통한 관광마케팅 사례」, 지방행정, 2003.
- \_\_\_\_\_, 『문화축제로의 이천도자기 축제의 국내외 방문객시장 분석, 방문 동기 및 축제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Vol. 13. 1999.
- 정동채, 「지역 축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문화관광부) 정책 자료집 5, 2001.
-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2009 제주국제관악제 발전을 위한 포럼」, 2009년 8월 14일,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

제주국제합창제조직위원회, 「한국합창음악과 제주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2007년 7월 16일,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제주문예연감』, 2007.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 60년사』, 2008.

\_\_\_\_\_,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 예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 2004.

제주문화관광연구소, 「제주 대표축제 개발 논의를 위한 워크숍」, 2008.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2007 제주축제 평가백서』, 2007.

조선대학교 산업디자인특성화사업단, 『21세기 전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통문화상품화 계획』, 2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2007.

\_\_\_\_\_, 『지역축제의 효율적 조직과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6.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1994.

## 2) 학위 논문

강해상, “축제 평가 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고호석, “지역이벤트 관광객의 시장 세분화와 선택 속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남일, “지역 개발전략으로서 지역축제의 생산구조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석범, “지역 축제의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제주도 탐라문화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성진, “축제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제·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프랑스 카니발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성현,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분석 : 지역적합도 전략 및 마케팅전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김일용, “지역축제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중심으로”, 대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홍수, “문화 거버넌스 모형 평가에 관한 연구(한국 문화축제 정책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문성중, “지역축제 이벤트평가를 위한 축제속성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모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손선미, “체험지향성이 관광축제이벤트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심응섭, “한국의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내포 문화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윤홍열, “지역문화축제 브랜드디자인의 상징 표현이 미치는 영향성과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이상철, “문화관광이벤트로서의 제주국제관악제 활성화 방안”,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주정화, “지역문화축제의 국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최영수,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대불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2. 외국 문헌

- British Columbia Task Force on Public Order, Policy Report,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1(2), 1993.
- Brown, H. E. & Daniels, M. J., *Does the Music Matter? Motivations for Attending a Music Festival*, Event Management.
- Carlsen, Getz, and Soutar, *Event Evaluation Research*, Event Management. Vol. 6, 2003.
- Getz, D, *Event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Cognizant Communication Cooperation, New York, 1997.
- Getz, D,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991.
- Falaasi, A, *Time out of Time : Essays on the Festival*,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Albuquerque, 1987.
- Hall, C. M. *Hallmark Tourist Events : Impacts of a Hallmark Event : a Case Study of EXPO 1986*,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2.
- Hall, C. M, *Hallmark Events and the Planning Process*, Avebury, Aldershot, 1989.
- Peter W. Willims, K. B. Dossa, and L. Uompkins, *Volunteerism and Special event management : A Case Study of Whistler's Mens World of Sking*, Festivals Management & Event Tourism, Vol. 3(2), 1995.

### 3. 기타 자료

#### 1) 주요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index.jsp>

몬트리올 재즈국제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www.montrealjazzfest.com/>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www.arena.it/it-IT/Homeit.html>

에든버러 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www.edinburghfestivals.co.uk/>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www.salzburgerfestspiele.at/>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jejufestival.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ctpi.re.kr/>

#### 2) 주요 신문 기사

김남국, “축제, 이제 국가 브랜드 키우는 일등공신-돈 버는 지역축제, 작년 경제유발 효과 1조 3천억”, 한국경제, 2007년 2월 23일.

김현중, “관악제 예산 열악성 극복, 인력체계 안정화해야”, 제주일보, 2009년 8월 12일.

김효영, “제주국제합창제 수준 한 단계 향상”, 제민일보, 2009년 7월 1일.

서상준, “지역축제 난립, 수십억 예산 낭비”, 경향신문, 2008년 4월 27일.

위영석, “제주국제관악제 유네스코 등록”, 한라일보, 2006년 5월 25일.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김태관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음악축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내·외 음악축제에 대한 운영 현황과 활성화 요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합창제의 운영현황, 조직 및 자원, 운영 프로그램, 각 축제의 활성화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음악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설문은 학문적인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응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므로 귀하가 생각하시는 의견을 신중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04.

- 지도교수 : 남상문(추계예술대학교 교수)
- 연구자 : 김태관(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 박사과정)
- 연락처 : 휴대전화 010-2804-2808  
전자우편 ktk7676@hanmail.net

I. 다음은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인지 여부와 참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표 해주세요.

구 분	안다		모른다	
	참여	불참	참여	불참
1. 제주국제관악제				
2. 제주국제합창제				

II. 다음은 제주지역 음악축제 참가동기와 참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II-1. (음악축제를 참가했다면) 음악축제 참가 동기는 ?

- ① 업무 관련
- ② 음악 활동 관련
- ③ 휴가 관련
- ④ 기타(관광, 문화체험 등)

II-2. (음악축제를 불참했다면) 음악축제 참가하지 못한 이유 ?

- ① 관심이 없어서
- ② 정보를 몰라서
- ③ 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시간이 없어서
- ⑤ 교통이 불편해서
- ⑥ 기타

III. 다음은 제주지역 음악축제의 운영 및 활성화 요인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표 해주세요.

III-1. 제주국제관악제

활성화 요인	매우 잘됨	잘되고 있음	보통 이다	잘 안됨	매우 잘안됨
<input type="checkbox"/>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1. 전문가의 축제 기획 및 외부 평가					
2.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					
3. 연계 관광 상품의 개발					
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진행 및 각종 서비스 개선					
<input type="checkbox"/>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6. 다양한 홍보 전략 개발					
7.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8.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					
9. 관련 인쇄물(외국인용 책자 등) 제작					
10.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개발					
<input type="checkbox"/>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11. 전문 공연장 확충					
12. 관련 교육 기관(학과 등) 설립					
13. 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					
14. 숙박, 교통, 편의시설 확충					
15. 축제장으로서의 접근 편의성					
<input type="checkbox"/> 채원 및 조직 요인					
16. 재정 자립도 향상					
17. 채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18. 후원회 조직 및 효율적 운영					
19. 운영 조직의 상설화					
20. 전문 인력 양성					
<input type="checkbox"/> 사회 기여도 요인					
21. 경제적 파급 효과					
22. 관광객 유치 효과					
23.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24. 국제적 자유도시 홍보 효과					
25.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III-2. 제주국제합창제

활성화 요인	매우 잘됨	잘되고 있음	보통 이다	잘 안됨	매우 잘안됨
<input type="checkbox"/> 기획 및 프로그램 요인					
1. 전문가의 축제 기획 및 외부 평가					
2.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기획					
3. 연계 관광 상품의 개발					
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진행 및 각종 서비스 개선					
<input type="checkbox"/> 홍보 및 네트워크 요인					
6. 다양한 홍보 전략 개발					
7. 관련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8. 지역 주민의 인식 및 참여도 확보					
9. 관련 인쇄물(외국인용 책자 등) 제작					
10. 국내·외 시장으로 마케팅 전략 개발					
<input type="checkbox"/> 인프라 및 접근성 요인					
11. 전문 공연장 확충					
12. 관련 교육 기관(학과 등) 설립					
13. 학생 수요층 및 일반 애호가 육성					
14. 숙박, 교통, 편의시설 확충					
15. 축제장으로서의 접근 편의성					
<input type="checkbox"/> 재원 및 조직 요인					
16. 재정 자립도 향상					
17. 재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18. 후원회 조직 및 효율적 운영					
19. 운영 조직의 상설화					
20. 전문 인력 양성					
<input type="checkbox"/> 사회 기여도 요인					
21. 경제적 파급 효과					
22. 관광객 유치 효과					
23. 제주의 문화예술 이미지 상승효과					
24. 국제적 자유도시 홍보 효과					
25.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IV. 다음은 제주지역 음악축제(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합창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소재의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IV-1. 제주국제관악제 홍보 소재는? 1순위 :            2순위 :

- ① 제주의 자연환경에 관한 소재(한라산, 성산일출봉, 오름 등)
- ② 제주의 신화에 관한 소재(자청비, 설문대 할망, 제주 개벽 신화 등)
- ③ 제주의 고유한 언어에 관한 소재(제주 사투리 등)
- ④ 제주의 민요에 관한 소재(제주의 민요, 노동요 등)
- ⑤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거리시가 행진, 야외 관광지 연주 등)

IV-2. 제주국제합창제 홍보 소재는? 1순위 :            2순위 :

- ① 제주의 자연환경에 관한 소재(한라산, 성산일출봉, 오름 등)
- ② 제주의 신화에 관한 소재(자청비, 설문대 할망, 제주 개벽 신화 등)
- ③ 제주의 고유한 언어에 관한 소재(제주 사투리 등)
- ④ 제주의 민요에 관한 소재(제주의 민요, 노동요 등)
- ⑤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거리시가 행진, 야외 관광지 연주 등)

V. 다음은 제주지역 음악축제에 대한 재 참가 의사 및 타인 추천 의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표 해주세요.

V-1. 제주국제관악제

내 용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1. 재 참가 의사 (참가한 경험이 있다면)					
2. 타인 추천 의사					

V-2. 제주국제합창제

내 용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1. 재 참가 의사 (참가한 경험이 있다면)					
2. 타인 추천 의사					

※ 응답자의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V표 바랍니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3. 지 역	① 제주도민 ② 제주도 외인
4. 종사분야	① 예술인 ② 언론인 ③ 음악인(대학생 포함) ④ 음악축제 집행부(실무자 및 임원) ⑤ 행정가(공무원, 연구사 등) ⑥ 학계 전문가(교수, 교사 등)

- 감사 합니다 -

## An Analytic Study on Revitalization Factors of Music Festival

- Mainly focused on Jeju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Tae-gwan, KIM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Graduate School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Advisor: Professor Sang-mun, NAM

Culture & Tourism Festivals in Korea started increasing sinc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was launched in 1995, and there have been over 1200 kinds of festivals produced until now. However, the primary purpose of the festival such as local invigoration, improvement of local image, expansion of increasing opportunities of cultural nostalgia for local residents and construction for unification and sense of unity between local residents haven't been quite accomplished yet despite the enlargement in numbers of the festival. In case of Jeju, about 60 kinds of festival with commitment of huge budget are held each year, yet beneficial effects are not quite there as expected. Fortunately, we have been lucky enough to create Arts & Culture Festival based on the combined elements of Arts and tourism due to locally unique properties of traditional culture and specialized tourism environment. This kind of distinctive festivals have satisfied tourists with both visual and emotional entertainment and those events have made various outputs out

of them. Especially,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JIWEF) and Jeju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JICF) are the representative festivals of Jeju which have been officially sponsored by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and have contributed to the local society bringing more and more tourists into Jeju

This study is to suggest development plans for music festival by process of comparing and analyzing successful elements of management condition & programs, organization & financial resources, vitalization factors of JIWEF & JICF which have been known to be worldwide music festivals held in Jeju area based on analysis of the study about management condition and revitalization factors of both nationally representative festivals and internationally successful festivals. In order to achieve goals of the study, a survey of music festival experts, who have participated in local music festivals, was conducted and analyzed thoroughly.

This study has showed following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 survey.

First, in order to vitalize local festivals, various programs based upon indigenous local culture should be coordinated and convenient access route to festival for local residents should be created so that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could more easily take part in the festival. This project will eventually increase level of contribution to local development, so it should be carried forward as a major official policy issue.

Second, in order to promote JIWEF,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wind instruments should be brought into different kinds of outdoor performance and nature-friendly programs such as street parade and outdoor concert around tourist attractions.

Third, in order to promote JICF, programs utilized materials of Jeju folk songs and myths should be created and promoted as a major policy issue.

Finally, another major policy issue to attract more people from home and

aborad should focus on developing and organizing programs that both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could share the sympathy and that the residents could be more easily motivated to be a part of the festival with convenient access route to the venue.

Following plans are recommended with 5 primary factors of revitalizing local music festivals.

First, in terms of coordination and program, various genre of programs based on materials of exotic local culture should be invented and coordinated, and those intrinsic programs would be able to attract both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Second, in terms of promotion and network, various programs like exchange promotional exhibition, international concert performed by students studying abroad and tour concerts around the nation and world should be organized through network between major big cities in Korea and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Third, in terms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accessibility, there should be shuttle buses and convenient taxi system such as call-taxi available for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so that they could have transportation access to the festival from anywhere around Jeju.

Fourth, in terms of financial resources and organization, sponsorship for local art field from major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 the nation are very substandard due to faraway location, and other ways of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strengthened by boosting governmental sponsorship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 the support and by securing donations from international music stores and companies

Fifth, in terms of social donation, economic effect and social image must be raised in local community by securing more tourists out of Jeju with local identity and community spirit accumulated through local music



festivals.

Abstracts based on results of the study and conclusion extracted from it are listed as follows

First, local music festivals in Jeju should be able to enhance the level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ntribution by motivating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to take part in them.

Second, various ways of promoting festivals should be pushed forward throughout music tour concerts around major cities in the nation and internationally coordinated concerts with students studying abroad.

Third, appropriate performance system should be applied to each kind of music festival. Especially the most proper and practical plan for each festival should be prepared such as permanent show system suitable for tourists, wind music concert fit in outdoor tourist attractions and choir concert coordinated in indoor space that would be appropriate for choir performances.

Fourth,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hould improve based on securing social identity in local community which is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festival. Moreover, realistic ways to enhance the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y should be planned out throughout more profits made out of the festival.

lastly, financial support program from home and abroad should be planned out and applied due to poor level of local sponsorship. Marketing experts should be hired to attract sponsorships from big companies from home and abroad and special programs like a package contract with tourism industry need to be discussed and pushed forward in order to secure economic resources.